

국립국어원 2017-01-3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73-01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책임 연구자 | 강창욱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7년 5월 10일 ~ 2017년 12월 22일

2017년 12월 20일

책임 연구자: 강창욱(강남대학교)

연구 기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책임 연구자	강창욱
공동 연구원	김경진, 황창호, 엄미숙, 이미혜 김주희, 박종미, 송미연, 이현화
연구 보조원	김선희, 장민영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 연구 기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 연구 기간: 2017년 5월 10일 ~ 12월 22일(7개월)

■ 연구 진: 총 11명

구분	이름	소속
책임 연구자	강창욱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경진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황창호	에바다농인선교연구소 소장
	엄미숙	前)나사렛대학교 외래교수
	이미혜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외래교수
	김주희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표
	박종미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CISM연구소 연구개발팀장
	송미연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화통번역학과 석사
	이현화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주무관
연구 보조원	김선희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과장
	장민영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사원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연구

이 연구는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방안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안 개발,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에서 사용될 교재의 시범 개발, 한국수어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의 네 가지 하위 영역별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은 총론과 각론으로 개발되었다. 총론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명시된 120시간의 최저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초점집단 면담을 통해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회화, 한국수화언어, 농사회의 이해’의 다섯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제안하였다. 편성 운영 기준은 양성과정 개설시기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개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5개 과목은 과목별로 ‘1. 교과의 성격, 2. 교육 목표, 3. 내용 구성, 4.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5. 교수학습방법, 6. 평가’로 구성하였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에서 사용될 교재는 「한국 농사회의 이해」로서 1장 장애학과 농인,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3장 농인 가족의 이해,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8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9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10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로 구성하였다.

한국수어문화학교는 6차에 걸쳐 농인 당사자, 가족, 교원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범 운영된 프로그램은 ‘수어낭독회-수어로 책읽기’, ‘농 민속학-농사회 투어’, ‘이야기하기’이다. 한국수어 문화학교 시범 운영 프로그램들은 농인을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는데, 농인들의 정체성 확립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인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시범 프로그램이다. 10차례 운영된 1회성 프로그램(‘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과 10회기씩 실시한 2개의 중기 프로그램(‘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 문화를 알렸으며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한국수어 문화학교, 교육과정, 한국수어교원, 한국 농사회의 이해,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Abstract>

The Study on the Oper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Culture Academ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ays to develop and propagate Korean Sign Language. For this purpose, four sub-areas of research were carried out: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development of pilot teaching materials to be used in the training of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establishment of the operation pla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and opera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to visit a hearing citizen.

The curriculum of the Korean Sign Language teacher training was developed with the general and the particulars. The General is based on the minimum 120 hours as specified in the Korean Sign Language Law. Through the questionnaires an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s, we proposed five basic subjects as the subjects of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Korean Sign Language instruction, Korean Sign Language conversation, Korean Sign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the deaf society. The researchers proposed a total of 18 standards, including those concerning the open timing of training courses. Five subjec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ubjects 1. Character of subject, 2. Goal of subject, 3. Achievement standards and learning elements, 5.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6. Evaluation.

The textbook, "Understanding Korean Deaf Society", to be used in the training of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are composed as follows: Chapter 1. The Disability Study & The Deaf people, Chapter 2. The Concepts & the Character of the Deaf Society, Chapter 3 Understanding of the Deaf Family, Chapter 4. Historical Transition of the Deaf Society, Chapter 5. Laws and Policies for the Deaf Society, Chapter 6.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eaf Society, Chapter 7. Art and Sports of the Deaf, Chapter 8. The Deaf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and Chapter 9.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af Society changes.

Korea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conducted 6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group of deaf people, family, teachers. The programs that have been specially piloted are 'Reading in Sign Language - Reading books in Sign Language', 'The Deaf Society Folklore - The Deaf Society Tour', and 'Sign Language Storytelling'.

The program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School operated an advanced program for the deaf people, which proved to be effective i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deaf people.

It is a pilot program designed to inform general citizens about the sign language & the culture of the deaf people. There were two long-term programs (“Sign Language, Flowering in the Library” and “Sign Language Classroom where the non-deaf students and the deaf students together”) which provided 10 sessions, and 10 different single session programs (“Announcing Korean Sign Language and the Deaf Culture”).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program with good quality can be greatly effective informing the citizens the sign language and the deaf culture.

Key Words: sign language, deaf culture, korea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curriculum

<개조식 요약>

I. 연구 과제 개요

-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양질의 수어지도자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본격적 교재 개발에 앞서 교재 개발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재의 시범 개발.
- 농인의 정체성 확립과 수어를 비롯한 농 문화 발전을 위해 운영할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
- 일반 시민에게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찾아가는 한국 수어 문화학교’ 시범 운영.

II.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국내외 문헌 조사 + 수어와 농 문화 관련 자료 분석. 농인 100명, 청인 100명 총 200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설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함.
- 설문과 FGI 결과는 기본이수 과목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절대 비율 (91%)을 차지하였음.
- 한국수화언어법상에 제시된 예시 과목들 중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 수어회화」, 「한국수화언어」,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다섯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제안함
- 교육 목표는 건전한 인성과 윤리의식을 기초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능력과 한국 수어의 보급과 농 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태도를 갖춘 한국수어교육전문가 양성으로 설정.
- 편성 운영 기준은 양성과정 개설 시기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개의 기준을 제안
- 각론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추천된 과목을 개발함.
- 5개 과목은 과목별로 ‘1. 교과의 성격, 2. 교육 목표, 3.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5. 교수·학습방법, 6. 평가’로 구성.

III. 교재 개발

- 「한국 농사회의 이해」로서 ‘1장 장애학과 농인,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3장 농인 가족의 이해,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9장 4

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로 구성함.

- 농인들의 교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장 장애학과 농인'은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
- 15시간 분량의 교재이나 농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농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 소상하게 담음.

IV.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 농인 당사자(성인), 수어교육 강사, 수어교육 이용자, 학령기 농 자녀를 둔 학부모, 농 인대안학교 교사, 농학교 교사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담을 6회 실시
- '수어낭독회-수어로 책읽기', '농 민속학-농사회 투어', '이야기하기'이다. 한국수어 문화학교 시범 운영.
- '수어낭독회-수어로 책읽기'는 수어문학 및 농 문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한 권의 책 전체를 수어로 낭독하고 한글로 된 문학의 형태를 수어로 변환하여 도서를 이해하고, 문학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농 민속학-농사회 투어는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농 성인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를 통해 지역별, 시대별 한국 농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발견하도록 함.
- 이야기하기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농인 이야기꾼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참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함으로써 농인의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됨.
- 프로그램들은 농인을 대상으로 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는데, 농인들의 정체성 확립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V.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시범 운영

-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인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시범 프로그램
- 10회의 단회기 프로그램('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과 10회기씩 실시한 2개의 다회기 프로그램('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을 운영.
- 프로그램의 질이 높을수록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 문화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음을 확인.

차 례

I. 연구개요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1.1. 연구의 필요성	7
1.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 범위	11
2.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11
2.2.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11
2.3. 농 정체성 함양과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12
2.4. 한국수어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12
3. 연구 방법	12
3.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12
3.2.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13
3.3.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13
3.4.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13
4. 추진일정	14
II.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17
1.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배경	17
1.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17
1.2. 한국수화언어법상의 한국수어교원	18
1.3.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성격	20
1.4. 미국 수어교사연합회(ASLTA)의 수어교사 자격 기준	22
2. 교육과정 개발 기초 조사	27
2.1. 설문 조사 개요	27
2.2. 조사 대상자 특징	27
2.3. 연구 도구	28
2.4. 자료 처리 및 분석	29
2.5. 설문조사 결과	30

2.6. 농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	44
3.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51
3.1. 교육 목적	51
3.2. 교육 목표	51
3.3. 편제와 시간 배당	51
3.4. 교수·학습	52
3.5. 평가	53
4.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	54
4.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 개발 원칙	54
4.2.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 개발 구성 내용	57

Ⅲ. 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79

1. 교재 개발의 성격과 목표	79
1.1. 교재 개발의 성격	79
1.2. 교재 개발의 목표	79
2. 교재 개발 과정	81
2.1. 자료 수집 및 분석	81
2.2. 단원별 저자	82
2.3. 개발 단원 예시	82
3. 수어 동영상 제작	83
3.1. 모델 및 수어 구연 검토자 선정	83
3.2. 수어 동영상 촬영 관련 제작 회의	83
3.3. 수어 동영상 촬영 개요	85
3.4. 수어 동영상 촬영 주요 지침	85
4. 향후 교재 개발 시 고려사항	87

Ⅳ.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91

1. 사업의 성격과 목표	91
1.1. 사업의 성격	91
1.2. 사업의 목표	91
2. 국내 수어교실 및 문화학교 실태	92
2.1. 수어교육 실태	92

2.2. 농인의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환경	93
2.3.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	94
3. 기초 조사	96
3.1. 초점 집단 인터뷰(FGI) 대상	96
3.2. 초점 집단별 주요 내용	97
4. 시범 프로그램 운영	118
4.1. 시범 프로그램 I: 수어낭독회 - 수어로 책읽기	118
4.2. 시범 프로그램 II: 농 민속학 - 농사회 투어	120
4.3. 시범 프로그램 III: 이야기하기	123
4.4. 시범 프로그램 실시 후 주요 성과	125
5. 시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126
5.1. 수어낭독회	126
5.2. 농 민속학	126
5.3. 이야기하기	126
6. 결론: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시사점	127
6.1. 농 당사자 및 농사회 구성원 대상 FGI가 주는 시사점	127
6.2. 시범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	131
7.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132
7.1. 중점 사업 운영 방향	133
7.2. 기본사업계획	134
7.3. 세부사업 운영 계획	137
 V. 찾아가는 문화학교	 149
1. 사업의 성격과 목표	149
2. 참여 대상	149
3. 운영 형태	149
4. 운영 절차 및 방법	150
5. 주요 내용	151
5.1. 단회기 프로그램	151
5.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운영	156
5.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160
6. 주요 성과	165

6.1. 단회기 프로그램	165
6.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166
6.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167
7. 시사점	168
7.1. 단회기 홍보 프로그램	168
7.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170
7.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172
8. 만족도 조사결과	174
8.1. 단회기 홍보 프로그램	174
8.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참여자 만족도	188
 참고 문헌	 194
 부록	 207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4. 추진 일정

I	연구 개요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첫째, 체계적인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하여 수어교육의 실현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수어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수어지도자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수어교원 양성과정 없이 수어지도자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수어 교원 양성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부분의 수어교육 현장에서는 수어의 언어적 특성보다는 한국어 어휘나 문법에 맞춰진 수어교재를 사용하거나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개발된 수어 교재를 사용하여 수어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수어는 ‘농인’, ‘농사회’, ‘농문화’와 관계가 깊으며 여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농사회의 문화가 계승·발전될 수 있음.

현재 수어교원 양성과정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수어교육을 하는 수어교육원으로는 2009년 서울시로부터 승인 받아 운영되고 있는 서울 수어전문교육원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강원도수어문화원밖에 없음.

○ 따라서 체계적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한 수어지도자 양성, 농사

회와 수어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어교원 양성 교재 개발, 농사회와 농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함.

둘째, 수어가 언어로서, 문화의 결정체로서 전승·발전되어야 함.

수어는 자의성, 분절성, 생산성, 역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이라는 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지니고 있는 독자적 언어 체계임.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형태 및 통사 구조로 이루어져 수어만의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농인의 문화가 농축된 결정체임.

이러한 한국수어는 음성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언어의 기능을 의사소통 기능, 사고 기능, 예술 기능의 세 측면(김대행, 2002)으로 보았을 때 수어에 의한 의사소통 기능,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 기능, 수어 시(時)와 같은 예술 기능은 음성언어 기반의 한국어 수행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냄.

○ 따라서 독자적 언어로서의 한국수어를 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사업과 수어교원 양성 기반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에 따른 수어 보급 및 발전 환경 구축.

한국수화언어법(2016)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

동법 2조(기본이념)는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 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을 명시.

동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함을 명시.

동법 제8조(보고)는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함을 명시.

○ 따라서 ‘한국수화언어법’이 명시하고 있는 제2장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양질의 환경 구축.

언어는 문화적, 민족적 정체감 형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수어는 농인들의 생활 양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정체감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수어의 사회적 지위는 농인의 사회적 자리매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위가 낮을 경우에 한국 청인사회 내에서 언어적 소수자 집단인 농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큼.

농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농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인 수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수어교육과 수어사용 환경이 요구됨.

농인의 90% 이상은 청인 부모의 농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수어를 제1 언어로 습득하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학교, 농인 단체나 종교 활동을 통해 비로소 농 문화를 접하게 됨. 그러므로 농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건전한 농 정체성 형성이 필수적이며, 농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수어 발달과 농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요구됨.

○ 따라서 농인의 정체성 수립을 위해 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사업의 시행은 농인 사회의 발전에 핵심 변인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의 의미는 매우 큼.

다섯째, 인권 측면에서의 필요성.

농인은 듣지 못하는 사람(deaf person)이 아니라 보는 사람(Seeing person) (Sacks, 2000).

농인의 수어사용은 기본 인권으로서 교육에서는 이들의 언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수단임(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2015).

농인은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농인은 농 문화 향유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문화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농인은 수어 습득을 제약하는 의료적 조치나 교육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농인은 자신의 원하는 방식의 시각화된 언어, 도구, 매체 등을 통하여 통역이나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음.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어를 통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수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WFD, 2017).

○ 따라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상의 필요성들이 선언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양질의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언어교수·학습 원리에 입각한 **교재의 개발**, 농인의 정체성 확립 기반이 될 **한국수어 문화학교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수어의 보급과 인식 개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은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수어의 보급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에 사용될 교재를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시안) 개발.

둘째, 교재 개발 체제와 방향을 제시할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개발.

셋째, 농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융합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넷째, 한국수어 인구 저변 확대 방법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2. 연구 범위

2.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한국수어교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발.
-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개발하며, 총론은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개발하고, 각론은 4개 영역의 과목들 중 대표적인 4과목을 개발.
- 한국수화언어법상의 한국수어교원 양성의 법 취지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편제 중심이 아닌 편성·운영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발
- 각계 각층의 수어 인구의 참여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의체 구성.

2.2.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사용할 교재 중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시범 개발.
- 임의로 개발·사용되고 있는 수어 교재에 대해 국가 수준의 일정한 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재 개발 체제 구축.

2.3. 농 정체성 함양과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 농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특성화된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보편적 문화수준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수어 보급과 함께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 촉진.
- 농인이 자신의 모어인 한국수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형식 모색.

2.4. 한국수어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 일반 청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방향 탐색.
- 다음 세대(농인)를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방향 탐색

3. 연구 방법

3.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수어교원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 및 수어와 농 문화 관련 자료 분석.
- 교육과정 구성을 위하여 수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가 및 한국수어교원에 관심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 실시.
- 농인 당사자 및 수어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실시.
- 한국수어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을 위해 수어 사용 당사자, 수어 관련

전문가, 농인 공동체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의견 수렴.

- 검토본 개발 → 현장 검토 → 수정본 구안 → 전문가 협의회 → 완성본 구안의 5단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

3.2.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 농사회와 관련된 도서의 수집과 분석.
- 검토본 개발 → 현장 검토 → 수정본 작성 → 전문가 협의회 → 완성본의 5단계 개발 절차 적용.
-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원고 내용 최종 확정.
- 동영상 제작용 원고 재구성 → PPT 제작 → 집필자 및 관계자 회의 → 원고 내용의 수어 표현 방식 확정 → 수어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관계자 검토 회의 후 수어 동영상 완성.
- 농인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재 검토위원회 구성.

3.3.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 문화학교 관련 기초 조사(예: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소보사, 국어문화학교 등).
- 문화학교 시범 운영을 통한 성과 측정.
- 성과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한국수어 문화학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3.4.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 수어 관련 기성 프로그램의 수집과 분석
- 대상 기관 선정과 교섭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 개발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사업 평가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확정

[illegible]

II.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1.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배경
2.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조사
3.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4.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

II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

1.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배경

1.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과 그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교육과정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수어교원의 질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으며, 수어교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행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7).

한국수어교원의 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수어교원의 질을 수어 수강생의 과정 이수 후 성취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수어교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수강생들의 수행능력에 의해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어교원의 질을 수어교원 자격의 부여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요점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질적 지표라고 간주되는 특징, 속성 그리고 자질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학생의 성취도나 기타의 성과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Karen etc, 200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 기본적인 논의는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아직 시행을 해본 적이 없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이므로 원생의 질과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의 질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제한적 조건 하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의 일정한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무엇을 기준 내지 기초로 하여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먼저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의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한국수화언어법, 201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2016)이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은 협의의 과정으로 관련 전문가, 당사자 등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고려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1.2. 한국수화언어법상의 한국수어교원

1.2.1. 한국수어교원의 정체성

한국수어교원 양성의 근거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②항과 ⑤항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의 기본 목적은 제14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수어교원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임무는 ‘한국수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보급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도 이러한 한국수어교원의 정체성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수어교원은 등급제를 채택하

고 있는데 한국수어교원 1급과 한국수어교원 2급의 자격 구분이 있다. 대학과 대학원과는 별도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②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자는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을 통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의 취득은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제14조 ②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별표 1의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급 심사에 통과해야 된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밝히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시간과 교과목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편제와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는 것
 -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1.2.3.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과 이수시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1영역 언어 및 교육기초를 제외한 한국수어학, 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실제, 농 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교육실습의 다섯 영역에서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별표 1에 명시된 영역별 교과목은 교과목(예시)으로서 별표의 예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목을 예시로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기본이수과목을 지정하는 방법과 승인을 받은 양성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별표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필수이수시간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15시간
3	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4	한국수어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25시간
5	농 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15시간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30시간
	합계		120시간

1.3.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성격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그리고 다양한 이름의 자유선택과정을 축으로 이들 간의 적정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어교원양성과정은 이런 대학의 교원양성

과정과는 달리 다소간 평생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미 한국수화언어법은 편제와 시간배당,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여러 교육과정의 요소들을 제시해 놓고 있어 교육과정 구성의 여백이 크지 않다.

수어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교원교육의 목적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전형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분류(Liston과 Zeichner, 1991)는 학문중심, 사회적 효율성, 발달론, 사회재구성주의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학문중심의 교원양성 관점에서는 교원을 해당 학문 분야의 학자 혹은 교과목 전문가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학문중심 교원교육의 핵심은 예비교원들이 각 교과목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과교육학보다는 교과내용학에 중점을 두게 된다.

둘째, 사회 효율성 교원 양성 관점은 교원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은 좋은 교원을 학습자의 성취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교수전략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교원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가 과제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 높은 수준의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의 유형, 수업계획안 작성방법,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 등과 같이 교수행위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다.

셋째, 발달론적 관점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습자의 발달순서에 기초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발달론적 관점은 교원을 자연론자로서의 교원, 예술가로서의 교원,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교원을 정의할 때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학생을 관찰하는 기술을 기르도록 하는 것, 교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조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실험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중심 내용이 된다.

넷째, 사회재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교원들의 학교 교육과 사회에 대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상의 교원 양성교육 패러다임은 이론-실제, 소극적인 태도-적극적인 태도의 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교원 양성교육에서 실제인 유용성

을 강조하는지, 이론인 안목과 이해의 발달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구분해보면 사회재구성주의 관점과 사회 효율성 관점은 전자에 속하며 발달론적 관점과 학문 중심의 관점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박상완, 2000).

또한 교원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달론적 관점과 사회재구성주의 관점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에 학문 중심의 관점과 사회 효율성 관점은 학습자보다는 교수자의 입장이 더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위의 4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성격이 일반대학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성격과는 달라 어느 한 관점을 채택하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설문조사나 초점집단면담을 한 결과를 보면 이론보다는 실제를, 학생중심보다는 교수자 중심의 입장이 우세한 것 같다. 이것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교수법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데, 이것은 120시간이라는 별로 길지 않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자격검증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교육체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떠한 관점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고, 농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1.4. 미국 수어교사연합회(ASLTA)의 수어교사 자격 기준

역량 중심의 한국수어교원양성 교육과정 구안을 위해 미국수어교사연합회의 수어교사 자격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성옥 외(2014)는 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에서 수어교원은 자연언어로서의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수어학 및 교수법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어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수어교사연합회(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 Association; ASLTA)는 ASL(American Sign Language)을 가르치는 수어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11가지로 제시하였다. 11가지 영역에는 ASL 능숙도, 농 문화와 농사회, 응용언어학, ASL 연구에 대한 근거, 아동발달과 학습에 관한 이론들, 교육과정 개발, 교수, 교수환경, 의사소통, 지식습득, 지도성이 있다. 이러한 11가지 영역은 수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 및 역할을 제시한다. 자격 기준을 크게 분류하면 수어능력과 수어교수능력, 교원으로서의 자질, 수어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Standards for Teachers of ASL; <https://aslt.org/2014/07/aslt-standards-for-teachers-of-american-sign-language/>).

ASLTA의 이러한 기준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을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역 I : ASL 능숙도]

가. 수어하기

- a. 다양한 일상, 학교 및 직업 상황에서의 수어표현하기
- b. 특정 관심 주제와 특별한 능력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 주제로 토론하기
- c. 의견을 뒷받침하는 능력 나타내기, 상세하게 설명하기, 가설 세우기
- d. 의역과 에둘러 말하기와 같은 의사소통전략 사용하기
- e. 미세한 뜻의 차이를 전달하기 위해 구별된 어휘와 시각-기반 어조사용하기
- f. 특정 관심과 지식 영역에서 수어로 된 담화 요약하기
- g. 수어 자료(예, 비디오 텍스트, 그림)의 내용 이해하기, 적절한 추론하기
- h.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고, 언어적으로 복잡한 수어 자료 이해하기. 즉 친숙하지 않은 주제나 상황을 다루는 수어자료와 농 문화 측면과 관련된 수어자료
- i. 문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어 결과물을 이해하고, ASL의 미적 속성에 대한 의식과 ASL의 문체가 융합된 것을 설명하기
- j. 개인 경험, 읽기 및 다른 구어 및 비구어 자극에서 끌어낸 수어 이야기와 사실적 특징 기술하기
- k. 미국외국어교사협회(ACTFL)의 능숙도 기준을 활용한 미국수어교사협회의 단계별 등급매기기

나. 수어보기(듣기)

- a. ASL로 발화된 것의 중심 생각을 이해하기

- b. 눈앞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양한 주제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확장된 담화를 이해하기
- c. 메시지나 진술의 표면에 나타난 의미를 넘어 이면의 문화적 함의들을 이해하기
- d. 미국외국어교사협회(ACTFL)의 능숙도 기준을 활용한 미국수어교사협회의 단계별 등급매기기

[영역 II: 농 문화와 농사회]

- 가. 조사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농인의 일상생활패턴, 사회구조, 관련기관, 가치 체계에 반영하기
- 나. 문화 개념의 다양성 탐색하기
- 다. 동시대 저자 또는 수어자에 초점을 두고 몇몇 주요 저자나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농인 문학을 개관한 것에 대해 알기
- 라. 역사적, 지리적, 정책적, 예술적 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농 문화와 농공동체를 개관한 것에 대해 알기
- 마. 농 문화와 농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증진시키는 정보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그것들에는 다음 a~c를 포함한다.
 - a. 문화현상에 대하여 관찰하기, 비교하기, 조사하기
 - b. 문화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기, 가설세우기
 - c. 문화현상의 일반화를 종합하기 및 결정하기
- 바. 농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문화적 규준 개발하기
- 사. 자연 수어자가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개발하기
- 아. 농인의 신념, 전통 및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영역 III: 응용 언어학(언어 분석)]

- 가. 구어 및 수어의 본질에 대한 지식, 시공간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언어 변화와 언어 변이의 의미에 대한 지식
- 나. 제1언어습득과 제2언어습득 이론과 학습에 대한 지식
- 다. ASL의 수운 [음운], 형태, 통사, 어휘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식
- 라. 농인의 일상생활과 농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지식

[영역 IV: ASL 연구의 근거]

- 가. 농사회를 포함한 현대 사회에서 ASL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과 농인 당사자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 나. 특정 공동체의 요구와 흥미와 관련된 ASL의 중요성 강조
- 다. 수많은 다양한 청자(예, 학생, 부모, 관리자, 사업, 지역사회 등)에게 ASL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의 이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기회
- 라. 교육과정들과 무엇을 지도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근거를 통합하는 기회

[영역 V: 아동발달과 학습에 관한 이론]

- 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정서, 인지, 언어 발달에 관한 이론들
- 나. ASL 능력 발달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들의 상호관련성과 그것들이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들과 갖는 관련성

[영역 VI: 교육과정 개발]

- 가. 학습자의 요구, 흥미, 특성에 따라 지도의 성격을 맞추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의 역할
- 나. 상이한 교육과정 모델의 목표와 특징과 ASL 교수·학습 시의 모델 적용 능력
- 다. ASL과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을 결정할 때의 교사의 권리와 책임

[영역 VII: 교수]

- 가. 다양한 교수전략 및 목적과 이론적 토대를 확인하고 학습 성과 예견하기
- 나. 수업 계획, 자료 선택, 학습활동 계열화 및 실행에 대한 주요사항 결정하기
- 다. 전체 교수학습과정(일상적인 학생과의 상호작용, 지속적인 학생학습 평가, 자기평가)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 라. 현재 기술과 신기술의 이점을 살려 다중매체환경 꾸미기

[영역 VIII: 교수 환경]

- 가. 미국에서의 공립학교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정보
- 나. 교육청과 교육위원(교장, 카운슬러, 교육장, 학교위원회, 외국어 자문관), 주 교육부 관리의 역할과 서비스 조사
- 다. 학교의 다양한 기능을 관리하는 보고 체제와 규칙에 대해 알기
- 라. 다양한 학생, 환경, 학교에서의 교과 영역 및 비교과 측면을 접하는 임상적, 현장 경험들
- 마. 임상 및 현장 경험을 ASL 교사 준비 과정에 통합하는 계획
- 바. 자기평가의 절차와 실제, 개인적 개발과 전문적 개발

[영역 IX: 의사소통]

가. ASL과 영어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전략, a~e를 포함

- a. 구어 및 비구어 신호로 전달되는 함축된 의미와 의도된 의미를 판단하기
- b. 청중에게 맞춘 분명한 방식으로 생각 전달하기
- c. 다양한 텍스트와 시각적 자료를 읽거나 보기, 그리고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의미를 도출해내기
- d. 과제의 의도에 적절한 양식으로 분명하고 간결하게 수어하기 및 쓰기
- e. 다양한 청중에 맞춰 언어(수어나 문어)를 바꾸어 사용하기

나.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a~d를 포함

- a. 청중들의 상이한 견해(상이한 문화 포함)에 대한 인식
- b. 사회적, 전문적 맥락 안에서 행동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민감성
- c. 다양한 해석과 선택들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사고의 유연성
- d.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적 해결방법을 알거나 또는 만들어내기

[영역 X: 지식 습득]

가. a와 b의 정보 자원과 능력에 대해 알기

- a. 정보자원을 확인하고 정보출처의 신뢰성 평가하기
- b. 정보제공의 철저함과 논거의 강점에 대해 평가하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나. 비판적 사고와 연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a~c를 포함

- a. 쟁점 또는 문제와 그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다양한 정보 자원으로부터 습득한 자료를 관련짓기, 비교하기 또는 정량화하기
- b. 논리적 가정에 기초해서 결정하고,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기
- c. 상이한 학습 유형에 개인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알기

[영역 XI: 리더십]

가.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결단력, 욕구 및 능력

나. 목표 유발 과제 성취를 위한 시간, 자원, 환경 및 활동 위계를 계획하고 조직하는 기술

다. 전문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활용

2. 교육과정 개발 기초 조사

2.1. 설문 조사 개요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협의회에서 구성된 설문 내용은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국립국어원과의 최종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확정된 설문 내용([부록 1] 참조)은 지필 설문지, 수어 동영상, 온라인 설문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설문지 개발 과정은 6월에서 7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수어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시도 지부 및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지회의 수어 강사, 수어통역사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설문 조사를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농인 100부, 청인 100부로 총 2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의 코딩 및 분석 작업은 8월에 진행하였다.

2.2. 조사 대상자 특징

본 설문에 응한 조사 대상은 총 200인으로 그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에 제시한 <표 II-1>과 같다.

<표 II-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정보

변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75	37.5
	여자	125	62.5
연령대	20~30	34	17.0
	30~40	70	35.0
	40~50	57	28.5
	50~60	19	9.5
	60대 이상	14	7.0
	무응답	6	3.0
거주지	대도시	164	82.5

	중·소도시	34	17.0
	군·읍·면	1	0.5
최종학력	무학	1	0.5
	초등학교 졸업	0	0
	중학교 졸업	4	2.0
	고등학교 졸업	26	13.0
	대졸 이상	169	84.5
청각상태	농인	97	48.5
	난청인	4	2.0
	청인	99	49.5
(농인 응답자 대상) 의사소통 수단	수어	85	90.4
	구어	4	4.2
	필담	1	1.1
	몸짓	2	2.1
	기타	2	2.1
(농인 응답자 대상) 학교	일반학교에서 농학교	15	15.0
	농학교에서 일반학교	9	9.0
	농학교만	54	54.0
	일반학교만	20	20.0
	기타	2	2.0

응답자 대상의 성별을 보면 여자의 비율이 62.5%로 남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도 7%를 차지하였다. 82.5%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이 84.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높은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농인과 청인의 수가 각각 97명, 99명으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4명의 난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인 응답자의 주요 의사소통수단을 알아본 결과 수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94명 중 85명이었다. 재학 당시 학교 유형이 농학교라고 답한 사람이 54명으로 나타났다.

2.3. 연구 도구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도구는 <표 II-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의 도구로 활용된 설문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하는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등을 기초로 하여 제작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특수교육학 교수 1인과 수어교육 전문가 2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교육과정 전문가 1인, 농인 1인, 수어강사 3인을 대상으로 1회의 예비조사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였다.

〈표 II-2〉 연구도구의 구성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응답자의 배경 특성	·개인정보, 청각 상태, 의사소통수단	5
수어 연관 경력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유무와 자격소지 기간 ·근무지 ·수어강사 경력 ·수어 강의 시수 ·수어 강의 기관	5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방법 인지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3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에 대한 선호 방식	·1년 간 개설 횟수 ·양성기관의 120시간 운영에 대한 선호 방식 ·수업 개설 시간대 ·일 교육시간 ·1시간 수업 단위 ·120시간의 최소이수시간 추가 개설 희망 시간수	6
영역별 교과목의 개설 희망 형태	·영역별 교과목의 개설 방식 ·영역별 교과목의 기본이수 교과목 지정의 필요 여부 ·영역별 교과목의 기본 이수 희망 과목	3
수료 평가 인식	·희망 평가 형식 ·수료평가 희망 항목 ·수료평가 기회 제공 횟수	3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도입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 과정에 관한 의견	2
총 문항		27

2.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결과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0.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에 제시된 전반적인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와 퍼센트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변인별 결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다응답 문항의 경우에는 다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적인 다응답 빈도와 필요에 따라 순위를 제시하였다.

넷째, 개방형 질문에 관한 결과는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별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항목별로 대답을 표현한 그대로 제시하고 주제에 따른 빈도를 제시하였다.

2.5. 설문조사 결과

2.5.1. 대상자의 수어 통역 및 수어 강의 관련 정보

〈표 II-2〉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기간

구 분	빈 도	퍼센트
1년 미만	14	7.0
1년 이상	38	19.0
5년 이상	53	26.5
10년 이상	54	27.0
자격증 없음	36	18.0
무응답	5	2.5
계	200	100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헛수로는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의 경우는 그 다음 높은 비율로 26.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1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현재 근무지

구 분	빈 도	퍼센트
중앙회 및 시·도 협회	36	18.0
각 지역수화통역센터	126	63.0
수화통역콜센터 및 기타기관	1	.5
대학 및 공공기관	2	1.0
프리랜서	13	6.5
기타	15	7.5
무응답	7	3.5
계	200	100.0

각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회 및 시·도의 농아인협회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이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수어통역 및 수어교육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농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4〉 수어 강사 경력

구 분	최소값(년)	최대값(년)	평균(년)	표준편차
수어 강사 경력	0	30	6.39	6.071

수어 강사 경력을 알아본 결과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부터 30년이 되는 사람까지 그 편차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평균적으로 6.39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수어 강의를 받은 기관

구 분	빈 도	순 위
수화통역센터	92	1
농아인 협회	81	2
기타	61	3
대학교	53	4
종교단체	52	5
수화전문교육원	15	6

수어 강의를 받은 기관은 수화통역센터가 가장 그 빈도수가 높았으며, 농아인협회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수화전문교육원이라고 답한 경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 수어교원자격 제도 및 양성과정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도

〈표 II-6〉 한국수어교원자격 취득방법 인지도

구 분	빈 도	퍼센트
아주 잘 알고 있다	19	9.5
알고 있다	68	34.0
잘 모른다	86	43.0
전혀 모른다	19	9.5
무응답	8	4.0
계	200	100

한국수어교원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2명 중 한 명은 한국수어교원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변인별 교원자격 취득방법 인지도 차이 검증 결과

구분			교원자격 취득 방법에 대한 인지도				전체	χ^2 , df, p
			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청각 구분	농인	빈도	15	42	29	7	93	$\chi^2=20.398$ df= 3 p=.000**
		%	16.1%	45.2%	31.2%	7.5%	100.0%	
	청인	빈도	4	26	57	12	99	
		%	4.0%	26.3%	57.6%	12.1%	100.0%	
전체		빈도	19	68	86	19	192	
		%	9.9%	35.4%	44.8%	9.9%	100.0%	

p<.05 *, p<.001**

한국수어교원자격 취득방법 인지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수어교원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농인은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61.3%인 반면, 청인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 고 응답한 비율이 69.7%로 나타남에 따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수어 관련 정보에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한국수어를 모어로 받아들이는 농인의 수어교원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청인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8〉 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아주 잘 알고 있다	13	6.5
알고 있다	69	34.5
잘 모른다	91	45.5
전혀 모른다	20	10.0
무응답	7	3.5
계	200	100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 변인별 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구분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				전체	χ^2 , df, p
			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청각 구분	농인	빈도	12	38	37	7	94	$\chi^2=14.874$ df= 3 p=.002*
		%	12.8%	40.4%	39.4%	7.4%	100.0%	
	청인	빈도	1	31	54	13	99	
		%	1.0%	31.3%	54.5%	13.1%	100.0%	
전체		빈도	13	69	91	20	193	
		%	6.7%	35.8%	47.2%	10.4%	100.0%	

p<.05 *, p<.001**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해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농인은 53.2%이며 청인은 32.3%로 나타났다. 농인의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청인에 비해 20.9% 높은 비율로 나타남에 따라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농인과 청인에게 다르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3.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표 II-10〉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구분	빈도	퍼센트
아주 많다	33	16.5
많다	122	61.0
관심 없다	20	10.0
전혀 없다	13	6.5
무응답	12	6.0
계	200	100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입학 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 관심이 많거나 아주 많은 경우가 전체 77.5%를 차지하였다.

〈표 II-11〉 변인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구분			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전체	χ^2 , df, p
			아주 많다	많다	관심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청각 구분	농인	빈도	17	55	10	9	1	92	$\chi^2=4.00$ 4 df= 4 p=.405
		%	18.5%	59.8%	10.9%	9.8%	1.1%	100.0%	
	청인	빈도	16	67	10	4	0	97	
		%	16.5%	69.1%	10.3%	4.1%	.0%	100.0%	
전체		빈도	33	122	20	13	1	189	
		%	17.5%	64.6%	10.6%	6.9%	.5%	100.0%	
통역 사 자격 유무	유	빈도	31	103	14	6	0	154	$\chi^2=17.5$ 09 df= 3 p=.001*
		%	20.1%	66.9%	9.1%	3.9%	.0%	100.0%	
	무	빈도	2	19	6	7	1	35	
		%	5.7%	54.3%	17.1%	20.0%	2.9%	100.0%	
전체		빈도	33	122	20	13	1	189	
		%	17.5%	64.6%	10.6%	6.9%	.5%	100.0%	

p<.05 *, p<.001**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입학의사의 변인별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입학의사가 있거나 아주 많은 것을 보이는 농인과 청인이 각각 78.3%와 85.6%로 매우 높은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역사 자격 유무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를 확인한 결과 국가 공인 수화통역사나 청각장애인 통역사와 같은 통역사 자격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집단이 미소지자 집단보다 인지도에서 약간 높은 결과를 보이며 통역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입학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결과를 보면 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입학의사가 전혀 없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전체 중 3.9%에 그쳤으나 통역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20%로 다소 높은 결과가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개설 희망 횟수

구 분	빈 도	퍼센트
1년에 1회	14	7.0
1년에 2회	53	26.5
1년에 3회	20	10.0
1년에 4회	68	34.0
수시로	41	20.5
무응답	4	2.0
계	200	100.0

수어 양성 과정에 대한 개설 희망 횟수는 1년에 4회가 가장 많았으며,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수어교원양성과정 연수시간 분배 희망 구분

구 분	빈 도	퍼센트
120시간 1번	25	12.5
60시간씩 2번	44	22.0
40시간씩 3번	29	14.5
30시간씩 4번	98	49.0
무응답	4	2.0
계	200	100

수어교원이 되기 위한 수어교원양성과정은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120시간의 연수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응답은 120시간을 4회로 나누어 30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분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120시간을 한번에 이수하고 싶다는 의견은 12.5%에 그쳤다.

〈표 II-14〉 개설 희망 시간대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중 낮 시간(주간)	26	13.0
주중 밤 시간(야간)	52	26.0
모두 좋다	54	27.0
주말	60	30.0
무응답	8	4.0
계	200	100

수어교원양성과정 개설 희망 시간대는 시간대를 개의치 않는 모두 좋다는 응답자 27%를 제외하면 주중 낮 시간 희망자(13%)보다는 주중 야간과 주말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각각 26%와 30%로, 주중 야간과 주말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 하루 희망 수업시간

구 분	빈 도	퍼센트
2시간	75	37.5
3시간	46	23.0
4시간	33	16.5
5시간	23	11.5
기타	19	9.5
무응답	4	2.0
계	200	100

하루에 원하는 수업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8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개설 희망 추가 이수시간

구 분	빈 도	퍼센트
6시간(5%)	82	41.0
12시간(10%)	73	36.5
18시간(15%)	6	3.0
24시간(20%)	32	16.0
기타	4	2.0
무응답	3	1.5
계	200	100

수강생들이 120시간의 최소이수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수어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설해야 될 추가 시간수를 알아본 결과이다. 120시간만 수업을 개설할 경우 사정에 의해 1시간만 결석을 해도 수어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할 수 없게 되므로 여유분의 시간을 더 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유분의 희망시간을 알아본 결과를 의미한다. 이에 6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추가 시간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희망하는 1시간 수업 분량

구 분	빈 도	퍼센트
40분	26	13.0
45분	37	18.5
50분	128	64.0
55분	4	2.0
기타	3	1.5
무응답	2	1.0
계	200	100

수어교육을 위한 수업 시간에서 1시간을 50분 단위의 수업으로 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전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4. 수어교육 양성과정 교과목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첫째, 설문지에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고 교과목 개설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18〉과 같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11과목)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표 II-18〉 교과목 개설 방법

구 분	빈 도	퍼센트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44	22.0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양성기관이 선택해서 몇 과목만 개설한다.	41	20.5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50	25.0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개설한다.	63	31.5
무응답	2	1.0
계	200	100

특별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개설한다.’라는 항목이 63명(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기본이수과목 개설 필요 유무

구 분	빈 도	퍼센트
필요하다	182	91.0
필요 없다	12	6.0
무응답	6	3.0
계	200	100

둘째, 기본 이수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1%로 영역별 주요 교과를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해주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셋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각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으로 원하는 바를 다음의 〈표 II-20〉과 같이 예시를 제시하고 알아보았다.

〈표 II-20〉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 예시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 습득론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그 결과를 각각 제시하여 보면 <표 II-21>부터 <표 II-25>와 같다.

<표 II-21> 한국수어학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한국수화언어	91	1
한국수어의 어원	71	2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68	3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63	4
한국수어문법론	46	5
한국수어와 한국어	43	6
한국수어어휘론	34	7
한국수어분석	24	8
한국수어의 오류	17	9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13	10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7	11

첫 번째, 한국수어학 분야에서는 한국수화언어(91명)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한국수어의 기원(71명)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2> 한국수어교육론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한국수어교육학	119	1
한국수어지도	63	2
한국수어문법론	51	3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9	4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42	5
한국수어어휘교육론	32	6
한국수어교재연구	30	7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28	8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22	9
한국수어디지털교육	13	10
한국수어평가론	11	11

두 번째, 한국수어교육론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수어교육학(119명) 교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수어지도(63명) 교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한국수어실제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한국수어회화	124	1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69	2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54	3

세 번째, 한국수어실제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수어회화(124명)가 1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초급 및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교과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농 문화와 농사회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농사회의 이해	117	1
농인의 심리와 문화	114	2
농교육의 역사	39	3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33	4
농문학	27	5
농정책론	24	6

네 번째, 농 문화와 농사회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농사회의 이해(117명) 교과와 농인의 심리와 문화(114명)가 거의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25〉 한국수어교육실습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한국수어교육 실습	127	1
한국수어교육 참관	79	2

다섯 번째, 한국수어교육실습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수어교육실습(127명) 교과가 참관(79명) 교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 수료평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표 II-26〉 수료평가 형식에 대한 선호도

구 분	빈 도	퍼센트
필기시험	57	28.5

수업시연	82	41.0
면접	42	21.0
기타	8	4.0
무응답	11	5.5
계	200	100

수료 평가에 대한 형식에 대한 선호를 알아본 결과, 수업시연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 경우가 4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필기시험(28.5%)과 면접(2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7〉 변인별 수료평가 형식에 대한 선호도

구분		수료평가방법				전체	χ^2 , df, p
		필기시험	수업시연	면접	기타		
청각 상태	농인	32	37	22	3	94	$\chi^2=2.230$ df = 3 p=.526
		34.0%	39.4%	23.4%	3.2%	100.0%	
	청인	25	45	20	5	95	
		26.3%	47.4%	21.1%	5.3%	100.0%	
전체		57	81	42	8	188	
		30.2%	43.4%	22.2%	4.2%	100.0%	

수료평가 형식에 대한 선호도의 변인별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농인과 청인 모두 수업시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8〉 수료평가 내용에 대한 선호도 (다응답)

구분	빈도	순위
수어수행능력	155	1
수어지도법	146	2
수어언어학	67	3
상식	44	4
기타	2	5

수료 평가 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다응답 문항으로 하여 알아본 결과, 수어수행능력(155)이 가장 높았으며, 수어지도법(146)도 1위인 수어수행능력과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어교원이니만큼 수료평가에는

수어수행능력과 수어지도법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수어교원은 기본적으로 수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교원이기 때문에 수어지도법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29〉 수료평가 기회에 대한 선호

구 분	빈 도	퍼센트
1회	11	5.5
2회	57	28.5
3회	100	50.0
4회	27	13.5
무응답	5	2.5
계	200	100

합격이 될 때까지의 수료 평가의 기회에 대해 3회 정도의 기회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0%에 이르러 3회 정도의 기회 부여에 대한 요구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6. 수어교원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제안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관련	• 1~3급 구분이 필요함: 1급-고급반이상 2급-중급반 3급-초급반
	• 기존 수어교육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유사전공자를 배려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존의 강사 경력을 인정하여 반영되기를 제안함.
	• 농 통역사도 국가공인으로 인정이 필요함.
	• 지금까지 강의를 했던 경험자들에 대한 경력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양성 교육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망함.
	• 기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수어교육을 실시한 자에 한하여 재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통하여 교육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망함.
양성과정 운영방법 관련	• 교원에 따른 자격 요건, 전문 인력으로 만 업무 범위를 제한하기보다는 올바른 교육적 방법이나 방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각 교과목 문제집이 아닌 종합문제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이나 자격제도로 정착되기 바람.
	• 교육 희망 대상자를 농인과 청인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격을 위해 필수 양성 교육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계획과 수행 방법이 나타나기를 바람. • 연구 및 슈퍼비전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인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 제공이 필요함.
교원 자격 취득 기관에 대한 접근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에 다녀야만 한국수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았으면 함. • 지방에서도 교육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방안이 필요함. • 한국수어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지방에 살고 있는 통역사들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기를 바람.
수어교사 양성과정 교과목 및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은 전체 개설, 필수 과목 이외 선택과목 개설의 형태로 다양화 되기 바람. • 교수방법과 지원방법 등 교육 교재를 범용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바람. 이와 관련되는 연수 프로그램 마련 및 농과 관련되는 모든 것(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총망라할 수 있는 시각적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활용되었으면 좋겠음. • 교육과정은 수어 중심이므로 농 문화 및 얼굴표정에 익숙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수준 높은 커리큘럼 제공을 원함.
수어 교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식을 참고하기 바람. • 수어의 대화 방식을 통일하여 지도하기 바람. • 한국어의 이해와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양성교육 강의 시 수어통역 없이 강사가 직접 수어하는 방식의 강의를 원함. • 현재 현역에서 수어교육을 하시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연구하기를 바람.
수어교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직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지, 수어교원 확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람. • 자격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수어교원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됨. • 농학교 졸업자의 수어 사용 기간을 인정해 주길 바람. • 시험 출제자가 1년 중에 한 번 한국수어 교육원에서 강의해 주었으면 함. • 초, 중, 고등학교에 수화언어 교육이 필요함. • 현 시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수어 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음.

2.6. 농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

2.6.1. 협의회 구성

번호	이름	소속	비고
1	김 정 환	서울농아인협회 중랑구지회	농당사자, 지회장
2	이 재 연	서울농학교	농당사자, 교사
3	이 미 혜	서울수화전문교육원	농인 가족
4	곽 정 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생존학 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학술박사 ※ 저서: 일본수화와 농교육: 일본어능력주의를 넘어서
5	송 영 준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팀장
6	원 성 옥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7	허 일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8	김 경 진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9	강 창 욱	강남대학교	청각장애전공 교수

2.6.2. 협의회 결과

[총론]

○ 목표

- 목표로 설정된 내용은 교과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예) ‘인성과 윤리의식’ : 새로운 교과목 개발 혹은 교육론(예. 한국수어교육학) 내 단원으로 포함.

○ 편제와 시간 배당

- 기초조사 결과에 의한 교과목 중 수어어원과 한국수어문법론 배제.
- ‘한국수어의 어원’은 김칠관 선생님과 한국농아인협회의 결과가 전부이기 때문에 교과목으로 채택될 때 근거 기반에 한계가 있음.
- ‘한국수어문법론’은 언어 개론인 ‘한국수어언어’와 ‘수어어휘론’ 등의 각론과 차별성이 없으며, 한국수어연구 결과물의 한계로 개론 수준에 머물 것이며, 이로 인해 단기간 내 교재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됨.

- 교원 양성과정의 배정 시간 상 심도 있는 접근의 한계 문제 숙고.
예)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내용은 방대하나 배정시간은 15시간에 불과함.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편제 색인 “④ 한국수어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삭제함.
- 실습영역의 경우 참관과 실습 2과목 모두를 기본이수과목(*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음. 편성 운영 원칙 논의내용 참고하기 바람.

[각론 예시과목 및 내용]

- 필수이수시간 35시간의 경우 2과목, 나머지는 1과목씩 각론 예시과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각론 내용은 교과목 성격 및 목표, 구성내용, 학습평가 등으로 구성함.
- 강사 입장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학습 중요도가 낮을 것을 예상하여 현재 개발된 교육과정 개발은 수어교육론 중 하나의 과목에 하위 챕터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설문조사 내용 및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한국수어 어원 및 한국수어 문법론은 배제한,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회화, 농사회의 이해’로 개발하며, 한국수어학 영역의 한국수화언어와 한국수어어휘론 중 하나만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임.

2.6.3. 공청회 결과

[총론]

- ‘3.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기초 이수 교과목을 선정한 근거가 다소 불명료해 보임. 예를 들면, 한국수어 내용학의 한국수어학에서 기초 이수 교과목은 한국수화언어와 한국수어의 어원을 선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수어 어원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수어의 어원을

기초 이수 교과목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이 기초 이수 과목으로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비수지신호나 어휘론, 문법론, 수어분석 등은 한국수화언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함.

- ‘3. 편제와 시간 배당’의 교과목명과 필수 이수시간은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이지만, 교과목의 명칭이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음. 과목명이 애매한 경우는 한국수어학 영역의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정도로 보임. 토론자는 ‘한국수화언어’는 ‘수어학’으로 ‘한국수어의 오류’는 ‘한국수어 오류 분석’ 또는 ‘한국수어 평가’로,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은 ‘한국수어 언어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3.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한국수어 교육실습’ 영역의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면, 두 과목에 모두 *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총론 ‘6. 평가’에서 평가는 형성평가와 수료종합평가로 구성한다고 제시하였고, 수어교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제시된 수어교원 평정 척도는 교육과정 개선과 수업 관리 능력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수어를 이해하고 수어를 교수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추가해야 함.
- 수어교원은 수어교수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수어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어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과 한국에서 개발된 수어능력 평가 도구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할 만한 미국의 평가 도구는 ‘미국수어 유창성 면접(ASLPI: American Sign Language Proficiency Interview)’,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Praxis-Assessment of Signed Communication: American Sign Language, 교육통역 수행 사정(EIPA: Educational Interpreter Performance Assessment) 등이 있음. 우리나라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교사용 한국수어 능력 평가·인증척도(국립특수교육원, 2015)가 있으니 참고가 가능함.

[각론]

- 각론의 영역과 하위역량을 제시한 표의 [개요], [특징], [역량]은 이해하기 쉽게 잘 기술되었음. 다만 표 제목을 제시해 주기 바람.
- 한국수화언어 교과목의 ‘4.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내용 요소’를 보면 내용의 위계가 맞지 않음. 따라서 한국수어의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내용 요소를 설정하고, ‘수어의 단어 어형’, ‘수어의 어휘 수’, ‘수어단어의 형성 과정’, ‘한국수어 문법’, ‘수어 활용’은 해당 언어학 영역에 포함해 주기 바람.
- 한국수어교육학 교과목의 ‘4.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내용 요소’도 위계성이 맞도록, 그리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제시되어야 함. 예를 들면, 모든 내용에 포함되는 ‘한국수어교육학 이해’는 삭제하고, 다른 내용과 위계가 맞지 않는 ‘한국수어교육학 목표 수립’은 ‘수어교육의 방법’ 등에 포함함.
- 각론에서 교과목의 하위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4.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는 순서상으로 내용 요소를 먼저 제시한 후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은 일대일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일대일 대응으로 기술하기 어렵다면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점선으로 서로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제시해 주기 바람.
- 각론에서 교과별로 성격, 목표, 교육 내용 구성,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제시하여 교육과정의 틀에 맞추어 진술되었으나, 교육 내용 구성,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교수요목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각론에 제시된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추가 진술이 필요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개설이 한층 용이해진 연구결과를 환영함. 2009년부터 16개 강좌의 자체 강사양성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강원도수어문화원은 최근 총 23개 과목을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음. 이는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6개 영역으로 나누고 한 영역 당 4과목에서 12과목까지 제시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고민 끝에 내린 결

론이었음. 법령에서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을 보면,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대학이 아닌 민간단체(농아인협회)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임. 그런데, 한 영역당 1~2개 과목만 개설해도 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보다 많은 지역의 농아인협회가 양성과정 개설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연구결과를 환영함.

- 한국수어교원의 수어능력(언어)검증 절차가 필요함. 강원도수어문화원은 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입학 조건으로 수어능력 기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농인 교수인력의 강의에 음성통역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중급 이상의 수어(언어)능력을 갖추어야 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수어(언어)능력 검증 없이 양성과정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한다면 수어교원 자격시험 내에 수어(언어)능력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점 제기. 교육과정 개발 기초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는 대체로 무난한 편이나 조사 대상자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음. 수화통역사(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증 유무 조사 및 자격 유무에 따른 교원자격 취득방법,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와 입학 의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잘못된 방법임. 한국수어교원은 수화통역사 자격 유무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해 가는 데 그릇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설문조사 대상 선정방법부터 평가방법까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문항을 잘 설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자격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과목이나 이수시간, 수료평가 등에 관한 것뿐이며, 양성과정에 입학할 자격 조건이나 입학시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주요 골자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 등으로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 자라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기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입학 자격이나 조건 등이 없어도 됨. 그러나 한국수어교원은 학생에게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입학을 위해 입학 자격시험 등을 거쳐서 한국수어사용 능력을 갖춘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한국어와 관련하여 음성언어나 글쓰기 등으로 교육하면서 이론 및 문법 등의 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하되 수어를 가르치는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함. 따라서 얼굴표정, 감정, 다양한 손동작 등을 직접 가르쳐야만 유능한 강사가 되어 수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유창한 수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학시험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존 수어교실 강사 경력 유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자격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과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무난한 편이지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우려됨.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비수지기호를 포함하여 구사하는 것으로 가르칠 때 살아있는 한국수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론보다 실기 과목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가르치는 방법, 즉 실기 과목을 통해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체적인 이수과목이나 시간이 재조정되어야 함. 단계별(초급/중급/고급)이나 대상별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해야 되고, 이론교육과정 계획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함.

[공청회 토론 의견에 대한 연구진 입장]

-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변경 필요 -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함.
-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순서 바꿈 - 성취 기준이 하위 목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교육내용, 성취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기를 요청 -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양성과정의 성격상 영역별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한정된 시수에서 많은 내용을 담을 경우 본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작성된 기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양성과정 자체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음.
- 양성과정 입학조건에 관심이 큼 - 이것은 교육과정에 담을 문제가 아니라 교원양성과정 규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수어교원의 수어수행능력 보장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이것은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첫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규정과 같은 곳에 입학자격 요건으로 수어 능숙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둘째, 수료평가 시 수어수행능력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법. 현재 한국수어교원의 처우 등에 대한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규정의 성격으로 수료평가에 넣을 경우 양성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화통역사 자격과 한국수어교원은 무관한 사항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잘못되었음 - 일리가 있으나, 연구진에서 예비조사(pilot study)를 했을 때 한국수어교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대상자는 설문에 응답을 하지 못하였음. 본 설문의 성격상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평소 수어 관련 활동을 하는 인력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었음.
- 실기 중심의 과목 운영을 위해 이수과목이나 시수를 재조정해야 함 - 의견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시되는 편제표 상의 시간 수는 최소이수시간이므로 양성기관에서 시간수를 늘여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3.1. 교육 목적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에 기초하여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에게 한국수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소지하고 수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와 관련된 교무 등 수어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3.2. 교육 목표

첫째, 다양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건전한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셋째,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 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3.3 편제와 시간 배당

구분	영역	필수 이수시간	교과목
한국 수어 교육학	한국수어 교육론	35시간	*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한국수어 실제	25시간	* 한국수어회화,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 수어 내용학	한국수어학	15시간	*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농문화와 농사회	15시간	* 농사회의 이해,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교육 실습	한국수어 교육실습	30시간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합계	120시간	

- ① ‘언어 및 교육 기초’ 영역을 제외한 다섯 영역으로 구성한다.
- ② 1시간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표시 교과목은 해당 영역의 기초 이수 교과목이다.
- ④ 각 영역별 이수 시간은 최소 수업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3.4. 교수 · 학습

- 1) 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하도록 교수 · 학습 활동을 한국수어로 한다. 단,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교수자의 강의인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한국수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 2) 교과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농인이 익숙한 농사회와 농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를 많이 들어 설명한다.
- 3) 교과 학습은 단편적 지식 중심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4) 교과 지도는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지도하되 교과의 성격에 따라 실기 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 5) 학습자의 수어능력, 수어교육경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 ·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 6) 한국수어교육을 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역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7)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수강생 자율 학습동아리를 구성한다.
- 8)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한다.

<표 II -30> 교수학습 유형 및 방법

교수학습 유형	실용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직접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자 중심의 설명과 시범을 중심으로 학습과제를 수행 구조화된 지식을 제공하여 수업을 진행
토의/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어교육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 원탁 토의, 배심 토의, 공개 토의, 세미나, 버즈 토의, 피라미드 토의 등으로 전개

탐구/발견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스스로 한국수어 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결론을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독립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전개
협동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단 형태로 학습하는 구조화된 수업방식 운영 • 소집단 구성 후 소집단 내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과제 수행
협력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가 팀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
프로그램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초점을 학생 개인에게 두고, 가급적 모든 학생이 교수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 학습속도, 학습요구 등을 고려한 교수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택, 평가 등을 변별적으로 실천
프로젝트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개인이나 소집단, 또는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독립된 연구를 하고 보고하는 수업활동

3.5. 평가

- 1) 평가는 형성평가, 수료종합평가로 구성한다.
- 2) 양성과정은 학생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3) 양성과정은 학생의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수업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한다.
- 4) 양성과정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 5) 평가는 학생이 배운 범위 내에서만 실시한다.
- 6) 학습의 결과와 함께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

4.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 개발 원칙

첫째, 각론 시안 체계는 영역별 교과목을 중심으로 구안하며, 다음의 체계로 구성한다.

<p>[영역]</p> <p>교과목 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의 성격 2. 교과 목표 3.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

둘째, 영역별 교과목 개발은 영역별 기본 이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을 중심으로 직무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다.

셋째, 교과 내용 기술은 주제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기술한다.

< 영역별 하위 역량 >

대영역	영역 [교과목]	하위역량
<p>한국수어 교육학</p>	<p>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언어교육 방법 및 이론을 토대로 적절한 수어 교육 방법론과 문법, 교재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수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과목으로 언어교육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을 토대로 수어 언어 교육을 위한 기초 지식 및 기술을 익힌다. <p>【역량】</p>

한국수어 내용학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탈교육, 한국수어의매체활용, 수어연구와실제, 한국수어교원의직업과 윤리, 농성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교육 이론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수어 교육을 위한 수어교육 기초 지식이 있다. • 한국수어에 관련한 교육과정 교재연구,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수어실제 [한국수어 회화] 초급 수어의 실제, 중급 수어의 실제, 고급 수어의 실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수어구사능력과 회화능력을 향상시킨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회화와 초, 중, 고급 수어를 구사할 능력을 기른다. • 농인과 대화하는 데 필요한 한국수어 지식과 메타언어 지식을 소개하고, 적절한 수준의 한국수어 회화능력을 기른다.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과 의사소통 목적에 맞는 어휘와 문장으로 수어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 주제에 맞게 수어로 대답할 수 있다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한국어, 한국수어의어원, 한국수어의관용적표현, 한국수어의오류, 한국수어의비수지기호, 수어와언어철학, 구어와수어의본질, 한국수어의제2언어습득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이해를 위하여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등의 한국수어언어학 이론을 이해한다.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수어의언어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한국수어를 분석할 수 있다.
	농문화와 농사회 [농사회의 이해]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수어·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 정책론, 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농 문화의 문해 전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고, 한국사회에서 농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농인의 심리와 농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한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에서의 농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농인의 심리와 그들의 사회, 문화의 사례분석을

		<p>통해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와 문화를 이해한다.</p> <p>【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심리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농 문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농 문화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농인공동체 조사를 통해 각국의 농인공동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 청인사회에서 농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다.
한국수어 교육실습	<p>한국수어 교육실습</p> <p>[한국수어 교육 참관]</p> <p>[한국수어 교육 실습]</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육현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수어교원으로서의 가치와 윤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능력을 학습한다. 또한 학습자 및 교수내용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교수계획 수립에 대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다.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수어교수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p>【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원의 가치, 윤리강령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자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교수법을 선정할 수 있다. • 교수학습 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계획안을 작성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4.2.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 개발 구성 내용

영역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1. 교과 성격

한국수화언어 과목은 수어의 내용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이 과목을 통하여 언어의 본질과 구성요소 및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수어의 특성과 언어적 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한국수어에 대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한국수어를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화한다.

2. 교과 목표

교육현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수화언어의 특성과 수어체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가 있다.

- 1) 한국수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수어의 발생 원리와 변화 과정,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 2) 한국수화언어학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 3)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인 수어가 가지는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 4) 한국수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어를 통한 시각적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른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수어와 언어

수어의 언어적 보편성과 수어만이 가진 비음성적 시각-운동 언어 체계 특성을 알고, 수어지도의 지식 기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내용을 설정하였다. 수어가 가진 언어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습득에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1-02. 수어의 언어적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성01-03. 시각-운동 언어로서의 수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요소】
학01-01. 언어의 본질(체제, 행위, 문화)과 기능(의사소통, 사고, 예술) 알기
학01-01. 수어가 가진 언어적 보편성 설명하기
학01-01. 시각-운동 언어인 수어의 특성 설명하기

2) 수어 음운론

수어 음운론을 이해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 음운론을 학습하고 이론에 따라 각 요소별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성취 기준】
성02-01. 음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2-02. 수어를 구성하는 수어소의 개념과 쓰임을 설명할 수 있다.
성02-03. 수어소의 음운 배열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2-01. 음성-음소-음절 간의 차이점과 관계 알기
학02-02. 수어소(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기호) 및 수어의 최소 대립쌍의 쓰임 설명하기
학02-03. 수어소의 음운 배열(동시 배열, 움직임-정지(M-H) 분절) 특성 설명하기

3) 수어 형태론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와 이 단위들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결합하였는지에 대한 형태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 형태론의 이론에 따라 각 요소별로 분석할 수 있는 지도 능력과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3-01.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2. 수어의 단어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3. 수어 단어의 형성 과정과 어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4. 단어의 파생과 굴절을 알고 수어의 파생과 굴절을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3-01. 형태소의 개념, 이형태, 형태소의 종류 알기
학03-02. 수어의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단일 수어 단어와 복합구조의 단일 수어 단어의 구조, 수어 합성어, 지문자 합성 수어 단어, 지숫자 합성 수어 단어 알기
학03-03. 수어의 조어 특성,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단어 형성법 알기
학03-04. 파생과 굴절 알기, 수어에서의 파생 분석하기, 수어에서의 굴절 분석하기

4) 수어 통사론

수어에서 공통된 문법적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놓은 단어의 갈래인 품사와 수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이론과 실기 중심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어로 문장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원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4-01. 문장의 구조와 개념을 이해한다.
성04-02. 한국수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4-03. 분류사 구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4-01. 문장의 어순과 계층 구조 알기, 문장 성분 알기, 문장 성분과 문법 관계 파악하기
학04-02. 의문문 표현 특성 알기, 부정문의 다양한 형태 익히기, 시제 표현 익히기, 화제화 문장 익히기
학04-03. 분류사의 개념 알기, 분류사의 종류 알기, 한국수어 분류사 구문 익히기

5) 수어 의미론 및 화용론

단어와 문장, 그리고 이야기를 통한 언어표현이 가진 지시적 관점과 표상적 관점, 의미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수어 의미론에 기초하여 각 요소별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5-01. 언어에서의 의미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5-02. 한국수어 어휘 수준에서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성05-03. 한국수어 문장 및 맥락 수준에서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성05-04. 언어의 화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5-01. 의미의 개념 알기, 의미적 직관에 대해 알기, 의미와 사전적 정의 알기
학05-02. 수어의 상하 관계 알기, 수어의 유의 관계 알기, 수어의 반의 관계 알기
학05-03. 조합성의 원리에 의한 수어 문장 의미 알기, 맥락에 따른 수어 문장의 의미 이

해하기,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알기 학05-04. 맥락과 의미 관계 알기, 직시의 개념 알기, 지시사 및 지시관형사 알기, 대화 맥락에서의 전제 알기, 화행의 개념 알기, 수어에서의 화행 익히기
--

4. 교수-학습 방법

- 1) 한국수어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한국수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2) 한국수어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에 대한 교수자의 체계적인 설명과 시범 및 질문, 그리고 학습자의 독자적인 연습 및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한다.
- 3) 문법을 지도할 때 용어의 개념을 지도하기보다 여러 가지 예시 자료를 활용해 지도한다.
- 4)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킨다.
- 5) 한국수어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6) 농인에게는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하고자 하는 요소와 기능을 수어로 설명해주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다.
- 7)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5. 평가

- 1) 한국수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수어의 발생 원리와 변화 과정, 사용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2) 한국수어학의 기본개념과 용어를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 3) 음성 언어와 시각언어인 수화언어가 가지는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 4) 한국수어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 5) 한국수어교원으로서 한국수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6) 한국수어 음운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7) 한국수어 의미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8) 한국수어 형태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9) 한국수어 통사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영역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1. 교과목 성격

한국수어교육학은 일반적인 언어교육 방법 및 이론을 익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한국수어교육 방법론을 모색하여 한국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 지식과 능력을 기르는 교과이다. 한국수어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알고 수어교육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을 토대로 한국수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2. 교과 목표

한국수어교육학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수어교육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역량을 기른다.

- 1) 수어 발달과 학습에 관한 주요 이론을 설명한다.
- 2)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어 수업을 설계한다.
- 3) 수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 4) 학습자의 수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수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어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익혀 한국수어교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기초로 수어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성01-02. 교육의 구성요소(교사, 학습자, 교육내용)와 학습 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성01-03. 수어교육의 역사를 이해하고, 시대별 중점 교육내용과 방법을 설명한다.
성01-04. 수어교육과 음성언어(문자언어)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성01-05. 수어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인과 수어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요소】
학01-01. 교육의 의미와 교육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 알기

학01-02. 교육의 구성요소(교사, 학습자, 교육내용)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학01-03. 시대별 수어교육의 지도원리, 교육 내용과 방법 설명하기
학01-04. 수어교육과 음성(문자)언어교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하기
학01-05. 농인과 수어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 갖기

2) 수어교육 심리 및 교육공학

한국수어교원으로서 수어교육 심리, 교수설계와 교육공학 지식을 기초로 수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습득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교육의 심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2-01. 수어학습 심리와 동기에 대해 설명한다.
성02-02. 수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도출하고 선정한다.
성02-03. 수어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이해한다.
성02-04. 수어교육 목표와 수어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성02-05. 수어교수 목표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수업 교재와 교육 매체를 선정한다.
【학습요소】
학02-01. 수어 학습심리와 학습동기 설명하기
학02-02. 수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 선정하기
학02-03. 수어교수학습 설계 모형 알기
학02-04. 적합한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 적용하기
학02-05. 적합한 수업 교재와 교육 매체 선정하기

3) 수어교육과정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육과정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학습자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수립 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3-01. 수어교육과정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성03-02. 언어발달과 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수어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특성을 이해한다.
성03-03. 수어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성03-04. 수어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성03-05. 수어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요소】
학03-01. 수어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른 개발 모형 알기
학03-02. 수어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특성 알기
학03-03. 수어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 분석하기
학03-04. 수어교육 평가 도구와 방법 선택하기
학03-05 수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는 태도 갖기

4) 교육행정과 평생교육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육행정과 평생교육을 이해하고 수어교육에서 필요한 행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행정 능력과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4-01. 수어교육행정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한다.
성04-02.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의 관리를 위한 수어교육 관련 정책, 인력, 예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성04-03. 평생교육으로서 수어교육의 의미와 체제를 설명한다.
【학습요소】
학04-01. 수어교육행정의 특성과 원리 알기
학04-02. 수어교육 관련 정책, 인력, 예산 알기
학04-02. 평생교육으로서의 수어교육의 의미와 체제 알기

4. 교수-학습 방법

- 1)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해 교육의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진행을 통해 교실 수업을 위한 실제적 지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 4) 지그소(Jigsaw) 협동수업과 같은 전문가 협동수업모형을 도입하여 주입식 직접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교육공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 6)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자 초청 특강을 기획한다.

5. 평가

- 1) 수어 발달과 학습에 관한 주요 이론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 2) 수어교육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3) 수어 학습자의 수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 4) 수어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자로서 필요한 지도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5) 수어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 6) 교육행정을 이해하고 행정적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7)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영역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지도

1. 교과 성격

한국수어 지도는 한국수어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며, 수업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수업 이론과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수어 지도에 필요한 수어교원으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2. 교과 목표

한국수어 지도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수어 수업 이론에 기초하여 수어 수업을 계획 및 실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

- 1) 한국수어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 2) 한국수어 수업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 3) 한국수어지도 교수·학습계획안을 작성하고 수행할 수 있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수업 이론과 모형

수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업 모형에 따라 수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수업의 구성 요소와 절차를 이해하고 수업 목표에 맞게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학습과 교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성01-02. 수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성01-03. 다양한 수업 모형을 이해하고, 수업 목표에 따라 적합한 수업 모형을 선정한다.
【학습요소】
학01-01. 학습과 교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학01-02. 수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
학01-03. 수업 목표에 따라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등의 적합한 수업 모형 선정하기

2) 한국수어 수업 계획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단계별 교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수어 수업 계획을 위한 교재의 분석, 수업 전개 방식, 교수매체의 선정과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2-01. 교수목표를 명확히 기술한다.
성02-02. 교수목표와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설계한다.
성02-03. 한국수어 교수법을 이해하고, 교수방법들을 비교·설명한다.
성02-04. 교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교수학습 활동을 수업 단계별로 선정하고 기술한다.
성02-05. 한국수어교육 계획안을 교수목표 및 학습자 특성, 교수 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작성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요소】
학01-01. 교수목표를 명확히 기술하기
학01-02. 교수목표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기
학01-03. 한국수어 교수법을 비교·설명하기
학01-04. 교수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 전개, 정리 및 평가의 수업 단계별로 필요한 주요 교수학습 활동을 선정하고 기술하기
학01-05. 한국수어교육 계획안을 교수목표 및 학습자 특성, 교수 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작성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3)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

수업 실행을 위한 교수-학습 계획안의 작성 원리와 내용에 기초해서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교수·학습 계획안에 관한 이론보다는 실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3-01. 교수-학습 계획안의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성03-02.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한다.
【학습요소】
성03-01. 교수-학습 계획안의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 알기
성03-02. 수업목표, 내용 구성과 전개, 수업 매체, 평가 도구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하기

4) 수업 관찰과 분석

수업 실행을 위하여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

고 설정하였다.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통하여 수업을 관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4-01. 수업 관찰과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성04-02. 수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성04-03. 양적 접근 및 질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학습요소】
학04-01. 수업 관찰과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알기
학04-02. 수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 알기
학04-03. 양적 접근 및 질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4. 교수-학습 방법

- 1) 한국수어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재를 접하게 함으로써 교재의 구성 원리와 종류를 알게 하고 교재 선택의 안목을 가지도록 한다.
- 2) 모의 수업을 통해 수어 지도 수업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한다.
- 3) 학습자 상호 간에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수업 능력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 일어나도록 한다.
- 4) 수어교원의 윤리를 이해하고 교원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도덕적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

5. 평가

- 1) 한국수어 지도를 위해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2) 수업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3) 수업목표에 적합한 교수 활동을 설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4) 한국수어 지도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의 합리성과 실천 가능성 정도를 평가한다.
- 5) 수업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교수 활동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영역 4) 한국수어 실제

한국수어회화

1. 교과목의 성격

한국수어교원의 기본적 자질인 한국수어회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수어 회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수어회화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2. 교과 목표

농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강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한국수어회화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

- 1) 한국수어 이해 및 표현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 2)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 3) 정치·경제, 사회·문화와 관련된 수어회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 4) 맥락에 맞게 수어회화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일상생활에서 농인과 능숙하게 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생활 속에서 수어로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회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수어회화의 기초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성01-02. 가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3. 직장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4. 건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5. 여가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6. 경제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4-01. 수어회화의 기초원리와 방법 알기
학04-01. 가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학04-02. 면접, 규범 등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학04-03. 의학, 스포츠 등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학04-04. 여행, 취미생활 등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학04-05. 저축, 소비 등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2) 정치와 경제 관련 수어회화하기

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대화 내용에 맞게 수어회화를 정확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2-01. 민주주의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2-02. 국회의 역할과 입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2-03. 정부제도와 역할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2-04. 선거와 관련된 회화를 수어로 할 수 있다.
성02-05. 시장 경제, 세금과 물가, 금융과 관련된 회화를 수어로 할 수 있다.
성02-06. 국제 경제와 관련된 회화를 수어로 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2-01.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의 정치이념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2. 국회 역할과 입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3.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부제도와 역할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4. 선거제도, 선거법 등의 선거에 대해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5. 화폐, 정부의 경제 활동, 여러 가지 금융기관, 주식과 보험수입 등에 대해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6. 나라 간의 무역, 환율, 시장 개방, 국제 기구 등의 국제 경제에 대해 수어로 회화하기

3) 사회와 문화 관련 수어회화하기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고 능숙하게 수어 회화를 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3-01. 우리나라 사회 질서와 규칙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2. 우리나라 예절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3. 우리나라 종교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4. 우리나라 예술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5.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3-01. 우리나라 사회 질서와 규칙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2. 우리나라 가정 예절, 직장 예절 등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3. 우리나라 종교의 특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4. 우리나라 예술의 종류, 특징 등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5.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특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4) 대화 맥락에 맞는 수어회화하기

대화 맥락에 맞는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상황에 맞게 수어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4-01. 대화의 주제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성04-02. 상황과 상대에 맞게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4-03. 대화 맥락에 맞게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4-04. 수어의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4-01. 대화의 주제와 맥락을 파악하기
학04-02. 대화 시의 상황과 상대에 맞게 수어 회화하기
학04-03. 대화 맥락에 맞게 수어 회화하기
학04-04. 수어의 관용 표현을 대화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4. 교수-학습 방법

- 1) 주제별로 일상생활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수어회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단계의 과제를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3) 비디오와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학습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농인들의 다양한 수어 표현 방식을 접하게 한다.
- 4) 게임, 퍼즐, 설문지, 인터넷을 활용한 과제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한다.
- 5) 역할극을 통해 맥락에 맞는 회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6) 한국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회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5. 평가

- 1) 농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한국수어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2) 대화 맥락과 의사소통 의도에 맞는 수어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3)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회화하는지의 능력을 평가한다.
- 4) 즉석 면담을 통하여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는 수어 회화 능력을 평가한다.
- 5) 조별 활동에서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어로만 회화가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영역 5)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 농사회의 이해

1. 교과 의 성격

농인의 사회적 환경은 청인과의 공유 문화와 농인만의 독자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농사회 이해 과목은 한국수어교원이 농인 가족의 구성적 특성, 농인의 문화와 예술, 농인 단체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농사회와 농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 목표

농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고 농사회와 관련된 법률 및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농인의 생활과 농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다.

- 1) 농인의 관점에서 농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농인 가족을 청인 가족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3) 한국 농사회의 발자취를 알고 주요 사건의 의미와 인물의 업적을 탐색한다.
- 4) 농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농사회와 농인 단체

농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농사회의 특성을 알고 농인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능력을 가지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농인과 농사회를 농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1-02. 한국 농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01-03. 한국 농인 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01-04. 국제 농인 기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1-01. 농인과 농사회를 농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학01-02. 일제 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농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학01-03. 농인 관련 법인기관, 전문 복지관 등 한국 농인 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기
학01-04. 세계농아연맹, 세계수어통역사협회,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등 국제 농인 기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기

2) 농인 가족의 이해

농인 가족 구성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농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농인 가족의 구성과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농인 가족을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2-01. 보편적 가족의 개념과 함께 농인 가족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02-02. 농인 가족의 구성적 특징과 의사소통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성02-03. 농인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2-01. 사회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족의 개념과 농인 가족의 특수성 알기
학02-02. 농인 가족의 구성적 특징과 의사소통 구조 설명하기
학02-03. 농인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가족 지원 방법 알기.

3) 한국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그리고 1980년 이후의 근대 농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농사회의 시대별 변화를 이해하고 농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3-01. 일제 강점기의 농사회에 대하여 이해한다.
성03-02. 광복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3. 1980년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3-01. 농교육 기관, 자조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한국 농사회에 대하여 알기
학03-02. 농교육 기관, 자조 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복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기
학03-03. 농교육 기관, 자조 단체 등을 중심으로 1980년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기

4) 농사회 법률 및 정책

농사회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한국수화언어법 등의 법률과 정책을 이해하고 농인을 합리적으로 지지하는 태도와 능력을 지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4-01. 보편적 인권과 농인의 인권에 대하여 이해한다.
성04-0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04-03.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와 의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성04-04. 각종 농인 관련 복지, 교육, 고용 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이해한다.
【학습요소】
성04-01. 보편적 인권과 농인의 인권에 대하여 알기
성04-0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기
성04-03.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기
성04-04.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각종 농인 관련 복지, 교육, 고용 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알기

5)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농인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농사회가 가진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농인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농사회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5-01. 농인의 문화·예술적 접근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성05-02. 농인의 표현 문화·예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5-03. 농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성05-01. 농인의 문화·예술적 접근성에 대하여 알기
성05-02. 시각·촉각 예술, 공연 예술, 문학, 미디어 예술 등 농인의 표현 문화·예술에 대하여 설명하기
성05-03. 축구, 야구 등 농인의 스포츠 활동과 농인 스포츠 관련 단체 및 행사에 대하여 설명하기

4. 교수-학습 방법

- 1) 농인을 수업에 초대하여 농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농사회를 접하게 한다.
- 2) 차트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와 농사회에 대한 청인의 관점과 농인의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 3) 토론을 통하여 한국 농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
- 4) 농인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농인 연장자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농인을 이해하도록 한다.
- 5) 농인의 예술·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농인이 향유하는 예술·문화 활동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한다.

5. 평가

- 1) 농인의 관점에서 농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2) 농인 사회의 특성을 청인 사회의 특성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한다.
- 3) 농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언어적 환경, 역사적 경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한다.
- 4) 한국 농사회의 발자취를 알고 주요 사건의 의미와 인물의 업적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 5) 발표와 조별 활동을 통하여 바르게 농사회를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6) 농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농사회를 이해하려는 의욕과 활동의 참여도를 평가한다.

Ⅲ. 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1. 교재 개발의 성격과 목표
2. 교재 개발 과정
3. 수어 동영상 제작
4. 향후 교재 개발 시 고려사항

III	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	---------------------

1. 교재 개발의 성격과 목표

1.1. 교재 개발의 성격

- 한국수어 교원 양성용 교재는 시범개발의 성격을 갖고 6개 영역 중 하나인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에서 ‘농사회의 이해’ 교과목의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를 15시간용 분량으로 개발한다.
- 여러 국가의 농인 공동체를 조사하여 농인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사회에서 농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주요 현황을 알고 향후 농사회가 새로운 변화에 따라 당면하게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본 교재를 통해 한국수어교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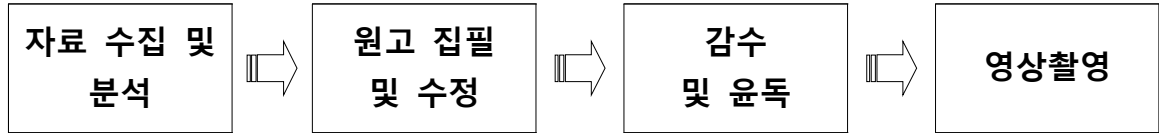
1.2. 교재 개발의 목표

- 현행 농사회 관련 도서를 분석한 후, 농사회의 역사와 변화, 관련 기관, 법률 및 정책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한다.
- 위계성과 통합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재를 개발한다.
- 농사회와 수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농사회 전반에 관해 교육할 수 있다.
- 농사회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학과 농인」 단원은 농인 교원 희망자를 위하여 영상으로 제공한다.

<표 Ⅲ-1> 단위별 세부 목표

단원	목표	비고
1장 장애학과 농인	평등한 기회와 사회 정의의 틀 안에서 농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2시간 (14-16매)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농사회의 개념을 인지하고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5시간 (10-12매)
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농인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며, 농인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모색할 수 있다.	1.5시간 (10-12매)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광복 이전의 한국 농사회의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다. 광복 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농사회 변천사를 알고, 농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시간 (21-24매)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및 농인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	2시간 (14-16매)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농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특성 및 활동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	2시간 (14-16매)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농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시간 (7-8매)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한국의 농사회가 농인 관련 세계기구 및 산하 기구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시간 (7-8매)
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농사회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1시간 (7-8매)

2. 교재 개발 과정



[그림 Ⅲ-1] 교재 개발 과정 흐름도

2.1.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회는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구성체로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시킨 집단(한민족문화대백과)을 의미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
- 사회의 특성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설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과 문화 간의 차이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 이에 농사회와 관련된 국내외 도서와 최신 경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농사회의 현안,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개념,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포괄하면서 한국수어교원이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재의 목차를 정하였다.
- 농인 공동체가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200여 년에 걸쳐 진화되어 왔으며 효과적인 생활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기술하며 농인 관련 행사와 농인 자조 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Thomas K.Holcomb, 2013), 농사회와 문화가 포함된 미국 농역사를 농인협회 설립 기점인 1880년대 전후로 구분하여 다루면서 농학교 설립, 농인의 스포츠 활동, 연극 활동, 1920년대 농인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 Deaf Hertage(Gannon. J. R. et al, 1981), 사진으로 보는 농역사 도서로서 1880년대 농인협회 설립

당시 장면, 저명한 농인과의 인터뷰 사진, 농학교 어린이의 학습 사진 등이 설명과 함께 수록된 Through Deaf Eyes(Douglas Baynton, Jack R. Gannon, Jean Lindquist Bergey, 2007) 등을 참고하여 한국수어 교원을 준비하는 농인과 청인 모두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였다.

- 이 밖에도 장애 수용과 농, 농자녀 교육을 위한 활동, 농인의 언어 선택과 관련한 경험, 농인의 결혼과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 농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자조 단체의 활동과 농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노라 엘렌 그로스, 1985, 박승희 역; 농아인과 사회, 1999; 장진석역, 2007; 김칠관·윤병천, 2014;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한국농아인협회, 2016; 서울농학교, 2013; 계기훈, 1999) 등을 참고하였다.

2.2. 단원별 저자

단원	배정 시간	예상분량	집필 담당자
집필총괄		전권	강창욱
1장 장애학과 농인	2시간	14-16매	곽정란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1.5시간	11-12매	황창호
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1.5시간	11-12매	김경진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3시간	21-24매	엄미숙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2시간	14-16매	이미혜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2시간	14-16매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1시간	7-8매	송미연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1시간	7-8매	
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1시간	7-8매	김병하

- 교재 목차 : [부록 3] 참조

2.3. 개발 단원 예시 : [부록 4] 참조

3. 수어 동영상 제작

3.1. 모델 및 수어 구연 검토자 선정

-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수어 구연자와 감수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였다.
-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교재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숙지, 그리고 적합한 수어 표현을 원활하게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인을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로 각각 섭외하였다.
- 수어 동영상 제작의 목표를 설명하고 교재를 제공한 후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 참여 의사 확인 후, 촬영 이전까지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번역과정에서 수어를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구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2. 수어 동영상 촬영 관련 제작 회의

- 한국어로 된 저작물을 수어로 된 영상으로 변환하는 번역은 두 언어 사이의 문법구조와 문화적 배경에 따른 어휘와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 또한 학문적인 내용의 원 저작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학문적인 용어들 중 기존에 수어로 어휘화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한 수어 어휘의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수어 동영상 교재가 얼마나 효용가치를 가지는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이에 집필자와 수어 구연자, 수어 구연 검토자, 연구진이 모여 제작 회의를 실시하였다.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가 교재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집필자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수어 구연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어휘에 대한 것은 수어 표현에 대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수어 동영상 제작 과정 및 화면의 구성, 이후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어 동영상 촬영 관련 제1차 사전 제작 회의 개최
 - 일시 : 2017. 12. 04(월) 12시
 - 장소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4 강의실
 - 참석자
 - 국립국어원: 이현화 주무관, 조주연 연구원
 - 집필자 :곽정란
 - 수어 구연자 : 변은정
 -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 연구진 : 엄미숙, 이미혜, 김선희
 - 주요내용
 - : 수어 동영상 촬영에 관한 주요 지침 마련
 - : 촬영에 관한 시나리오 논의

- 수어 동영상 촬영 관련 제2차 사전 제작 회의 개최
 - 일시 : 2017. 12. 15(금) 12시
 - 장소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4 강의실
 - 참석자
 - 집필자 : 곽정란
 - 수어 구연자 : 변은정
 -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 연구진 : 엄미숙, 이미혜, 송미연, 김선희

- 주요내용

: 수어 구연자가 촬영해 온 샘플 동영상을 보고 검토하면서 수어 구연 방식을 확정함.

○ 수어 동영상 촬영 리허설

- 일시 : 2017. 12. 18(월) 14시
- 장소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4 강의실
- 참석자
수어 구연자 : 변은정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연구진 : 김선희, 장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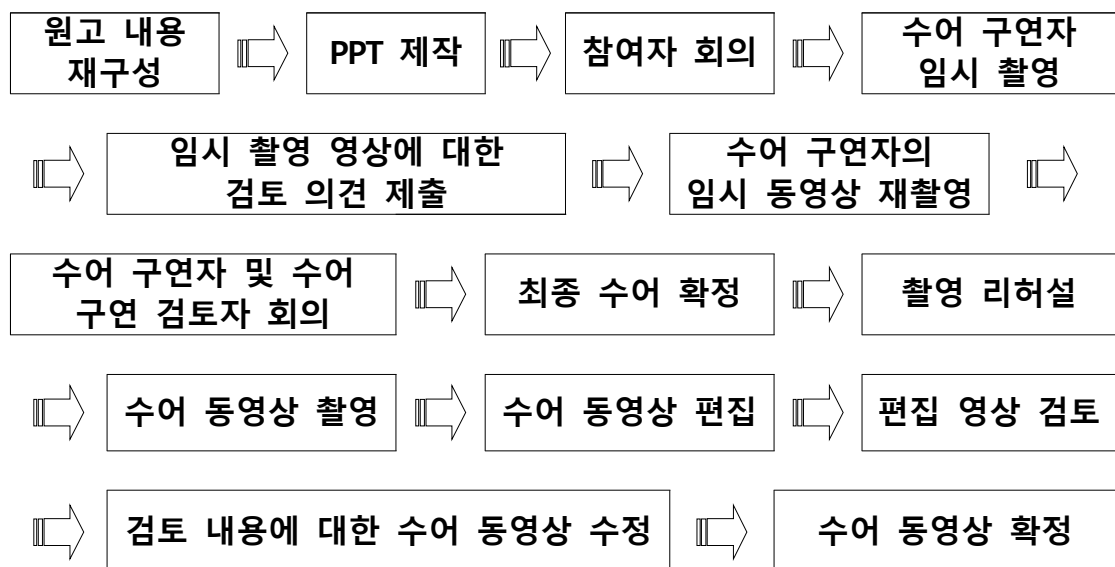
3.3. 수어 동영상 촬영 개요

- 일시 : 2017. 12. 20(수) ~ 21(목)
- 장소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스튜디오
- 참석자
 - 수어 구연자 : 변은정
 -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 촬영 : 천정우
 - 연구진 : 엄미숙, 이미혜, 김선희

3.4. 수어 동영상 촬영 주요 지침

- 수어 동영상 제작 결과물 자체가 농인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될 경우 또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 한국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농인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 대상자인 농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가 쉽고 구체적인 방식으

- 로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진, 그림 등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
- 수어 동영상 제작은 집필자, 수어 구연자, 수어 구연 검토자, 연출자로 촬영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 집필자는 강의 원고와 함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원고를 축약하여 재구성한 PPT 강의안을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에게 제공한다.
 -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가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촬영하도록 촬영 전에 집필자와 수어 구연자, 수어 구연 검토자는 강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 수어 동영상의 화면 구성은 수어 구연자의 뒤에 PPT 배경을 삽입하여 수어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촬영에 앞서 수어 구연자가 숙지한 내용을 촬영한 후, 2차 회의에서 수어 구연 검토자, 연구진과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수어 구연 방식을 확정된 후 다시 촬영한다.
 - 촬영 당일 요약된 내용과 확정된 수어 동영상을 동시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촬영한다.
 - 영상 제작물에 참여자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한다.



[그림 Ⅲ-2] 수어 동영상 제작 과정

4. 향후 교재 개발 시 고려사항

- 이번에 개발된 교과목은 「한국 농사회의 이해」로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어느 정도 집필이 가능한 교과목이었다. 그러나 연구사업의 과업이 3개로 나뉘어 있어 교재 집필에 모든 연구진이 참여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향후 연구사업은 모든 연구진이 교재집필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 과업만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일부 교과목의 경우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집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어려움의 대안으로 1차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안을 작성하여 교재의 전체 틀을 구성하고, 2차로 강의안을 기초로 교재 집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별도로 감수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집필자 상호간에 교차적으로 감수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향후 교재집필 과업에서는 전문가의 감수를 받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재 집필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학습자들은 교재로 한국수어의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수어교원과 관련된 쟁점(수업 현장에서 농 문화와 청인문화의 가교 역할, 수업 방법,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식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장의 구성은 전체 요약(질문 식 포함), 학습목표, 내용, 토의 순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교재 개발팀의 구성은 수어 동영상 제작까지 고려하여 교재 개발 시점부터 능이론 전문가, 수어 구연자(수어 동영상 촬영 모델), 시각디자이너가 함께 팀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교재를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 시 집필자와 수어 구연자, 그리고 개발팀이 함께 교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 수어 동영상 촬영은 문어적인 한국어 표현을 수어로 표현할 때 의미 중심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어 동영상 제작 준비 과정 및 촬영은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촬영 당일 시간 제한을 두게 될 경우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수어 동영상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IV.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1. 사업의 성격과 목표
2. 국내 수어교실 및 문화학교 실태
3. 기초 조사
4. 시범 프로그램 운영
5. 시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6. 결론 :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시사점
7.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IV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	---------------------------

1. 사업의 성격과 목표

1.1. 사업의 성격

- 본 사업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따라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보급과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농인이 자신의 모어로서 한국수어를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향유를 통해 농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 문화를 발전·전승하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2. 사업의 목표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을 수립한다.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기본 방향에 따른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 교육 영역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교육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교육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개발한다.
- 각 영역별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국내 수어교실 및 문화학교 실태

2.1. 수어교육 실태

-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수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었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청각장애복지회 그리고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수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정섭(1992)의 발표에 의하면, 1980년대 초부터 전국적으로 ‘수화교실’ 또는 대학교 내 ‘수화동아리’를 통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초에는 수어교실 수료자가 11,450명, 수어동아리도 수도권에 207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수화전문교육원은 2009년 2,708명에서 2015년 6,863명으로 그 수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시도지부 및 지회, 그리고 부설 수어통역센터에서도 2012년 17,700명에서 2016년 27,035명으로 매년 수어 학습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어교육의 확대와 함께 수어교육용 교재가 다수 발행되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개발되기보다는 농인이나 수어동아리에 소속된 청인에 의해 어휘와 대화문, 또는 짧은 이야기 독해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수어의 언어학적 이론과 문법 등을 가미한 단행본이 출판되고 있으나, 단계별 교재는 강원도수어문화원에서 개발한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가 유일하다. 그러나 교재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도 교수자를 위한 지침서나 학습자를 위한 워크북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어학 교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이 1997년 시행되면서 수어교육 현장에서는 농사회의 이해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 2000년대에 이르러 수어교육 역시 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언어 교육의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언어의 문화적 틀을 이해하고 문화 간 소통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2. 농인의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환경

- 농아동의 90~95% 이상은 청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Mitchell & Karmer, 2004; Leigh et al., 2017), 사회적·문화적·언어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미흡한 언어 교육은 결국 사회적 의사소통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인간다운 생활과 민주정치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인들은 청각 구화법, 토털 커뮤니케이션이나 수화법을 사용하여 교육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농 아동을 위한 교육 방법은 아동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일반 학교로 통합 교육되기 때문에 구화 교육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는 형태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유로 입학한 농학교에서 한국어의 완전한 습득을 위해 교사가 한국어 문법에 따라 표현하는 수어로 교육받는 형태가 있다. 후자는 수어 교육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이며 결국 구화 교육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 언어 접근성은 보건, 교육, 고용 및 사회적 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 특히 언어는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는 언어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국어」 과목을 통해 이미 국어 실력을 평가받는 청인과 달리 농 학생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올바른 「수어」를 접

할 기회가 드물다.

- 최근 농학교는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이 반영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목으로 반영된 제2언어인 「영어」 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수이기에 그들의 모어와 다른 없는 수어 습득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 또한 구화 중심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성장해 오던 농인이 수어 환경으로 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이다.
- 이에 학교 밖 농인의 수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수어 활용 교육뿐 아니라 수어를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2.3.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

- 국어문화학교 운영은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다.
- 일상생활 속 헛갈리는 국어 맞춤법 등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199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반인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올바른 국어 지식을 보급하고자 1992년 5월 국어문화학교를 설치·운영하였다.
- 초창기에는 교사, 공무원, 편집인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어문 규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여 정확한 언어생활을 돕는 국어반과, 전문 번역인이나 번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번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반으로 나누어 개설되었다.

- 현재는 어문규범(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바른 글쓰기(문장 바로 쓰기,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논설문 쓰기 등), 바르게 말하기(표준 발음, 표준어, 언어 예절, 토의와 토론, 연설과 대화, 효율적인 말하기, 1분 스피치 등), 언어문화(속담의 이해, 고시가의 이해, 고사성어를 찾아서, 시와 언어의 만남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어문화학교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V-1〉 국어문화학교 과정의 개요

구분	대분류	과정 구분	과정 이름
국 어 문 화 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	정규 과정(원내)	공무원 · 일반인 과정
			교사 연수 과정
		특별 과정(원내)	언론 · 출판인 과정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특별 과정 등
		기획 · 지원 과정 (원외/타기관 주관)	고급 전문 교육(국회 사무처)
			지자체의 강의 기획 · 지원 요청
			기타 단체의 의뢰에 대한 기획 · 협조 등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1회 2강좌 4시간 이하	

(출처 : 국립국어원 20년사, 2011)

- 국어문화학교는 개설 첫해에 9회기를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4-5회의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 과정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전문번역인, 일반인, 청소년, 회사원, 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면서 20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특히 공무원들의 꾸준한 증가로 1998년 참가인원이 63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5~9급 공무원의 훈련 성적 반영에 국어문화원의 강좌 이수 여부를 포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결과 1999년 수강 총인원(608명)의 89%가 공무원으로 이루어졌었다.
- 국립국어원은 국어문화학교의 본격적인 확대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

부로부터는 지방 공무원 훈련 성적 평정 대상 전문 교육 과정(5일 35시간/5점 가산)으로 승인받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는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어문화학교 강좌를 국어반(5일 35시간)과 번역반(3일간 21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부사업으로 성인 30명 이상이 원하는 날짜, 시간, 과목을 정하여 신청하면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2000년에 시작하였다. 이 세부사업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낙도나 오지에 사는 일반 국민의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2010년부터 국어문화학교는 일반 국민 및 공무원, 교사 등의 한국어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과정과 더불어 특별 과정과 기획 과정이 함께 운영되었다. 특별 과정은 언론, 출판인, 새터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연 10여 회를 운영하였다. 기획 과정은 외부 기관·단체와의 공동 기획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도 국어문화학교 강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3. 기초 조사

3.1. 초점 집단 인터뷰(FGI) 대상

- 농교육과 농 문화에 대한 각 당사자들 간의 욕구를 파악하고 현 실태를 확인하고자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초반에는 ‘농인 당사자와 가족’, ‘농학교 교사 및 농교육 전문가’, ‘수어 교육 강사’, ‘수어교실 이용자’ 총 4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진행과정에서 대상자별 욕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농인 당사자’와 ‘농인 가족’을 구분하였다.

- 그리고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는 ‘농학교 교사’와 ‘농대안학교 교사’로 구분하여 총 6개의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초점 집단 인터뷰 대상 그룹

구분	초점 집단	진행 여부
1	농인 대안학교 교사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	7/21(금) 19:00-21:00 7명 진행(농인 4, 청인 3)
2	수어교육 강사	8/16(수) 10:00-12:00 6명 진행(농인 3, 청인 3)
3	수어교실 이용자	8/16(수) 13:00-14:50 7명 진행(청인 7)
4	학령기 농자녀를 둔 학부모 (농인 가족)	9/16(토) 10:00-12:00 6명 진행(농인 3, 청인 3)
5	농인 당사자(성인)	11/3(금) 18:30-20:30 9명 진행(농인 9)
6	농학교 교사 (농교육 전문가)	11/10(금) 17:00-19:00 6명 진행(농인 3, 청인 3)

3.2. 초점 집단별 주요 내용

3.2.1.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농 대안학교 교사) 대상 1차 FGI 분석결과

- 제1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7월 21일(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에 위치한 영락농인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며, 그 밖에 연구진 4명, 수화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진행과 음성통역을 담당하였고,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참

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 인터뷰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는 ① 농인 당사자의 경우 한국에서 청각장애 특수교육을 받았고 ② 농인과 청인 모두 농교육, 농 정체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농아동과 농청소년을 대상의 활동 및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③ 이들은 사회복지나 교육 관련 전공을 하였다.

〈표 IV-3〉 1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명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농교육 경험	관련분야 총 경력	구분
1	A	여	33	대학교 졸업	철학		1년 5개월	교사 청인
2	B	여	23	대학교 졸업	보육복지	15년	2년	교사 농인
3	C	여	23	대학교 재학	기독교 교육		5개월	자원봉사자 청인
4	D	남	21	대학교 재학	교육학	6년	4년	자원봉사자 농인
5	E	여	29	대학교 졸업	기독교 교육	17년	8년 7개월	교사 농인
6	F	여	52	대학교 졸업	유아교육		27년	자원봉사자 청인
7	G	남	32	대학원 재학	사회복지학	13년	7년	교사 농인

- 질문은 총 7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IV-4〉 1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농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의 실태
2	일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3	농 대안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4	농성인 및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성인/농인 가족/청인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여부

5	청인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6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7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농학교 경험, 현 기관 근무경력, 관련분야 총 경력	개인적 특성

-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기존 농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비판’, ‘소보사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징 및 기존 농교육의 대안점’,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 제시’로 나타났다.

〈표 IV-5〉 1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기존 농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비판	수어가 없는 교육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현장에서 수어는 없었음. • 수어와 구화가 동시에 사용되거나 음성언어만 사용하여 수업이 진행됨. • 농인에게 맞춤 교과서가 사라진 것은 다소 아쉬움.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을 담은 교과목은 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 농인에게 맞춰진 교육 내지 프로그램은 전무함. • 농학교에서 농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선후배 간의 대화와 또래집단에 의해서 가능함.
	언어치료가 주목적인 교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일수록 언어치료 형식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고 고학년부터는 단순암기 내지 역시 발음을 하는 것이 학습의 주목적이 됨.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부족으로 오는 다양한 문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부모, 부모와 자녀, 학교와 학생(자녀) 간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족 내의 심각한 문제들이 학교에서 다뤄질 수 없음. (특히 농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농인 가족 내의 문제가 점차 확대됨)
	교사의 농, 수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는 인권 문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이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요소들이 나타남. (구화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을 편애하거나, 구화실력으로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등) • 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인성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임. • 졸업 후 사회에 들어갈 대비를 전혀 학교에서 시켜주지 않음. •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해도 일반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
	학습의 양과 질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영어 수업이 모두 ‘말하기’에 치중되

	문제	<p>어 진행되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과목이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하고 단순 암기식에 아주 적은 분량으로 학기를 마감하곤 함.
소보사 대안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징 및 기존 농교육의 대안점	농 문화, 농 정체성, 수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대화는 수어가 중심임. 수어를 중심으로 교사회의를 진행하므로 농인교사와 청인교사와의 소통이 활발함. 농 문화, 농 정체성을 과목으로 다루어 수업을 진행함. (농역사, 농사회 탐방 등) 학교 수업시간 외 식사와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수어로 교사와 학생들이 대화를 하며 농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승하고 있음. 수어 이야기를 통해 농 문화, 농유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농인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줌. 수어 가위바위보와 같은 농아동이 즐길 수 있는 수어 놀이를 개발함. 음악수업 등 청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배제됨. 독서수업을 수어로 진행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수어로 책을 읽어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어와 농 문화가 전승되는 수업구조를 만들어감. 언어지연이 오지 않도록 조기에 수어로 언어 자극을 주고, 언어활동이 약했던 초등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수어 수업을 통해 언어자극을 주는 것에 큰 시간을 할애함. 어린이집의 경우 수어로 책읽기와 나들이 등을 통해 자연과 친화적이고 수어에 익숙한 환경을 어릴 적부터 제공하고 있음.
	농학생, 가족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의 관계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됨.
	부모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자녀양육 문제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육 특히 부모의 수어교육과 농 문화, 농 정체성 등의 교육이 필수로 제공됨. 농인 가족과 학교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수업공개, 실시간 영상 앱 활용, 방학캠프 등). 농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으로 제공함.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농인 교사와의 관계로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청인 부모들이 갖게 됨.
	다양한 방식의 교수법으로 수업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생각과 상황을 풀어 설명하는 ‘이야기’ 식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와 사고를 구조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이끌어냄. 주제별 통합수업을 지향함. 농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함. (학생 중심의 회의, 수업 제안 등) 청인 학생과의 교류 수업은 청인들의 인식개선에 큰 효과를 보임.. 농학생 또래를 만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성인 농인 교사를 보며 농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도 함.
	농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을 위한 연습들을 병행함. (통신중계 서비스 활용, 수화통역 섭외요령, 또래 청인 학생과의 교류, 지역사회 시설과의 교류 등)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 제시	농아동의 언어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시급한 대상은 아동임.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어에 노출되는 경우는 아주 적은 편임. 두 가지 언어에 균형 있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농학생을 대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수어실력이 향상되어야 함. 수어로 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함. 수어 사용 강사, 교사의 양성이 필요함.
	농어르신과 함께하는 농 문화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르신의 지혜를 활용하고 농사회, 농후배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수어와 농 문화, 농 정체성이 강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 청소년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여름프로젝트 유형)이 필요함. 문맹 농 어르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되어야 함. 농인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성인 농인을 위한 농 문화, 농 정체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농청소년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이 필요함. 수어 시(時) 등 수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어야 함. 농 당사자들의 바른 수어 사용을 위한 수어 교실이 마련되어야 함. 농역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관련 수업 프로그램이 필요함.
	농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안내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인 가족(농자녀를 둔 청인 부모, 농인 부모를 둔 코다 자녀 등)의 농 문화, 농 정체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농 아기를 위한 가이드(농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스톱 상담 시스템 등)를 제공해야 함. 농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부설기관이나 상담 전문 기관 등이 확충되어야 함.

		• 농아동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균형적인 정보가 제시되어야 함.
--	--	--

3.2.2. 수어교육 강사 대상 2차 FGI 분석결과

- 제2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8월 16일(수)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교육장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농인 강사 3명과 청인 강사 3명으로 총 6명이며, 그 밖에 연구진 4명,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각 1명씩 참여하였다. 인터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IV-6〉 2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명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수어교육 경력	통역 경력	구분
1	A	여	49	대졸	사회복지	20	20	청인
2	B	여	30	대학원재	수화언어통번역	4	8	청인
3	C	남	34	대졸	사회복지	3	8	청인
4	D	남	36	대학 중퇴	수화통역	2		농인
5	E	여	36	대졸	수화통역	1		농인
6	F	여	34	대졸	사회복지	6	10	농인

- 질문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7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IV-7〉 2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지금까지 수어교육 강사로 활동해온 경험은 어떠한가?	수어교육/수어통역 /농 문화 프로그램 경험 및 실태
2	전문가로서 수어통역 경험은 어떠한가?	

3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	
4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5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수어교육 경력, 수어통역 경력	개인적 특성

-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수어와의 만남’, ‘수어교육의 시작’, ‘수어교육의 현실’, ‘수어교육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IV-8〉 2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수어와의 만남	수어를 배우게 된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움.
	농인과의 첫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교수자로 만남. 수어통역센터에서 통역 의뢰자로 만남.
수어교육의 시작	수어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 시작. 수어통역센터에서 교육을 의뢰받아 시작.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배우면서 시작.
수어교육의 현실	수어교육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선교단체의 수어교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고등학교 재량수업(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사 파견 사업)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면서 강의. 강사의 마인드 강조.
	강사로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교육 시작.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다양하지 못한 교재. 강사진들 간의 소통 부족.
수어교육의 방향	강사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동기보다는 강사의 역량 중요. 즐겁게 배울 때 학습효과 증가. 강사 고유의 학습방법과 교수방법 필요. 수어교육 강사들 간의 공식적 네트워크 필요.
	교육과정과 교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교재 개발. (한국어+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 활용. • 수어의 어원정보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
	수어교육과 농 문화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언어에서 농인 고유의 언어로의 인식 변화. • 청인과 청인 강사의 생각의 변화 필요. • 농인과 청인 각자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필요. • 농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homestay).

3.2.3. 수어교실 이용자 대상 3차 FGI 분석 결과

- 제3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8월 16일(수)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교육장에서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1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며, 그 밖에 연구진 4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인터뷰 시작에 앞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IV-9> 3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명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수어교육을 받은 기간
1	A	여	50	대졸	가정학	5개월
2	B	여	39	대졸	상담심리/사회복지	1년 6개월
3	C	남	45	고졸		3년 10개월
4	D	여	48	전문대졸	일어	3년
5	E	여	50	대졸	사회사업학	1년 2개월
6	F	여	53	대졸	가정학	3년
7	G	여	43	대졸	일본학	4개월

- 질문은 총 6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6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IV-10> 3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지금까지 수어교실을 이용해 온 경험은 어떠한가?	수어교육 경험

2	지금까지 경험한 수어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어떠한가?	
3	수어교육과 농 문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수어교육과 농 문화
4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5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6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업, 수어교육 기간	개인적 특성

-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수어와의 만남’, ‘수어교육의 의미’, ‘농인/농 문화에 대한 생각’, ‘제안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IV-11> 3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수어와의 만남	수어를 배우게 된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 수어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 영어나 일본어 등처럼 하나의 외국어 학습으로 생각하고 시작. • 정년을 앞두고 보람 있는 성취의 하나로 생각.
	농인과의 첫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에서 호떡 장사하는 농인을 만남. • 커피숍에서 수어로 대화하는 농인들을 만남. • 수어를 교육하는 강사로 만남. • 회사에서 농인을 만남.
수어교육의 의미	수어교육이 주는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로서의 수어를 새로이 알게 됨. • 수어를 배우다 보니 수어 자체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됨. •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됨. • 수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단계별로 계속 공부하게 됨.
	수어교육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교육 기관마다 교육방법이 다름. • 교육 인원도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소규모 강의가 효율적임. • 온라인 강의 필요. • 자리배치가 모든 교육생이 강사의 수어표현을 보기에는 어려움. • 각 단계별 과정 이수 후 본인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필요. • 반복학습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의를 들으며 수어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낌.
	수어통역사 제도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수어통역사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됨. •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수어교육이 단절됨. • 수어는 살아있는 언어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농인/농 문화에 대한 생각	수어교육과 농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교육을 통해 농인에 대한 생각이 변화함. •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 • 농인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게 됨. • 실제 농인을 만나는 기회가 부족함. • 농인을 만나는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 • 농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필요. • 농인을 자주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 필요. • 교육생 자체 동아리 활동 필요.
제안사항	기본 인프라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강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대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필요. • 좌석배치는 강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구성. • 공간은 클수록 좋음. • 방음 필요. • 한 과정을 마치면 다음 과정 이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교재뿐 아니라 영상과 음성파일을 활용한 보조교재 구축. • 교육 요소뿐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고려. • 수어통역사들을 위한 수어교육 필요. •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의 공동 및 연계교육. • 일대일 강의 확대. • 온라인 강의 확대. • 농인 강사진 양성 필요.

3.2.4. 학령기 농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4차 FGI 분석결과

- 제4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9월 16일(토)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다. 그밖에 연구진 4

명, 수어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진행과 음성통역을 담당하였고,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인터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IV-12〉 4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명	성별	연령	최종학력	청인/농인 여부	자녀의 수	농자녀의 나이	의사소통 방법
1	A	남	46	대졸	청인	2	4	수어/독화
2	B	여	36	고졸	농인	1	11	수어
3	C	여	46	대졸	농인	2	2	수어
4	D	여	35	대졸	청인	2	4	수어/음성언어
5	E	남	50	대졸	농인	2	2	수어
6	F	여	37	대졸	청인	2	4	수어

- 질문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9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IV-13〉 4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장애 수용
2	내 자녀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인가요?	
3	그동안 청각장애나 수어, 농자녀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제공받은 서비스
4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어떤 경험(치료 포함)을 해보았나요?	
5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 양육
6	자녀와의 소통,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농인 가족(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7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 경험

8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안사항
9	기타 제안하실 점이 있다면?	
10	성명, 연령, 최종학력, 청인/농인, 직업, 자녀의 수, 농자녀의 나이, 농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농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개인적 특성

-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농자녀가 태어난 후의 가족 반응’, ‘농자녀 양육 시 어려운 부분’, ‘농자녀를 양육하며 느낀 점’, ‘농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IV-14〉 4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농자녀가 태어난 후의 가족 반응	농인 부모 -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혀 걱정이 없었음. 3대가 농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걱정은 없었음. 나와 같은 농, 나와 같은 삶에 대한 기쁨.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 없음.
	청인 부모 -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격, 막막함. 이전에 농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큼. 태교 때부터 감지해서 불안한 마음임.
	주변인 -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농인이라 해도 축복보다는 염려가 많았음. 외국의 농 문화와 다른 한국 상황. 인공와우 수술 강요. 병원과 교육기관, 복지기관의 편협한 정보 제공. 다양한 선택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었음.
농자녀 양육 시 어려운 부분	정보의 부재 전문가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를 직접 찾아야만 함. 다양한 정보, 다양한 사례를 제공받을 곳이 없음.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 설명이 부족함. 수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음. 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전문기관,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온전히 맡겨진 농아동 양육. 농아동에게 혜택이 없음. 정부지원의 불균형: 인공와우 시술자에게는 의료적, 치료적 재정 지원이 있는 반면, 수어를 선택한 아동 및 가정에는 관련 지원이 없음.
농자녀를	의사소통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간의 언어치료의 미흡한 효과.

양육하며 느낀점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교육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인공와우 수술의 강행에 대한 염려. • 농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문가의 부재. • 아이가 어릴 때 부모의 수어실력 미흡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 일상생활 속 상식을 전해주지 못함.
	수어의 놀라운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의 수어접촉에 의한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 • 수어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음. • 부모가 농 문화를 접할수록 마음이 열림. • 농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이 생김.
	외국 농 문화의 사례에 도움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농인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음. • 외국의 사례. • 농인과 청인의 대등함. • 청인 수준의 사고력. • 농 문화에 대한 자부심.
농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분	초기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농자녀 / 청인-농자녀에 맞는 시스템 구축. • 농아기를 키울 수 있는 선택권 제시. • 농아기 양육을 위한 다양한 관점, 정보 제시. • 병원, 주민센터, 복지기관 내 관련 상담.
	농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정체성: 농인에 대한 농인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함. • 농인의 가능성에 대한 청인 가족 교육. • 농자녀의 형제자매 수어, 농 문화 교육. • 특히 아버지의 참여가 필수적 - 소통, 부모교육 필수 (조부모 포함). • 농 당사자와 농자녀를 둔 부모와의 만남. • 농인 가족과의 교류: 자연스러운 농인의 삶을 노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 • 농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류, 정보공유. • 자녀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농인 가족을 위한 수어교실.
	농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보사 이외에 농아동, 농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은 거의 없음. • 청소년과 청년들의 모임이 증가해야 함. • 캠프나 소풍 등. • 세계 농청소년 캠프 개최. 한국버전. • 수어가 있는 교육. • 수어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 확대가 시급한 문제임.
	농아기를 위한 보육, 교육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아기 - 돌봄, 어린이집부터의 수어교육 제공. • 농아동 관련 프로그램이 전무함. (코다에 비해서도 적음). • 농아동을 위한 수어 그림책(DVD / QR코드)

		수어컨텐츠 확대. • 자존감. 정체성. 자긍심. • 농아기를 돌보는 농인 보육자가 필요. • 교육현장에 농 당사자가 본보기로 되는 대상으로 제시, 근무 • 수어가 함께하는 예체능 교육. • 활동보조인처럼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동행.
	청인들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특수교사,수어통역사 포함)	• 예비 부부를 위한 농인 인식 개선. • 한 번도 농인을 만난 적 없는 상태로 농아기를 낳았을 때의 충격이 큼. 부정적인 관점이 전제되어 있음. • 일반 청인들의 인식 개선. • 특수교사들의 수어 실력 확보. • 수어통역사의 역량 강화.

3.2.5. 농인 당사자 청년(20~30대) 대상 5차 FGI 분석결과

- 제5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11월 3일(금)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교실에서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며, 그밖에 연구진 1명, 수어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진행과 음성통역을 담당하였고,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인터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IV-15〉 5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명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직업	의사소통수단
1	A	여	20	고졸	소보사대안학교 생활지도교사	필담, 수어, 구화
2	B	남	29	대졸	나사렛대학교/수화통역센터	수어
3	C	여	30	대졸	소보사대안학교 수습교사	수어, 구화
4	D	여	24	고졸	바리스타	수어, 필담
5	E	여	20	대학 재학중	사회복지학	수어, 필담
6	F	여	28	대졸	회사원	구화

7	G	여	24	고졸	취업 준비 중	수어, 필답
8	H	여	25	대졸	국제교류/중국어	수어, 필답
9	I	남	27	대졸	사회복지	수어

- 질문은 총 9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5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IV-16〉 5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농 문화/농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농 문화/농 정체성의 개념과 현황
2	한국의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차후 농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고 전승되어야 할까요? (혹은 농 문화의 전승과 발전이 필요할까요?)	농 문화/농 정체성의 발전, 전승, 방향
4	차후 건강한 농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혹은 농 정체성의 확립이 왜 중요할까요?)	
5	20~30대 농 청년과 40~50대 이후의 농장년이 보이는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또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6	20~30대 농 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농청년의 현재
7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안사항
8	기타 제언하실 점이 있다면?	
9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혹은 직업), 주된 의사소통방법	개인적 특성

-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 문화의 거시적·미시적 정의와 현황’, ‘농 정체성의 중요성과 정의’, ‘농청년의 현황’,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IV-17〉 5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농 문화의 정의	농 문화의 거시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로 인한, 시각 문화로 인해 생긴 고유한 생활 양식.

	: 생활양식으로서의 '농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십'에 대한 이해의 차이 : 소통의 시작에 '신체적 접촉(터치)'가 필수적이고 예의(에티켓)임. • 시각 중심- 보는 문화 : 대중교통 이용 시 자막 안내방송에 주목, 소리가 아닌 빛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먼 거리에도 소통이 가능함. 먼 거리의 사람을 부를 때 다양한 도구를 활용. 밝은 곳을 선호하며, 대화 시작 전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기본임. 낯선 사람이라도 대화를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청함. 원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소통을 시작함. • 수어통역사, 속기사의 동행. • 집단정체감: 공동체문화. 언어의 차이로 인해 생긴 소수문화. 같은 언어를 가진 이들과의 공동체적 유대감.
	농 문화의 미시적 정의 : 수어를 활용한 형태적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시(테프잼과 같은) • 수어연극(난파) • 수어 구연 • 수어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 지숫자 릴레이 - ㄱ ~ ㅎ 지문자 릴레이 - 다양한 수어유머 등 - 수어 이야기 • 수어 게임 (얼굴이름 게임)
농 정체성의 정의	농 정체성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 나의 '농'을 인정하는 것. • 나의 언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 • 청인과 청인 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수용과 이해. • 이중문화 정체성을 지향해야 함.
	농 정체성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 발전 이전에 농 정체성 확립이 우선적으로 중요함. • 건강한 농 정체성을 가져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함. • 농인에 대한 자부심은 공동체성을 강화시킴. 소수자로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함.
농 문화의 현황	인식개선 수단으로서의 농 문화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뮤지컬 - 소리 없는 뮤지컬이 청인에게도 반응이 좋음. 이는 농 문화를 청인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젊은 세대에서의 농 문화 약화, 농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농인들끼리 모여 노는 것을 농 문화로 오해함. • 젊은 세대들의 놀이가 아닌 농인이기에 가능한 문화에 대해 점점 잘 알지 못함. • 스마트폰, 개인주의의 발달로 농인끼리의 집단 정체감 및 소속감이 약화됨. • 청인 문화에 흡수되어 유사해지는 것이 안타

		<p>까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중심의 문화가 약화되고 있음. • 공동체 의식이 약화됨. • 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양식이 쇠퇴됨.
	<p>젊은 농사회 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들</p> <p>- 구화 사용자와 수어 사용자와의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족내혼의 특성상 이성 교제 시 수어를 쓰는 농인을 더 선호함. • 특수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다수의 구화인 그룹에 속할 경우 힘들. • 농인과의 소통을 그리워함. • 구화 사용자와 수어 사용자와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음. • 구화 사용자들이 농인을 ‘구화’로서 도우려는 태도에 반감이 있음. • 구화 사용자의 낮은 정체성에 대한 반감을 가짐. • 수어 사용자의 과도한 몰입 정체성에 대한 반감. • 구화를 할 수 없는 농인에 대한 그릇된 동정심.
농 정체성의 현황	구화 배경을 가진 농인들의 정체성 혼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창시절 통합교육을 받은 농인들은 주변정체성, 청인중심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수어에 대한 자부심, 농인에 대한 자부심이 약함.
	수어 배경을 가진 농인들의 자존감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회에서 청인 사회로 소속이 옮겨진 젊은 세대들의 방향. • 청인 사회에서의 차별과 무시로 인해 자존감이 하락됨. • 농 공동체 안에 정기적 만남이 절실함. • 농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있음.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 전승을 위한 적극적 활동. • 공동체 안에서의 농 문화 전승이 필요함. • 세대 간 만남, 농부모와 농자녀와의 만남, 농인 마을 등 공동체적 모임 속에 농 문화 전승 가능. • 수어에 대한 왜곡을 막아줄 농 선배들과의 대화. 수어교육이 필요함. •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위한 농 청년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 수어 시 등 수어 문학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이전에 강사 양성이 시급함. • 농아기를 위한 책읽기(수어 구연).
	농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이 자유롭게 모이고 함께 소속감을 유지하여 자존감과 농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이 필요함. • 농부모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그 자녀에게

한국수어문화학교 운영 방향		영향을 미침. 따라서 부모교육이 필수적임.
	강사양성 및 문화, 문학(언어)에 대한 학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조건: 수어의 이해, 문학적 이해, 청인의 언어와 농인의 언어에 대한 균형적인 지식. 해외 농 문화를 그대로 베껴오는 식은 지양. 한국만의 농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함. ‘문화’와 ‘문학’에 대한 기본 이해력이 약함. 농인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함. 농학(農學)의 필요성.
	조기 농 정체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농 정체성 향상. 부모의 수어교육을 가족 간 의사소통 향상. 청인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중재자로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 제시. 통합교육을 받은 구화사용자, 중도실청자 등 다양한 구화배경을 가진 이들이 ‘농’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정을 안내해줘야 함.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어와 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파티형식의 일회성 만남. 농청년들을 위한 농 정체성 강화 여행프로그램(예시: 소보사의 여름프로젝트). 놀이 공간, 문화 공간 설립(교육이 아닌 일상의 나눔을 통한 농 문화, 농 정체성 교류가 필요함). 농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농 어르신을 자원으로 하는 프로그램 확대. 청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수어 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시 참여할 의사가 있음(수어 시 관련 해외 전문가 초빙 및 시에 대한 문학적 이론교육 희망함).

3.2.6. 농교육 전문가 6차(농교육 전문가) FGI 분석결과

- 제6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11월 10일(금) 서울 용산역 itx3 회의실에서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6명이며, 그밖에 연구진 5명, 수어통역사 2명과 문자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음성으로 진행하면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각각 수어와 문자로 지원하였으며, 농인 전문가의 의견은 수어통역사의 음성통역을 통해 진행하였다.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IV-18> 6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명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현 기관 경력	관련분야 총 경력
1	A	여	50	대학원졸	특수교육		
2	B	여	49	대학원졸	국어학(수어학)	22	28
3	C	남	52	대학원졸	특수교육학	27	27
4	D	여	51	대학원졸	특수교육학	29	29
5	E	남	55	대학원졸	특수교육학	28	28
6	F	남	54	대학원졸	국어국문학	2	16

- 질문은 총 7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IV-19> 6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농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의 실태
2	일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3	농 대안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4	농 성인 및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 성인/농인 가족/청인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여부
5	청인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6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7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농학교 경험, 현 기관 근무경력, 관련분야 총 경력	개인적 특성

-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현황’, ‘대안사항’, ‘문화학교를 위한 제안’으로 나타났다.

〈표 IV-20〉 6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현황	농학교 내 농 문화/농 정체성 반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나 수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없음. • 고등부부터 수어교육이 진행됨.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데프 방송 뉴스를 통해 수어표현, 이슈를 다루는 정도로 진행. • 농 문화 접근을 주제로 하지는 못함. • 농 문화특강 : 농사회의 롤모델 초대. • 연1회 수어예술제 진행. • 농 문화를 발전시킬 만한 프로그램은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독서수업(농인 사서 활용). • 수어영상도서, 수어방송을 보고 토론.
	농학교 내 기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프로그램 : 판토마임, 방송댄스, K 팝. • 음악교육으로 청력에 따른 타악기, 관악기 교육이 있음. • 농대학생과 멘토링(방과 후 프로그램). • 교사 대상 농 문화 수어교육 실시 중임. • 서대문북지관 연계 진로·진학프로그램 • 농선배와의 만남(사업장 방문).
	일반학교 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의무교육 (장애이해교육) 운영 중임. • 청각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함. • 동아리에서 농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제과제빵, 과학동아리 운영). •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 대상 수어캠프: 농인 강사 초빙하여 진행됨. 농대학생 활용. • 유치부, 초등부와 통합수업 운영. • 비정기적으로 청인 학교 학생들이 농학교에 방문. • 부모 대상 농 정체성 강의: 일반학교 내 청각 장애학생이 농학교로 전학하기도 함. •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운영.
	농학교 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교육 자격 소지 특수교사가 지적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상황임. 고급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복장애학생의 입학으로 농학교로서의 정체성이 낮아짐. • 학생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수어교육에도 장애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함. • 인공와우 수술의 증가로 수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 정체성 회복이 필요함. •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많음.

대안점	농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역사 교육. • 이론과 체험교육을 함께하는 농사회 및 농문화 교육. • 연대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 농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이 필요함(심리극, 상담 등). • 수어 이론, 실제 등을 위한 교육. • 농청소년 캠프 개최. • 농인부모를 위한 육아교실. • 농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제시. • 농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 농인을 위한 인테리어 등. • 청인에 대한 배타심이 아님 배려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수어 시, 수어연극, 방송댄스 등. • 농선배와 함께하는 시간. • 사회성 신장교육(진로, 진학). •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다양한 취미활동 지원. • 기본 상식, 법률, 경제 등을 위한 교육.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전문가 필수.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따른 교육과 강연.
	농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정체성, 농인에 대한 인식, 수어에 대한 인식 등을 위한 교육 제공. • 장애인등록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반영. • 농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부모교육 제공. • 자막, 무선자막기 등 복지서비스 홍보 및 안내.
	청인에게 필요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인 교사 대상 직무연수 내 반영. • 장애인의 날, 농인의 날, 장애이해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 캐나다 사례: 학교 내 교직원 모두가 수어가 가능하도록 데프존 운영. • 농인 체험: 농인 다수에 청인 소수로 체험. 농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농 문화를 제시. • 농 정체성 교육(농학생과 함께).
문화학교를 위한 제언	대상에 대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화시키면 좋겠음. • 일반국민/코다/수어통역사 대상 등. • 농학교 교사를 활용한 직무연수. • 수어교육 시 농인7 대 청인3의 비율로 구성. • 소수의 대상자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함.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재가 필요함. • 농사회 내 연대감을 위한 사랑방 역할. • 농교사를 위한 사전교육(농사회 내 경험 등). • 중도(中途) 실청자를 위한 수어, 농 문화 적응. • 졸업 후 필요한 일상생활 정도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교육 시 이론도 함께 제시.
	운영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 한국농아인협회와의 연계. • 인식 전환. • 보장구, 보청기 관리 방법 소개. • 외부기관 적극 연계.

4. 시범 프로그램 운영

선행연구 분석과 초점집단 인터뷰 분석결과를 종합해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의 일환으로 농인 및 농인 가족 대상의 세부 프로그램 3가지를 기획하여 추진한다.

〈표 IV-21〉 시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수어낭독회 - 수어로 책읽기	수어문학 및 농 문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한 권의 책을 수어로 낭독하여 한글로 된 문학의 형태를 수어로써 이해하고, 문학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농 민속학 - 농사회 투어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 ‘농 성인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를 통해 지역별, 시대별 한국 농사회의 역사와 문화 발견한다.
이야기하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농인 이야기꾼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참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4.1. 시범 프로그램 I : 수어낭독회 - 수어로 책읽기

4.1.1 성격

한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수어로 낭독하고 이를 농인들이 함께 감상하며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및 수사법 등을 수어로 맛본다.

4.1.2. 참여 대상

- 전 연령 대상 농인,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인, 수어통역사

4.1.3. 운영 형태 (참여자 주도형)

- 청각장애인 통역사(농통역사) 혹은 수어통역사가 낭독.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식이 아닌 한국어 도서를 수어로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본 프로그램의 목적임.
- 첫 번째 장을 읽은 후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얼굴 이름 정하기, 낭독 후 피드백하기 등은 참여자 주도로 진행함.

4.1.4. 운영 방식

- 주 1회 1시간 30분~2시간(다과 혹은 식사 제공)
- 총 3회기를 소보사 대안학교에서 진행함. 이전 회기에 참석하지 못했던 참여자를 위해서 시작 전에 줄거리를 요약하여 줌.
- 도서명 : 나니아 연대기(c.s 루이스) - 한정된 회기로 인해 영화화된 ‘사자 옷장 그리고 마녀’ 부분만을 낭독하였음.
- 시범프로그램은 총 3회기로 종료하였지만,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낭독을 희망하는 농인 참여자들을 위해 소보사 대안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권 낭독을 완료하였음.

4.1.5. 주요 내용

- 도서 선정(한 권의 도서를 모두 다함께 읽기).
- 도서를 낭독하는 구연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통역사 등이 될 수 있으나 두 개의 언어, 즉 ‘한국어’와 ‘한국수어’에 모두 능숙하여야 함.
- 수어 영상 도서로 만들어진 기존의 요약된 형태 혹은 통역식의 전달

이 아닌 도서 전체를 그대로 낭독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문학의 기본적인 요소들(미적 정서, 상상과 창조, 사상성, 형식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어에 적용하여 수어 문학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음.
- 매 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낭독 후 함께 읽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 주요 장면



[그림 IV-1] 시범 프로그램 I - 수어낭독회

4.2. 시범 프로그램 II : 농민속학 - 농사회 투어

4.2.1 성격

농 정체성 및 농 문화의 전승을 목적으로, 농사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보

는 시간으로 과거의 농사회와 농인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농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농 문화와 수어의 전승은 물론 농 정체성의 확립을 도울 수 있다.

4.2.2. 참여 대상

- 전농(全農)학생 및 농청년, 농인 가족

4.2.3. 운영 형태 (상호작용형)

- 강사와 참여자 모두가 농인 당사자로서,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임.

4.2.4. 운영 방식

- 총 3회기(식사 및 다과 제공)
-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 : 농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
- 농 어르신 섭외 기준: 건강한 농 정체성을 소지한 수어 사용자
- 기본적인 질문은 유사하나, 농 어르신의 직업 및 삶의 배경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함.
- 1회기 마친 후 농 청소년들에게 ‘농 역사’ 및 ‘농 문화’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함.

4.2.5. 주요내용

- 진행순서
 - 농 어르신과의 상호 인사와 소개
 - 농어르신의 삶 이야기 보기 : 어릴 적 이야기, 가족이야기, 학교이야기, 역사 이야기 등
 - 참여자의 자유 질의응답
 - 젊은 농인에게 한마디

○ 세부내용

회기	농어르신	주제
1	안세준 한국농아인협회 초대 회장	농사회와 농아인협회의 흐름. 농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청인사회 속에서 농사회의 독립이 시작된 계기, 농교육의 역사 등
2	최명의 최초 농인 선교사	한국전쟁(육이오 전쟁) 경험담(피난시절). 고등학교 시절 경험, 농인 친구의 죽음, 농인 미술가로서의 동, 국내 1호 농인 선교사로서의 경험 등
3	김용익 영락농인교회 목사	나의 신앙과 삶 한국 최초의 종교기관, 농사회의 그루터기가 된 영락농인교회의 역사.

○ 주요내용 : [부록 6] (이야기책)

○ 주요장면



김용익 목사



[그림 IV-2] 시범 프로그램 II - 농민속학

4.3. 시범 프로그램 III : 이야기하기

4.3.1 성격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농인 이야기꾼(스토리텔러)가 수어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펼친다.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여서 농 문화를 공유하고 수화언어가 가지는 힘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장이다.

4.3.2. 참여 대상

- 농 학생, 농 청년, 농 아동, 농인 가족 등

4.3.3. 운영 형태 (상호작용형)

- 이야기꾼과 참여자의 쌍방향 소통
- 참여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진행자가 도움
- 심화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자가 도움

4.3.4.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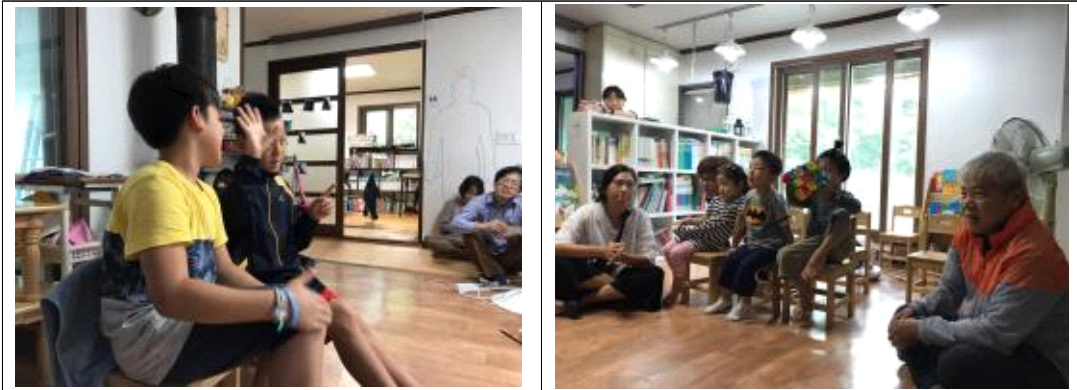
- 총 3회기 진행

- 이야기꾼 섭외 기준 : 한국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농 성인.
-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가볍게 ‘농유머’, ‘수어유머’를 선보임
- ‘다시 이야기’는 자발적으로 진행하되, 연령이 어리거나 수어 사용이 서툴 경우 이야기꾼이 수어를 다시 잡아줌으로써 바른 수어를 돕도록 함.
-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되, 토론 과정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진행자가 적절한 질문을 던짐.

4.3.5. 주요내용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함.
- 이야기를 마친 후 참여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꾼이 해준 이야기를 재구성함.
- 주제에 대해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눔.
- 주요내용: [부록 7] (이야기책)
- 주요장면

	
이야기꾼의 ‘이야기하기’	



참여자들의 다시 이야기하기

[그림 Ⅳ-3] 시범 프로그램 Ⅲ - 이야기하기

4.4. 시범 프로그램 실시 후 주요 성과

- 농인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설계됨.
- 3회기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함.
 - 모든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농 청소년, 농 청년 참여자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농 정체성 함양’, ‘농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긍정적 이미지 향상’, ‘수어를 통한 언어적 유희에 대한 흥미도 상승’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 프로그램 별 주요 대상자(연령, 유형 등)를 파악할 수 있었음.
- 강사진의 필수 역량, 프로그램 내 필수 자원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한 핵심 지침사항을 정리함.

5. 시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5.1. 수어낭독회

-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김.
- 청인의 한글만이 아닌 수어로도 문학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김.
- 농인으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한국어실력의 부족으로 책을 멀리하였으나, 수어로 책을 읽는 것 역시 같은 ‘독서’임을 인식함.
- 생생한 수어낭독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도가 급증함.
-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확신이 생겨 ‘농’과 ‘수어’에 대한 인식이 바뀜.

5.2. 농민속학

- 나와 같은 농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에 대한 신비로운 마음이 들.
- 이를 통해 ‘농사회’에 대한 애착이 생김.
- 농인과 농사회의 역사를 알게 됨.
- 농역사를 탐구함으로써 ‘농인’에 대한 자부심이 생김.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농인의 인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생김.
- 어르신들의 수어를 보며 언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5.3. 이야기하기

- 언어유희가 가능한 수어의 언어적 위상을 확인함.
- 마음껏 수어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어서 ‘농 문화’나 ‘농사회’에 대한 다양한 공유 및 전승이 기대됨.
- 수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김.

- ‘다시 이야기’ 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언어가 ‘수어’임을 확인하게 됨.
- 수어유머 등을 통해 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 즐거움.
- 나의 언어로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풍성함이 느껴짐.
- 농인에 대한 자부심이 생김.

6. 결론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시사점

6.1. 농 당사자 및 농사회 구성원 대상 FGI가 주는 시사점

- 1차~6차까지 진행된 FGI 중 농 당사자 및 농인 가족, 농 교육가 등으로 구성된 초점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된 키워드와 욕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인터뷰 참여자의 다양한 기본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온 참여자들의 욕구 및 한국수어문화학교의 운영방향은 <표 IV-22>와 같다.

6.1.1. 한국수어문화학교 운영 목표에 대한 시사점

- 농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수어문화학교가 농인 사회의 문화 확산을 위한 가교 역할로서 농 문화의 보급뿐만 아니라 농인의 전반적 생애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한국수어문화학교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이 묶을 수 있다.
첫째, 농 정체성 확립.
둘째, 농사회의 문화 확산을 위한 가교 센터로서의 역할.

셋째, 한국수어 보급을 통한 농인의 사회통합.

넷째, 농 자녀의 교육 지원.

※ 넷째 목표 영역은 한국수어문화학교의 기능과 역할로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농인들은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어문화학교가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여겨짐.

6.1.2.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

- 농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한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함.
- 향후 한국수어문화학교는 크게 다음의 4개 영역의 주제로 운영 목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농사회의 발전과 수어보급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IV-22〉 FGI 가 시범프로그램 운영에 주는 시사점

핵심 키워드	
I. 농 정체성 : 농 정체성, 농사회, 공동체, 농교육, 농역사, 농 아기의 언어선택권, 부모교육	
II. 농 문화 : 농 문화	
III. 한국수어 : 한국수어	
IV. 인식 개선 : 인식개선, 다양한 정보 제공, 사회통합	
I. 농 정체성 주요 내용	
1. 농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농 정체성 교육이 필수적임. • 농 정체성 프로그램은 이론 및 실제(체험, 캠프 등)가 함께 해야 함 • 청인 사회에 적응 중인 젊은 농 청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됨. • 특히 중도 실청 및 학령기 이후 농사회에 들어온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청인들을 위한 농 정체성 교육도 필요함
2. 농사회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회의 다양한 형태 및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농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젊은 세대가 농인으로서의 삶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롤 모델을 개발하고 연결시켜줌. • 최근 들어 농사회의 집단 정체감(연대감)이 약해짐에 따라 농인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를 위해 ‘사랑방’ 역할을 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 새로 농 아기를 맞이한 농인 가족을 위해 기존의 농인 가족과의 교류의 장이 필요함.
3. 농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역사의 전승을 위해 농 어르신과 농 청년, 농 학생, 농 아동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 농 어르신의 삶을 통해 농사회, 농 문화 및 수어의 기원 및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4. 농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교육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함. • 농사회의 시작, 농 문화의 전승 및 수어 사용의 극대점이 학교인 만큼 현재 농교육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에서의 대책을 평생교육 관점 및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개입해야 함. • 농교육가(특수교사 등)를 위한 수어교실, 농 문화교실, 농 정체성 특강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5. 농아기의 언어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함. • 농 아기의 언어선택권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및 관련 정보가 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만 3세까지 언어습득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공와우 수술 유무와 무관하게 수어로 언어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6. 농인 자녀를 둔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제공. • 농과 수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함. • 농 정체성과 농 문화, 농사회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농 자녀를 둔 부모의 수어교육은 필수적이고 시급한 문제임. • 농 자녀를 둔 부모의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함.

Ⅱ. 농 문화 주요 내용	
7. 농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이 동시에 다뤄져야 함 • 미시적 관점: 수어 시, 수어 연극, 농문학 등은 기본적인 ‘문학’의 이해를 먼저 갖도록 준비되어야 함. • 거시적 관점: 농인의 생활양식 전반으로의 문화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 • 수어를 통한 언어유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어문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수어를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먼저 제공되어야 함. •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됨. • 농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등 농인과 만남의 장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됨. • 농인과 청인 모두에게 필요함.
Ⅲ. 한국수어 주요 내용	
8. 한국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수어교실이 필요함(농아기, 농학생, 중도실청, 농인 가족(코다/청인부모/형제), 일반 청인, 수어통역사 등). • 단회기 수어 교육을 할 때 수어를 ‘제스처’나 ‘판토마임’ 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수어 교육은 농 문화와 농 정체성 강의와 함께 병행되어야 함 • 언어로서 접하는 한국수어는 하나의 문화와 함께 습득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함(교육규모, 교육방법, 연계학습 등). • 한국어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사전연구 및 교재 개발이 시급함(영상과 음성파일 등을 활용한 보조교재 구축 및 교육적 요소와 흥미 요소가 융합된 교재 및 학습방법 개발). • 현재 농 문화 및 농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는 극소수이므로 강사 양성이 시급함(농인과 청인강사의 공동교육 및 연계교육 등).
Ⅳ. 인식개선 주요 내용	
9.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민, 농인을 가족으로 둔 청인, 초·중·고 학생, 특정 기관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일회기 또는 중장기적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강사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개선은 조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함.
10. 다양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 아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제공이 시급함. 병원, 복지관, 공공기관 등에서 농아기 양육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농인을 바라보는 소책자 등이 필요함. 농 자녀 양육 시 이에 대한 부담이 부모의 개인적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11.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을 위해 농인 및 청인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농인의 언어와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 사회통합은 실제로 연습되어야 함. 따라서 유아동부터를 그 대상으로 하여 조기에 청인과 농인 문화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외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어문화학교의 우선적 대상은 농아기, 농학생임. 일대일 강의나 온라인 강의 확대. 지속성 확보

6.2. 시범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

- 진행자, 강사진 등 사업 주관 인력의 ‘한국수어’, ‘농 문화’, ‘농 정체성’ 숙제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임.
-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운영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농인 강사의 능숙한 수어사용 능력이 프로그램 성패의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한국수어문화학교의 강사진 구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농인 당사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 앞 세대 농인과의 만남은 어리거나 젊은 세대 농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함. 따라서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수어’라는 농인의 언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문화의 본질인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통하여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운영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표 IV-23〉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에 주는 시사점

프로그램명	대상자(참여자) 유형	향후 운영시 유의사항
수어낭독회	-도서에 따른 연령 구분. -농인/청인 모두 참여 가능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통역사 모두 가능하나 한국어문학과 수어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청각장애인 통역사의 경우 청인 수어통역사가 거울 통역방식으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임. -청인 수어통역사의 경우 음성낭독 자료를 이용.
이야기하기	-주제에 따른 연령 구분 -농인 대상이 적합 -청인이 대상일 경우 분리하여 진행	-이야기꾼은 필히 농인이어야 함. -수어실력 및 농사회 경험이 풍부해야 함. -참여자가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이야기꾼이 아닌 별도의 다른 진행자가 진행함.
농민속학	-농인 대상이 적합 -학령기 또는 청년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진행 -함께 진행할 경우 1, 2부로 나누어 진행	-농 정체성, 수어에 대한 편견 없이 건강하게 이해함. -농사회, 농교육의 경험이 필수적임. -강사는 장년층 이상의 연령이 적합함. -농 아동이나 농 청소년과 진행할 경우 부진행자가 수어의 전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김.

7.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 대부분의 농인은 청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인 한국수어 교육 및 한국수어 능력 향상에 대해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사회적·문화적·언어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농인은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되며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지위를 확보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편견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구화 중심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성장해 온 농인은 수어환경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
- 청인 대상의 한국수어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한국수어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과 함께 향후 한국수어 환경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본 연구는 농 문화와 수어교육에 대한 각 당사자들 간의 욕구 파악, 시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7.1. 중점 사업 운영 방향

첫째, 한국수어문화학교는 농인이 자신을 수어와 농 문화의 주체로서 인식하며, 농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올바른 농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둘째, 한국수어문화학교는 참여자들이 언어로서의 수어를 익히고 농 문화를 향유하여 한국수어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셋째, 한국수어문화학교는 농인 가족, 중도실청인 등을 포함한 일반 청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수어와 농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도록 한다.

넷째, 모든 사업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의사소통은 수어를 바탕으로 농인 중심으로 진행한다.

7.2. 기본사업계획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은 기본 교육과정과 특화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기본 교육과정은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며,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정이다.
- 특화 교육과정은 한국수어와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는 심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특정 대상을 위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한다.
- 교육과정은 ‘면대면 과정’,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 방식을 개방적으로 하고, ‘찾아가는 문화학교, ‘청인을 위한 문화학교’ ‘농인 당사자를 위한 심화과정’ 등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7.2.1 기본교육과정*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대상
영역	활동명		
기본교육과정	농 문화와 농 정체성	농 문화의 이해	모두
		농사회의 이해	모두
		농인은 누구인가?	모두
		농 정체성	모두
	한국수어	언어로서의 수어	모두

	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 체계 	모두
		수어 첫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의 기초 회화 수어의 언어적 성격 및 체계 기초어휘(수어소와 비수지신호) 기초 수어문법 	
		일상 생활 속 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에서 다루는 수어 회화 수어의 중급 회화 연령, 장소 등을 기반으로 한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에서 다루는 수어 회화 수어의 고급 회화 연령, 장소 등을 기반으로 한 회화 	

‘*’ 는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운영함

7.2.2 특화교육과정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대상	
영역	하위주제(활동명)			
특 화 교 육 과 정	수어 심화 과정			
	한국수어의 이해	언어로서의 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정과 동일• 기초/중급/고급과정으로 나눠 진행	일반 시민
		농인과 소통하는 생생한 수어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어 시청• 다양한 수어 동영상을 시청하며 수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하나의 긴 이야기를 수어의 구조로 구성하여 이야기하는 훈련	
	청인(중도실청 및 구화사용자 포함) 대상 과정			
	농 문화와 농 정체성	난 농인일까? 청인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인의 언어인 수어• 농인의 문화• 농인의 정체성• 농사회 특성※ 구화 사용자를 위한 농 정체성 입문	중도 실청자 구화 사용자 등 모두
	한국수어의 이해	나의 언어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와 구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시각 언어의 특성• 수어 체계• 수어 실재	중도 실청자 구화 사용자 등 모두
		농아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의 언어적 특성	청인

	언어를 배워요 (베이비 사인, Baby 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습득과 언어 발달과의 관계 • 수어와 학습과의 관계 ※농 자녀를 둔 청인 부모를 위한 수어교실	부모
농인 대상 심화 과정			
농 문화 와 농 정체성	농 문화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의 정의 • 농 문화 사례 • 해외의 농 문화 사례 	농인
	농 민속학 -농사회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로 전하는 농 역사 • 수어로 만나는 농 문화 • 농 유적지 탐방 	농인
	농 정체성- 농인답게 살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의 본질 • 농인의 자아실현 • 농인의 사회적 역할 ※ 농 정체성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상 정립	농인
	우리 함께 Think N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정체성의 이해와 실제 • 농 정체성과 사회 통합 • 다양한 문제해결과 농 정체성 ※ 농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사회통합을 위 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여행프로그램.	농청년 (20,30대)
한국수어 의 이해	수어문학: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시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다룸 	농인
	수어문학: 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수어낭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구연 방법 익히기 	
	수어문학: 유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유머를 보고 생각을 함께 공유함 	
	수어문학: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하기를 보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수어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연 스럽게 습득함 	농인
	나의 언어 바르게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어학을 기반으 로 한 이론 강의 	
	나의 언어의 옛 모습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수어의 역사성 살펴보기 • 농 어르신과의 대화 시간 	농청년
	나의 언어 깊게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적 표현을 비롯한 수어의 다양한 고급 표현을 익힘 	농청년

7.3. 세부사업 운영 계획

7.3.1 영역별 활동 운영 계획

영역1 농 문화와 농 정체성		
과정	활동명	비고
기본교육과정	① 농 문화의 이해 ② 농사회의 이해 ③ 농인은 누구인가 ④ 농 정체성	오프라인/온라인강좌 제공
특화교육과정	① 난 농인일까? 청인일까? ② 농 문화의 이해(심화 과정) ③ 농민속학 - 농사회 투어 ④ 농 정체성 - 농인답게 살아가기 ⑤ 우리함께 Think New	중도 실청 및 구화 사용자 등 농인 농인 농인(20대 이상) 농청년(20, 30대)

1. 목적

- 농 문화와 농 정체성 프로그램을 통해 농인이 독립적인 언어를 가지고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사회문화적’ 존재임을 인식한다.
- 농인 당사자들이 농 문화를 향유하고, 나아가 농 문화 전승과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청인 학습자들이 농인과 한국수어에 대해 이해하고 농인과 청인이 사회적·문화적·언어적으로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2. 기본방침

- 농 문화의 거시적·미시적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즉, 농인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농 문화를 비롯하여 수어와 시각적 표현의 특성이 반영된 농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함께 교육한다.
- 농 문화의 이론적 특징과 실제적인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농인의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농 당사자들의 농 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농 문화를 향유하며 농 문화 발전 및 농 세대 간의 문화 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 농인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 농 문화, 농 정체성, 농사회 등에 관한 개념을 실례를 통해 진행한다.
- 농인의 시각 중심의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사례 및 소감 발표를 통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최소 1회기 이상, 2시간 교육으로 실시한다.

3. 활동별 운영계획

1) 기본교육과정

활동명	산출목표/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농 문화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의 정의와 사례를 알 수 있다. -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농인을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는 농·청인 무관 - 온라인 강좌 시 수어 통역과 자막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사후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②농사회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회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농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지향할 바를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자들이 강사의 정보 (농/청)를 보고 선택 가능하도록 함 - 관련 시청각자료 활용 	
③농인은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강좌 상시 오픈: 한 강좌 당 최소 1시간~최대 2시간. - 오프라인 강좌: 1 강좌 당 2시간/ 월 1 강좌, 총 10강좌 개설 - 한국수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농사회, 농 문화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할 수 있음: 수어(얼굴)이름, 농인 등 - 농사회, 농 문화, 농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는 농·청인 무관 - 온라인 강좌 시 수어 통역, 자막 제공 -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자들이 강사의 정보 (농/청)를 보고 선택 가능하도록 함. - 강의는 이론과 사례를 함께 병행하도록 함. - 모든 핵심어휘(한국어, 수어)는 모든 강사가 함께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등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④ 농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강좌 상시 오픈: 한 강좌 당 최소 1시간~최대 2시간. - 오프라인 강좌: 1강좌 2시간 / 월 1강좌, 총 10강좌 개설.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정체성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농인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농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농 정체성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2) 특화 교육 과정

활동명	산출목표/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 난 농인일까? 청인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기: 1회기 3시간/ 분기별 1강좌, 총 4강좌 개설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언어로서 수어를 이해하고 음성언어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농 문화와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 농 정체성의 유형과 정의를 알고 자신의 농 정체성을 점검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는 농인, 청인 무관 - 단, 수어·음성·문자 통역을 적절히 제공할 것. - 학습자가 농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므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주입식 강의는 주의해야 함. - 강의 후 충분한 토론과 피드백을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 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② 농 문화의 이해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문화의 구성 요소와 특성 등을 이해한다. - 농인 당사자로서 농 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농 문화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농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 강사 - 농 문화의 이론적 내용과 실제적 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③ 농민속학 -농사회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농 문화를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강사의 조건: 농 정체성, 수어에 대한 	

	<p>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수어, 농사회, 농역사 등 농 문화의 변천을 이해한다. - 선배의 삶을 통해 농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 	<p>건강한 이해/ 농사회, 농교육의 경험 필수/ 장년 이상 층의 연령이 적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아동이나 농 청소년과 진행할 경우 부진행자가 수어의 전달 역할을 겸할 것 	
④ 농 정체성- 농인답게 살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강좌: 1강좌 3회기 / 1회기 3시간/ 분기별 1강좌, 총 4강좌 개설 - 농 정체성의 유형별 구체적 사례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 -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고, 언어적 소수자로서 당당한 삶을 위한 자존감을 갖는다. - 한국의 농 정체성 현황을 진단하고, 다른 농인들을 지지할 수 있다. - 참여자들 간의 자조 모임을 형성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강사 - 이론 강의를 병행하되 농 정체성이 개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것 - 참여자 간의 긍정적 역동이 일어나도록 참여자 중심의 토론, 경험 나눔을 유도할 것 - 자조 모임을 형성하고 다른 회기의 모임과도 연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 	<p>-만족도 조사</p> <p>-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p> <p>자아존중감, 농 정체성 유형 검사</p> <p>-설문조사보다는 인터뷰 형식의 평가를 수행</p>
⑤ 우리 함께 Think N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강좌: 1강좌 5회기 / 1~4회기: 각 2시간/ 5회기: 2박 3일 실습 - 사회통합의 현장에서 농 정체성을 실천할 수 있다. - 청인과의 관계, 일반사회에서의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 4회기 동안의 이론과 토론수업 후 5회기 차에서는 여행 형태로 실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기 동안의 이론과 토론수업 후 5회기 차를 여행 형태로 실습함 - 실제적인 농 정체성을 실험, 실천할 수 있도록 여행 실습 중에 다양한 과제와 상황을 제시함 - 5회기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은 전적으로 참여자들 중심으로 진행하며, 진행자(강사)는 이를 관찰하여 종결 시 참여자와 함께 평가함 	<p>-만족도 조사</p> <p>-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p> <p>-자아존중감, 농 정체성 유형 검사</p> <p>-설문조사보다는 인터뷰 형식의 평가를 추천함</p>

영역2 한국수어의 이해		
과정	활동명	비고
기본교육과정	① 언어로서의 수어 ② 수어 첫걸음 ③ 일상 생활 속 수어	전체교육은 오프라인/온라인강좌 제공
특화교육과정	① 언어로서의 수어(심화과정) ② 농인과 소통하는 생생한 수어 알기 ③ 수어로 책임기- 수어낭독회 ④ 나의 언어를 찾아서 ⑤ 농아기의 언어를 배워요 (베이비사인) ⑥ 수어문학: 시/산문/유머/이야기하기 ⑦ 나의 언어 바르게 알기 ⑧ 나의 언어 옛 모습 알기 ⑨ 나의 언어 깊게 알기	청인 대상 청인 대상 농인 전 연령 중도 실청, 구화 사용자 대상 청인 부모 농인 농인 농청년 농청년

1. 목적

- 한국수어 프로그램을 통해 수어를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이 아닌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언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어의 이론적 특성은 물론 수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인의 풍성한 언어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 청인 대상으로 수어를 보급함으로써 농인 및 수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농인(농인 가족 등)은 청인의 문화와 언어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세부 주제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방식과 대상에 차별화를 두어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언어로 인식하게 하며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본방침

-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제시한다.
-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수어 예문과 한국어 예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 의사소통수단뿐만 아니라 문학적 표현의 도구이기도 한 수어를 문학 작품 등 미적 기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 주제와 대상자에 따라 강의 전달 방식과 강의안을 별도로 구성한다.

3. 활동별 운영계획

1) 기본교육과정

활동명	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 언어로서의 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언어로서 한국수어를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수어 또는 음성언어와 수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청인 강사 팀티칭 - 온라인 강좌 시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자들이 강사의 정보(농/청)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함. -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안 개발을 사전에 완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② 수어 첫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수어를 안다. - 기초 수어를 통해 농인과 농 문화 등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농인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는 청·농인 무관 - 단, 농인 강사의 경우 청인 보조 강사의 수어통역 개입을 탄력적으로 함 - 대상 연령에 맞는 애니메이션과 이야기하기는 모든 강좌에 공통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조사 비교 조사 (연령에 맞게 평가방법 적용)
③ 일상 생활 속 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어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 일상에서 필요한 어휘를 익힐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함. - 상황별, 장소별, 연령별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조사 비교 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2) 특화교육과정

활동명	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 언어로서의 수어 -심화과정	- 수어의 언어적 특성, 구성요소, 문법적 특징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 주 강사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농인으로 함. - 수어교실이 아닌 수어의 언어적 접근에 초점을 두도록 할 것. - 참여자가 수어를 언어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교재를 개발할 것.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② 농인과 소통하는 생생한 수어 알기	- 한국수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수어의 구조와 문법적 특징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 다양한 문장 구조를 가진 긴 이야기를 수어 구조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주 강사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농인으로 함. - 생활 속에서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둘 것. - 하나의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수어 구조로 구성하여 이야기하는 훈련에 초점을 둘 것. - 생생한 수어를 익힐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 제작을 위해 다양한 소재의 교재를 개발할 것.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③ 수어로 책임기 - 수어낭독회	- 수어의 문학적 표현을 탐색하고 공유한다. - 한국수어의 예술적 기능을 이해한다. - 수어구연을 통해 문학작품을 이해한다. -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다.	- 수어구연이 수화통역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구연가는 농인/청인 무관하나 두 가지 언어의 문학적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농인 구연가의 경우 청인 통역사를 통해 거울 통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 회기마다 참여자가 내용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줄 것.	독서흥미도, 만족도 검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필요)
④ 나의	- 음성언어와 수어의 차이	- 수어의 언어성과 언어적 지	-만족도 조사

언어를 찾아서	<p>점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모어로서 수어를 인식한다. 	<p>위에 대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화로 소통하는 것과 수어로 소통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성할 것 	<p>-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p> <p>(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p>
⑤ 농아기의 언어를 배워요 (베이비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의 특성과 수어가 농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수어를 통한 언어발달의 과정을 이해한다. - 발화가 되기 이전의 청인아동과 부모의 소통수단으로 수어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기의 언어발달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것. -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언어학적·신경학적 근거들을 제시할 것. - 언어지연 및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 등 수어 습득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 담을 것. 	<p>-만족도 조사</p> <p>-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p> <p>(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p>
⑥ 수어문학 :시,산문,유머,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학적 기본 이론을 익힌다. - 수어를 통한 다양한 문학적 시도들을 접하고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룰 것 - 수어를 통한 언어 유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자와 강사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것 -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것 - 이야기하기의 경우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이야기하기 이후 강사는 참여자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할 것 	<p>-만족도 조사</p> <p>-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p> <p>(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p>
⑦~⑨ 나의 언어 바르게/ 옛 모습/ 깊게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를 모어로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이해한다. - 수어의 어원 및 역사적 변천에 대해 안다. - 한국수어의 풍부한 사용을 위하여 관용적 표현 등 다양한 고급 표현을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강사는 농인으로 하되 언어학강의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청인강사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 - 수어와 음성언어 간의 언어적 차이와 동등한 지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함. - 옛 모습 알기의 경우 농 어르신을 주 강사 혹은 보조강사로 섭외하여 수어의 변 	<p>-만족도 조사</p> <p>-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p> <p>(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p>

		<p>천사를 알고 수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p> <p>-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어 표현이 공유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것.</p>	
--	--	---	--

V.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1. 사업의 성격 및 목표
2. 참여 대상
3. 운영 형태(강사 주도/참여자 주도)
4. 운영 절차 및 방법
5. 주요 내용
6. 주요 성과
7. 운영 시 유의사항
8. 만족도 조사 결과

V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	-----------------------

1. 사업의 성격과 목표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어와 농인의 특성 및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농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농인과 언어로서의 한국 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2. 참여 대상

- 본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지역사회 청인들로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3. 운영 형태

- 단회기 프로그램은 농인 강사와 수어 초급자 또는 수어를 전혀 모르는 참여자의 만남이므로 강사 주도형으로 강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다소 분위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대상에 따라 게임을 통한 수어 익히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참여자 주도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 다회기 프로그램은 회기가 반복되면서 강사 주도와 학습자 주도형이 적절히 배합되어 운영되었다. 다회기 프로그램 중 농인 학생과 청인 학생이 함께하는 수어교육에서는 청인에게 농인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교환하는 참여자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무엇보다 언어교육의 최대 목표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이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사가 선택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4. 운영 절차 및 방법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교육을 희망하는 곳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수업으로 총 30회기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 기관의 성격, 참가자의 수어학습 유무, 연령 등으로 대상자 범주를 정하고, 하나의 유형에 집중되지 않도록 파견 기관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 본 프로그램이 찾아간 곳은 어린이집, 고등학교, 대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며 영유아,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공무원, 장애인 등 그 대상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 대상 기관이 결정되면 대상자 유형을 파악한 후 서울수화전문교육원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농인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하였다.
- 농인 강사는 사전에 구체적인 교육 목표에 대해 연구진과 공유한 후, 강의자료, 강의방법 등을 기획하였다.
- 학습자의 연령, 수어에 대한 배경지식 정도를 고려한 주제 및 교육방법으로 운영을 실시하였다.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모든 프로그램 진행은 농인 강사, 농인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청인 연구진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단, 다회기 프로그램에서는 수어 원어민 농인과 수어 교육 전문 청인 강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진행(서울도서관)하는 형태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진의 필요에 따라 수어통역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되기도 하였다.
- 단회기 프로그램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1회 최소 20분에서 최대 120분으로 운영되는 단기 행사성 홍보 프로그램으

로 총 10회 운영하였다.

- 다회기 프로그램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와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하는 수어교실’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각각 10회기로 진행, 구체적인 진행내용은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단기성 10회 프로그램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유아~성인 대상
10회기 프로그램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성인 대상
10회기 프로그램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청소년 대상 농·청인 청소년 합동 수업

-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 평가지와 진행자 평가를 통해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주요 내용

5.1. 단회기 프로그램

5.1.1. 운영 일정 및 주요 내용

- 본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 인원은 최소 4명부터 최대 75명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총 참여 누적인원은 청인 총 261명이다.

<표 V-2> 단학기 프로그램 주요 일정

순	일정 (시간)	기관	대상 (인원)	주요내용	강사
1	5/29(월) 10:00-11:30	동작구수어통역센터	지역주민 6명	농 체험	박재현
2	5/29(월) 17:00-18:00	연세대학교	대학생 58명	수어 동화 및 게임을 통한 수어에 대한 이해	김태욱
3	6/16(금) 11:00-11:20 (10:30-12:00)	강남대학교 해외 우수교육기관 연계 국제학술세미나	교수 대학생 (외국인) 75명	수어로 살아가는 농인의 삶	정원철
4	6/20(화) 10:30-11:00	해야해야어린이집	영유아 6,7세 30명	놀이를 통한 수어의 언어적 자극 활동	김민경 김주희
5	6/20(화) 13:00-13:30	동화나라어린이집	영유아 16명		
6	6/27(화) 18:00-20:00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지역주민 6명 (참관 2명)	농인의 이해와 수어	김명숙
7	6/28(수) 17:00-19:00	금천교육복지센터	직원 지역주민 4명 (참관 2명)	농인의 삶	황은진
8	7/20(목) 14:00-16:00	서울도서관	도서관 직원 11명	시각언어 수어 그리고 농 문화	손천식 엄미숙
9	9/29(금) 13:00-15:00	금천고등학교	고등학생 30명	농 문화의 이해	이재란 정원철
10	10/28(토) 10:00-12:00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자원봉사 자 25명	농 문화의 이해	박재현

5.1.2. 주요 내용 및 활동

- 프로그램 제목이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로 이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한국수어의 기초 이해’,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V-3> 단회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대상자 유형	주제	세부 내용
유아	놀이를 통한 수어의 언어적 자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별 특징과 인사법을 이용한 농인 나라와 수어 ‘안녕하세요’ - 수어 가위바위보를 이용한 동물 이름 맞추기 -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이용한 의사소통 게임 ‘파랑/분홍 주세요’
청소년	게임을 통한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스처로 전달한 어휘를 맞추는 ‘방 게임’을 통해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를 도움
대학생	수어로 살아가는 농인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외국에서의 농인의 직업생활을 비교한 영상 - 수어통역사의 통역 형태와 농인의 이해
	수어 동화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끼와 거북>과 같은 짧은 동화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게임을 통해 농인 체험과 인식 전환
성인	농인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생활에서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소통 - 누군가를 부르거나,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열쇠가 없는 청인 가족이 초인종을 누를 때, 화장실에 준비물이 없을 때 등등
청소년기 이상 성인 대상	농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에게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미지를 글로 작성 → 귀마개나 헤드폰을 이용한 ‘청각장애’ 체험 실시 → ‘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작성한 후 변화된 인식을 체험함.
	농 문화의 이해	- 시각언어의 형성 원리를 통한 간단한 수어 배우기

- 일반 지역사회 시민들이 한국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강의 위주가 아닌 공연과 게임을 포함하였으며, 참여자가 직·간접적으로 농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형태로 구성하였다.
- 이를 위해 강사진을 현재 농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농인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 참여대상에 따라 청인 연구진과 농인 강사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표 V-4〉 프로그램 강사진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10회기	박재현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농영화감독	
2회기	김태욱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송파구지부 청각장애인 통역사	
3회기	정원철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금천구지부 청각장애인 통역사	9회기 지원
4-5회기	김민경	소보사 반짝반짝 어린이집 교사	청인 보조 (김주희)
6회기	황은진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	
7회기	김명숙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	
8회기	손천식	목사	청인 보조 (엄미숙)
9회기	이재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	농인 보조 (정원철)

○ 주요 장면

	
<p>동작구수어통역센터</p>	<p>연세대학교</p>
	
<p>강남대학교</p>	<p>해야해야어린이집1</p>
	
<p>해야해야어린이집2</p>	<p>동화나라어린이집</p>
	
<p>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p>	<p>금천교육복지센터</p>



[그림 V-1] 단회기 프로그램 활동 모습

5.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운영

5.2.1. 운영 일정

- 일 정 : 6/21(수) ~ 8/23(수) 19:00-20:30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대 상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사전 신청자 20명
- 강 사 : 손천식(농)·엄미숙(청)
- 교 재 : 주교재 'The 쉽고, 재미있는 수화(김현철 외, 2010)'
- 연구진 지원
 - 관찰 및 수어통역 : 송미연
 - 촬영 : 황창호
- 서울도서관 지원 : 신명진 주임, 이현희 주임
- 주차별 지도 계획

<표 V-5> 다회기 프로그램 I의 주차별 지도계획

차 시	일시 참석인원	단원명	주요 내용
1	6/21(수) 20명	오리엔테이션 시각언어 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시각화하기 ▣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 이해하기 ▣ 농 문화1: 시각적 표현인 '있다, 없다'와 연관된 표현들
2	6/28(수) 18명	만나서 반가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과 청인이 만나 처음 인사하기 ▣ 지문자 학습: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 말하기 ▣ 농 문화2: 농인들의 수어 이름
3	7/5(수) 16명	자주 연락 나눠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숫자 학습 ▣ 나이와 휴대폰 번호를 묻고 대답하기 ▣ 농 문화3: 농인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
4	7/12(수) 15명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련 호칭과 어휘 표현하기 ▣ 나의 가족을 소개하기 ▣ 농 문화4: 농인이 부를 때, 농인을 부를 때의 행동양식 ▣ 농유머Quiz: 농인이 농친구의 집 찾기
5	7/19(수) 16명	서울 도서관을 소개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용시간(요일, 휴일, 오전, 오후) 표현하기 ▣ 각 층의 자료실 소개하기 ▣ 농 문화5: 농인 관련 영화와 CODA
6	7/26(수) 15명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대출과 반납에 대해 표현하기 ▣ 도서 종류와 장애인 자료실 이용 방법 알기 ▣ 농 문화6: 농인이 읽는 수어 영상 도서
7	8/2(수) 14명	무엇을 좋아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음식을 묻고 대답하기 ▣ 취미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 농 문화7: 수어통역사(청인, 농인), 수화통역사 시험 ▣ 농유머Quiz: 농인이 죽을 때 가져가고 싶은 것
8	8/9(수) 14명	머리가 아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픈 부위와 아픈 증상에 대해 말하기 ▣ 병원 관련 기본 어휘 학습하기 ▣ 농 문화8: 농인과 예술(미술계, 연극계, 음악계, 무용계 등) ▣ 농유머Quiz: 농인과 청인의 서로 다른 똥
9	8/16(수) 13명	수어실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문 5가지 중 한 가지 표현하기(발표) ▣ 농 문화 10가지 중 한 가지 표현하기(발표) ▣ 수어로 제시되는 문제를 한국어로 쓰기(지필) ▣ 농 문화9: 보청기와 인공와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	8/23(수) 13명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input type="checkbox"/> 여러 가지 교통수단 말하기 <input type="checkbox"/> 출발지와 도착지 등 장소 말하기 <input type="checkbox"/> 수료식
----	----------------	-----------------	---

5.2.2. 주요 내용 및 활동 모습

- 수업 내용은 크게 ‘농사회와 농 문화의 이해’, ‘수어의 언어적 특징’, ‘수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어휘와 회화 학습’의 세 가지 틀에서 진행되었다.
- ‘농사회와 농 문화의 이해’에 관한 주요 내용
 - 수어 이름, 농인의 통신수단, 농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행동양식, 유머 ‘농인의 농인 친구집 찾아가기’에 관한 퀴즈, 농인 관련 영화와 코다, 농인이 읽는 수어 영상 도서, 수화통역사 제도, 농인 예술 활동,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을 통해 농인이 사회를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핵심 현안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루어졌다.
 - 농사회와 농 문화의 이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청인 선생님이 진행하였고, 각 영역에서 농인의 직접적인 경험 등에 관한 보충이 필요할 때는 농인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 ‘수어의 언어적 특징’에 관한 주요 내용
 - 첫 번째 수업에서는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시각화해 보기’를 통하여 학습자 개인의 머릿속 이미지와 손의 모양, 손의 움직임, 손의 방향 등의 쓰임에 대한 직관을 학습하였고, 이를 통해 수어의 조어 특징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 ‘있다’와 ‘없다’, ‘괜찮다’ 등의 수어 활용을 통해 국어에 귀속된 언어가 아닌 수어가 하나의 독립된 언어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 ‘수어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어휘와 회화 학습’

- ‘인사, 자기소개, 가족소개, 도서관 이용방법과 도서대출,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 아픈 부위와 증상’을 주제로 한 어휘와 회화문을 학습한 후 실제로 역할을 나누어 대화 연습을 하였다.
- 8차시까지 배운 수어를 토대로 2명씩 짝을 지어 사전에 연습한 대화문을 실습하기, 농인의 수어문을 보고 받아쓰기와 학습한 농 문화를 학습자가 설명하기 등의 3가지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화문 실습은 의미의 정확성, 유창성, 비수지신호(NMS)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마지막 시간에는 교통 수단 이용에 관한 수어 표현을 학습한 후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수료평가를 통해 4명의 참가자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총 15명의 참가자가 수료하였다.

○ 주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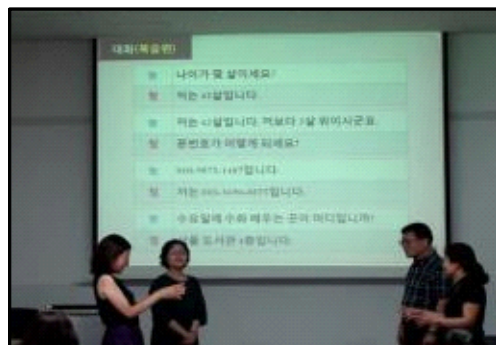
‘시각언어 수어의 특징 이해하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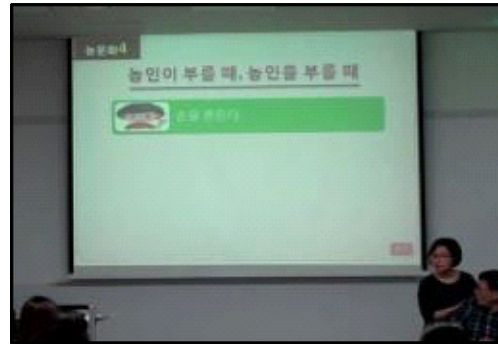
‘매 주차 동기유발을 위한 반복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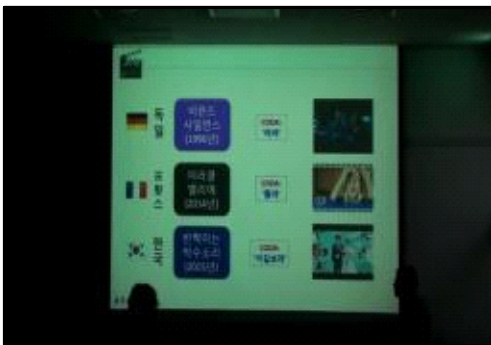
‘대화실습을 통한 반복학습’



‘강사의 표현력에 동화되다’
원어민과 모어 강사의 합동수업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농인’
실제 사례를 통한 전달 학습



‘농 문화5: 농인 관련 영화와 CODA’



수어 퀴즈를 통한 농 유머 소개

[그림 V-2] 다회기 프로그램 I의 주요 활동

5.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5.3.1. 운영 일정

- 일 정 : 6/15(목) ~ 11/9(목) 14:00-16:00
- 장 소 :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교실 및 산책로
- 대 상 : 대안학교 학생 15명
 -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농학생 5명
 - 재미난아이들 대안학교 청인학생 10명
- 강 사 : 정우현(농)
 - 보조강사 : 유현주(농), 박상욱(농)
- 교 재 : 없음

- 연구진 지원
 - 관찰 및 수어통역 : 김주희
- 참관인 : 재미난아이들 대안학교 청인 교사 2명
- 주차별 지도계획

<표 V-6> 다회기 프로그램Ⅱ의 주차별 지도계획

차 시	일시 참석인원	단원명	주요 내용
1	6/15(목) 13명	오리엔테이션	<input type="checkbox"/> 자기소개, 규칙 정하기 <input type="checkbox"/> ‘농인은 누구일까?’ <input type="checkbox"/> ‘수어란 무엇일까?’
2	6/22(목) 13명	내가 좋아하는 음식	<input type="checkbox"/> 언어교환(수어/글 배우기) : 음식 <input type="checkbox"/>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조별 게임
3	6/29(목) 13명	학교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언어교환	<input type="checkbox"/> (수어/글 배우기) : 공간, 별, 다양한 명사들 <input type="checkbox"/>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빙고 게임
4	7/6(목) 13명	옛날이야기 수어배우기	<input type="checkbox"/> 토끼와 거북이, 아기돼지 삼형제 <input type="checkbox"/> 놀이 - 수어구연 보고 이야기 맞추기
5	7/13(목) 13명	너의 생일은? 너의 나이는?	<input type="checkbox"/> 언어교환(수어/글 배우기) : 지숫자 <input type="checkbox"/> 놀이 - 생일 맞추기, 3.6.9
6	9/21(목) 13명	어떤 맛일까?	<input type="checkbox"/> 과자각테일 맛보고 맛에 관한 수어 익히기 (놀이를 설명할 때에만 통역 실시)
7	9/28(목) 13명	다 같이 놀자	<input type="checkbox"/> 공원에서 놀기 <input type="checkbox"/> 수어배우기 - 운동 / 요리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놀이 - 5인조 스피드 퀴즈 / 빙고 (놀이를 설명할 때에만 통역 있음)
8	10/12(목) 13명	릴레이 동화	<input type="checkbox"/> 아기돼지 삼형제, 금도끼은도끼 등 동화를 릴레이로 구연하기(조별로 농교사 배치)
9	10/19(목) 13명	함께 걷기	<input type="checkbox"/> 둘레길 걷기 / 언어교환(수어/글 배우기) - 자연(주의사항 전달시에만 통역 실시)
10	11/9(목) 13명	종결 파티	<input type="checkbox"/> 다르지만 같은 우리! 함께 가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식 진단 조사 <input type="checkbox"/> 청인에 대한 인식 조사

5.3.2. 주요 내용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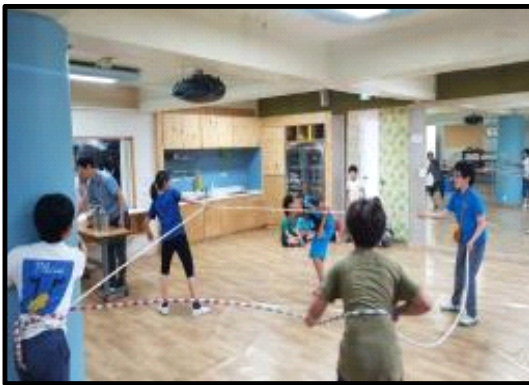
- 본 활동의 1차 목적은 청인 초등학생의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 수어 및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립이며, 농인과 수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며, 농학생들의 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인 사회로의 긍정적 사회통합을 2차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주강사는 농인 1명이나 보조강사로 농인 3명, 수어통역 및 진행으로 김주희 연구원이 함께 하였다.
- 10회기 활동은 모두 수어로 진행하되, 수어 및 농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활동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들은 수어통역이 진행되었다.
- 수업방식은 ‘놀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언어교육에서도 연령이 어린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식으로 검증되었다. 주요 활동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7> 다회기 프로그램Ⅱ의 주요 활동 및 내용

주요 활동	세부내용	수업의 주된 내용 및 관련 차시
농인과 수어의 이해	만남 및 체험을 통한 농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체득하기	<p><u>1차시: 오리엔테이션 (1차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규칙 정하기 • ‘농인은 누구일까?’ • ‘수어란 무엇일까?’ <p><u>놀이를 통해 농 문화 익히기</u></p> <p>5차시: 너의 생일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교환 (수어/글 배우기) : 지숫자 • 놀이 - 생일 맞추기, 3.6.9 <p>7차시: 다 같이 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에서 놀기 • 수어배우기 - 운동 / 요리의 종류 • 놀이 - 5인조 스피드 퀴즈 / 빙고 <p>9차시: 함께 걷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레길 걷기 언어교환 (수어/글 배우기) - 자연
수어의 시각적 특성 : 주변의 물건을 활용	문화/언어 상호 교환을 통한 수어 익히기	<u>수어의 시각적 특성이 강조된 어휘학습</u> 2차시: 내가 좋아하는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교환 (수어/글 배우기) : 음식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조별 게임 3차시: 학교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글 배우기) : 공간, 별, 다양한 명사들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빙고 게임 6차시: 어떤 맛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자카테일 맛보고 맛에 관한 수어 익히기
수어의 언어적 특성 : 수어이야기	동화 수어구연을 통해 수어 익히기	4차시: 옛날이야기 수어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끼와 거북이, 아기돼지 삼형제 •놀이 - 수어구연 보고 이야기 맞추기 8차시: 동화 릴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기돼지 삼형제, 금도끼은도끼 등 동화를 릴레이로 구연하기

○ 주요 활동



1주차(6/15) 오리엔테이션



2주차(6/22) 내가 좋아하는 음식



3주차(6/29) 학교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5주차(7/13) 생일 맞추기, 지숫자 학습



4주차(7/6) 수어구연 보고 이야기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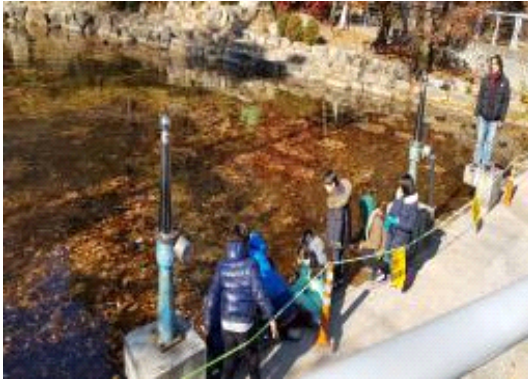
6주차(9/21) 어떤 맛일까?



7주차 (9/28) 다 같이 놀자. (5인조 스피드퀴즈)



8주차 10/12(목) 릴레이 동화



9주차(10/19) 함께 걷기



10주차 (11/9) 종결파티

[그림 V-3] 다회기 프로그램 II 활동 모습

6. 주요 성과

6.1. 단회기 프로그램

- 참여 대상은 크게 수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초교육 등을 경험한 경우와 사전에 전혀 수어나 농인을 접해본 적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어 교육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 대체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수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으며, 사전에 수어나 농인을 접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농인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와 참여형 활동을 통해 농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냈다.

- 단회기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수어와 농인에 대한 관심 확대와 수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효과가 있었다.
- 따라서 학습자가 농 문화와 수어를 학습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어교육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학습자의 참여 동기, 대상자의 연령, 강사의 강의 목표, 현장의 분위기 등에 의해 프로그램을 달리 진행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인 경우 학습 동기가 낮은 참여자가 많이 분포하였음. 이 경우 몸으로 하는 게임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음.
-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 대상이 유아이므로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진행자 및 관찰자의 관찰에 의한 성과임.
 - 아동의 반응에서 ‘수어’를 병리학적인 장애 개념과 연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인식하고 놀이로 접근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6.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 생활 중심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농사회와 농 문화에 관한 내용을 교육목표와 평가요소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수어문화학교에서 운영될 중장기 수어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 학습자는 수어를 어휘나 문장을 번역하는 형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 문화와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농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 농인 자신의 모어인 수어 사용자이면서 언어학적 교수 경험이 풍부한 농인과 청인 강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수어와 농 문화의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
 - 수어의 시각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수어소를 배우며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함.

- 청인 강사의 설명과 농인 강사의 시연 강연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동적 보는 학습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 학습으로 유도함.
- 강의 초기에는 수어에 대한 다년 간의 언어학적 강의 경험을 지닌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에 의해 교수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직접적인 교수방법으로 지도하였다. 강의 중·후반부에는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의사소통 교수법을 통해 상호작용 촉진과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 평가 요소에 기존 수어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받아쓰기뿐 아니라 수행능력 평가, 농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함으로써 수업 목표에 대한 학습자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갖게 되었다.

6.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 건강한 사회통합, 즉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가 아닌 양측의 문화를 대등한 관계로 보고 서로의 차이를 ‘다름’으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사회통합의 좋은 모델을 발견하였다.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농인을 인식하는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농인을 인식하고 수어를 온전한 언어로 받아들이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강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참여자 중심의 수업, 놀이를 통한 수어학습, 청인에게 농인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로가 문화와 언어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7. 시사점

7.1. 단회기 프로그램

- 농인 강사진의 주도적인 역할
 - 평소 농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던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농인 강사는 농인을 만나는 첫 경험이자 농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농인 강사는 한국수어 원어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1회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이를 참여자들에게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 농인이 강사를 하게 되는 경우 참여자들은 농인을 시혜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청인과 동등한 존재로 보고, 나아가 수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수어를 언어로, 농인을 언어를 가진 자주적인 존재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음성통역의 필요성과 청인 강사진의 역할
 -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소개와 농인 강사에 대한 소개 등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있어 청인 강사진의 보조가 요구된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90% 이상 농인 강사진의 강의가 가능하였으나, 영유아와 청소년의 경우 음성통역을 하는 보조자로서의 청인 강사가 부족하여 청인 강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인 유아동들은 긴 시간 시각언어만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리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다. 단, 수어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적절하게 음성통역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에 대한 저변 확대가 목표인 만큼 연령대를 다양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

-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높다(유아, 초등학생).
 - 단회기 프로그램을 통한 수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로 즉각적인 수어교육과 연계됨으로써 저변 확대의 효과가 높다(청소년기 이상부터 성인).
- 대상자에 따라 수업 시간과 내용을 다양화하여 계획안을 구성
-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20분 내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놀이 중심의 수업내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 청소년기 이상 성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동기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청각적으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 체험 위주의 활동
- 농 문화 체험을 위해 1회기에는 귀마개를, 10회기에는 귀마개와 헤드셋을 동시에 착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잠시 동안이지만 농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수어를 바디보디랭귀지가 아닌 ‘언어’로서 이해하도록 하되 재미있는 놀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농인과 수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의식보다 놀이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스런 접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수어를 제스처가 아닌 ‘언어’로서 이해하는 학습내용 요소포함
- 의무교육 형태로 참여하여 동기가 낮은 참여자의 경우 몸으로 어휘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게임’에서 흥미를 보이며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가 제스처의 일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식 개선용 프로그램이더라도 수어의 언어학적인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7.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전제
 -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10회기 수업의 만족도 조사 및 참여자 인식 분석에서 학습자의 50%가 이미 수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그에 반해 소수의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수어 교육 실시기관(한국농아인협회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수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울도서관과 같은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에서의 수어교육 실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프로그램 확대
 - 농인 강사는 원어민으로서의 수어 표현력과 비수지신호 전달,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를, 청인 강사는 수어의 언어적 특성과 농 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를 전달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특히, 청인 강사의 설명에 덧붙여진 농인 강사의 에피소드가 농·청 콤비조합 강사의 전달력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강한 동기 유발의 효과를 가져왔다.
 - 1회 차 수업에서 제시된 시각화 수업에서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제시된 그림을 보고 그림을 모방한 동작을 농인 강사가 확인한 후 농인 강사가 직접 동작을 시연해 보여주면 청인 강사는 수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음성언어로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시켰다.

- 최적의 교수방법 및 내용 적용
 -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효과적인 수어교육을 위해서 수어가 반영하는 농사회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매 회기마다 농사회에서 두드러진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어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

- 가장 큰 반응을 보인 농사회, 농 문화 요소는 ‘농인’이라는 호칭, ‘청각장애인 통역사(농통역사)’의 역할, 농 관련 영화 및 영화에 등장하는 농부모의 자녀 ‘코다’, 농 유머를 통해 듣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해학적으로 풀어낸 농인의 삶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 수어교육에서 농·청인 강사의 단 1회의 시각화 수업에서도 음성언어를 배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성인 참가자들이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어의 조어방법 및 공간에 대한 인식을 돕는 것은 청인 강사의 언어적 설명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까지 전달하기에는 10회기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랐다. 문법적인 요소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인적인 노력과 다양한 수어교육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기존 수어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수준(초급, 중급, 고급)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가자 인식의 변화

-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넘는 참가자들이 수어를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10회기의 짧은 수업이었고 실제 회화에 사용하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수어의 언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농인을 청인과는 다른 언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향후 실제 운영 시 고려해야 될 내용

- 농·청인 강사의 공동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농인 강사 중심 체제로 운영할지에 따라 진행 방법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 농·청인 강사 공동체제로 운영할 때, 청인 강사가 농 문화를 설명하는 동안 농인 강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수어통역사의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 농인 강사 중심 체제로 운영할 때는 수어통역사의 음성통역이 적재

적소에 가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이 필요하며, 강의에 투입되는 수어통역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농인 강사의 이미지가 농인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강사의 기본적인 자질이기는 하나, 농인 강사 출강 시 특히 단정한 외모에 유의해야 하겠다.
-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최적의 전문 강사가 투입될 수 있었으나,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의 언어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전문 강사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어교원 양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강사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수어교재는 교수방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수어교재의 92.6%가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어의 언어적 기능을 제시하기보다는 한국어 단어나 문장을 제시해 놓은 수어 어휘에 편중된 교재가 대부분(이희선, 2005)이다. 최근 언어학적 지식과 농 문화를 겸비한 교재들이 간헐적으로 출판되고 있지만, 대상자와 연령 및 수업 목표에 맞게 구성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7.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 농인과 청인 학생의 적절한 비율로 구성
 - 농인과 청인의 수가 비슷할 경우 문화, 언어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농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청인 학생 수가 우세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업을 주도하는 언어에 의해 학생들의 역동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 가능한 농인 당사자가 수업을 수어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 초등학생 대상의 수어수업이 놀이방식으로 진행될 때 효과적임
 -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방식이 효과적이다.
 - 또한 놀이는 장애 유무, 의사소통의 한계를 뛰어넘어 또래집단이 쉽게 친밀해질 수 있는 요소이다.
 - 따라서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실에는 적합한 방식이다.
- 놀이 학습 설계 시 유의점
 - 한국어(한글)나 청각 기능 활용을 전제하는 놀이는 배제한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한다.
 - 청각장애가 인지장애로 오해받지 않도록 한쪽 언어에 치우쳐 놀이가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다만, 언어 교류가 주된 시간일 경우 농인은 수어를, 청인은 한국어(한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로의 언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놀이의 설명이나 피드백은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진행은 농인이, 청인의 통역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개입
 - 수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음성통역의 양을 조율해야 한다.
 - 첫 수업은 수어의 시각화를 강조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는 수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언어를 배제한 환경이 효과적이므로 음성통역이 없이 수어로만 진행한다.
 - 반면 수업의 방식이 사전에 잘 설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통역을 병행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청각 자극을 최소화하고 시각적인 활동을 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구화 사용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 언어교류를 하는 동안은 구화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언어교류를 하는 시간에 구화를 사용할 경우 수어가 음성언어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무엇보다 구화를 사용하지 않는 농학생의 참여가 소극적이 될 수 있다.
 - 청인 참여자 역시 구화가 가능한 이들에게 의존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8. 만족도 조사결과

8.1. 단회기 프로그램

- 각 회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각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을 질문하였으며, 만족도는 ‘충분한 정보 제공’, ‘장소의 쾌적성’, ‘프로그램의 수준’, ‘운영의 충실도’, ‘강사의 전달력’, ‘타인에게 추천 여부’, ‘전반적 만족도’ 등 크게 7가지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익했거나 좋은 점’,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 ‘소감이나 기타의견’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 그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4회기와 5회기를 제외한 총 8차례의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8> 인구학적 특성과 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	215	1.00	2.00	1.6651	.47305
연령	213	15.00	67.00	22.4272	8.24682
충분한 정보 제공	215	2.00	5.00	4.4233	.62832
장소의 쾌적성	215	2.00	5.00	4.4651	.61708
프로그램의 수준	215	2.00	5.00	4.4791	.66857
운영의 충실도	215	3.00	5.00	4.5442	.58538
강사의 전달력	215	2.00	5.00	4.5767	.62832
타인에게 추천 여부	215	2.00	5.00	4.5581	.64498
전반적 만족도	215	2.00	5.00	4.5256	.62506

<표 V-9> 각 회기별 참여자 성별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1회기	2	4	6
2회기	34	24	58
3회기	14	61	75
6회기	0	6	6
7회기	0	4	4
8회기	2	9	11
9회기	11	19	30
10회기	9	16	25
합계	72	143	215

<표 V-10> 각 회기별 참여자 연령대

구분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회기	0	2	1	0	2	1	6
2회기	7	51	0	0	0	0	58
3회기	28	46	0	1	0	0	75
6회기	0	5	0	0	1	0	6
7회기	0	1	1	1	1	0	4
8회기	1	2	3	3	2	0	11
9회기	30	0	0	0	0	0	30
10회기	18	3	0	1	1	0	25
합계	84	110	5	6	7	1	215

<표 V-11> 만족도 1 - 충분한 정보 제공

구분	충분한 정보 제공				전체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1	2	3	6
2회기	0	4	18	36	58
3회기	2	5	53	15	75
6회기	0	0	1	5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3	8	11
9회기	0	0	8	22	30
10회기	0	0	13	12	25
합계	2	10	98	105	215

<표 V-12> 만족도 2 - 장소의 쾌적성

구분	장소의 쾌적성				전체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0	3	3	6
2회기	1	4	16	37	58
3회기	0	4	45	26	75
6회기	0	0	3	3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4	7	11
9회기	0	0	11	19	30
10회기	0	3	8	14	25
합계	1	11	90	113	215

<표 V-13> 만족도 3 - 프로그램의 수준

구분	프로그램의 수준				전체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1	1	2	2	6
2회기	0	1	13	44	58
3회기	1	8	41	25	75
6회기	0	0	1	5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3	8	11
9회기	1	0	10	19	30
10회기	0	2	9	14	25
합계	3	12	79	121	215

<표 V-14> 만족도 4 - 운영의 충실도

구분	운영의 충실도			전체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1	3	2	6
2회기	1	9	48	58
3회기	8	44	23	75
6회기	0	1	5	6
7회기	0	0	4	4
8회기	0	1	10	11
9회기	0	11	19	30
10회기	0	9	16	25
합계	10	78	127	215

<표 V-15> 만족도 5 - 강사의 전달력

구분	강사의 전달력				전체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2	1	3	6
2회기	0	1	7	50	58
3회기	1	9	37	28	75
6회기	0	0	0	6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1	10	11
9회기	0	0	9	21	30
10회기	0	1	7	17	25
합계	1	13	62	139	215

<표 V-15> 만족도 6 - 타인에게 추천 여부

구분	타인에게 추천 여부				전체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2	0	4	6
2회기	0	2	5	51	58
3회기	1	10	38	26	75
6회기	0	0	0	6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1	10	11
9회기	0	0	10	20	30
10회기	0	1	8	16	25
합계	1	15	62	137	215

<표 V-16> 만족도 7 - 전반적 만족도

구분	전반적 만족도				전체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1	2	3	6
2회기	0	2	8	48	58
3회기	1	8	42	24	75
6회기	0	0	0	6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3	8	11
9회기	0	1	9	20	30
10회기	0	0	11	14	25
합계	1	12	75	127	215

- 한편, 1회기부터 10회기 참여자들이 응답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그렇다’ 75명(34.9%), ‘매우 그렇다’ 127명(59.1%)으로 전체 참여자의 94%가 프로그램 참여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7> 1~10회기 전반적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지 않다	1	.5
보통	12	5.5
그렇다	75	34.9
매우 그렇다	127	59.1
합계	215	100.0

-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 ‘가장 유익했거나 좋은 점’,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 ‘소감이나 기타의견’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V-18> 가장 유익했거나 좋은 점

- 강사님의 풍부한 표현에 감탄했습니다.
- 게임 진행.
- 그냥 만족스럽다.
- 그동안 몰랐던 농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내용이 쉽고 알찬 강의였으며 원어민 선생님의 표정 연기가 유쾌하였습니다.
- 농 문화 소개, 농인에 대해 궁금한 점 해소.
- 농 문화란 어떤 것인지, 실제 농인은 수어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농 문화를 알게 되었다. 농인의 수어를 직접 본 점!
- 농 문화에 대한 내용.
- 농 문화에 대해 더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장벽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농 문화에 대해 새로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농 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2)
- 농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
- 농아인의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농아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것, 농아인이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쓰고 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
- 농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 농인 강사분의 마임 강의.
- 농인 문화 이해.
- 농인과 소통할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 농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 농인들의 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수어를 배우니 이해가 더 잘 됐어요.

- 농인들의 유머코드, 농인에 대한 이해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 농인에 대한 나의 인식을 체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됨.
- 농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마음이 활짝 열린 점, 그간 헤아리지 못하고 곁을 주지 못한 점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2)
- 농인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 농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농인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다.
- 농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농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기뻐다.
- 농인에 대해 지루하지 않게 흥미 있는 자료들로 이야기해준 것이 좋았다.
- 농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 농인으로부터 직접 수어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농인으로부터 직접 수어를 배워서 좋았다. 좋은 경험이었다.
- 농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다.
- 농인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점.
- 농인을 처음 만나본 것, 그를 통해 농 문화에 대해 더 생생히 알 수 있게 됨.
- 농인을 처음 만났는데 참 좋았어요.
- 농인의 발표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농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것.
- 농인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시선들을 볼 수 있어서 더 와 닿았습니다.
- 농인이 수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좋았다.
- 농인이 직접 강의하시는 걸 보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농인이 직접 만든 영화는 처음 접해봐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 농체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았다. 이런 체험은 처음 해보았다.
- 다!
- 동화가 재미있었다.
- 릴레이 퀴즈.
- 마임이 재미있었다. (2)
- 마지막 질문타임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었다.
- 모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수업의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 몰랐던 농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기회라 흥미로웠다.
-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
- 몸으로 말해요.

- 발표하시는 분이 아주 큰 동작으로 웃으시면서 진행해나가셔서 집중이 잘 되었다.
-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새로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생각보다 농인이 많다는 것, 그리고 수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 생동감 넘치는 몸짓이 좋았어요!
-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을 칠판에 적는 것 -> 칠판에 적으면서 소통하는 수업.
- 선생님이 귀엽다.
- 세계적 공용수어가 필요하다는 점, 청각장애에 대한 나아진 인식과 관심.
- 소통을 배운다!
- 수어를 배우는 자세를 바꾸는 방법을 깨달음, 청인과 농인의 완전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배려가 필요함.
- 수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수어에 대하여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점.
- 수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의 시간.
- 수어의 가치, 농인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 수어 배우기.
- 수어게임.
- 수어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게 좋았다.
- 수어를 많이 알게 되었다.
- 수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작을 크고 확실하게 해주셔서 좋았다. 내용 구성이 '이야기+게임+좋은 말씀+질문'이라서 알차고 좋았다.
- 수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강의가 충분히 전달력이 있어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다.
- 수어를 잘 못하는데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 수어를 재미있게 배웠다. (2)
- 수어를 즐겁고 친숙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수어를 처음 접해봤다.
- 수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단순히 수업이라서 들은 건데 배우게 되는 목표와 이유가 분명해진 것 같다.
- 수어에 대해 배우고 싶어졌다.
- 수어에 대해 알게 된 것. (2)
- 수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수어통역이 없고, 직접 농인의 입장이 되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농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직접 강사님께서 피드백해주신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 쉽고 재미있었다.
- 스피드 퀴즈.

- 실제 농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게임도 해보니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 실제 농인을 만나서 좋았다. (2)
- 실제 농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어서 좋았음.
- 실제 농인의 표현을 볼 수 있었고, 재미있게 표현해주셔서 좋았다.
- 실제로 농인이 수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실제로 처음으로 농인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생동감 넘치는 수어를 볼 수 있었다.
- 영상으로 보여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영상이 재미있어서 집중되었다.
- 영화가 재미있었다. (2)
- 완전 새로운 언어인 수어를 배워서 유익했습니다.
- 외국의 농인들은 취업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나라가 개선이 많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농인의 발표를 처음 접했는데 전달에 문제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 이론이 아닌 체험 중심, 헤드셋과 귀마개까지 준비해주셨던 것, 친절한 강의.
-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 (2)
-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 잘 몰랐던 농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잠깐이지만 직접 농인들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전과 다르게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짧은 영상도 보여주셔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재미있었다.
- 재미있게 수업한 것 같다.
- 재미있고 신기했다.
- 적극적인 참여.
- 지문자 사용법이 좋았습니다.
- 지문자, 농 문화 알기.
- 지문자, 농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접 농인 체험을 하고 강사님께서 몸짓, 표정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수어를 잘 모름에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직접 농인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직접 농인을 만나 수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청인이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을 접한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 직접 농인의 수어를 접해보니 수어가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 다시금 느껴졌다.
- 직접 영화까지 제작해 보여주시는 게 좋았다.
-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책에서 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농인이 즐겁게 강연하는 걸 보니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
- 처음, 중간, 끝에 자신의 생각을 써 가면서 인식개선이 되는 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점.
- 처음으로 농인을 접하게 되어 신기했다.
-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영화.
- 청각장애에 대한 지식 습득.
- 청각장애인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2)
-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수어를 알게 되어 좋았고, 재미있었다.
- 초급수어만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통역이 적절하게 이뤄졌고 참여적인 프로그램도 좋았다.
- 평소 알지 못했던 농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 평소에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때 수어를 전혀 몰라 걱정했는데 기초수어를 배워 기쁘다.
-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농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표정과 표현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평소에 몰랐던 농 문화를 알게 되었다.
-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 들으면 표정 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표현으로 알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농인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한국의 농 문화와 그것을 풍자한 재치가 돋보였다.
- 헤드셋 & 귀마개를 활용한 농인 체험.
- 헤드셋을 착용하고 농체험을 한 것.

<표 V-19>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

- 3중 통역을 했는데 텀을 가지고시간 차를 두고 각자 말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함.
- PPT 화면.
- 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음.
- 농인 강사와 통역사가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시선이 학생들을 향해서 농인 강사의 수어를 통역사가 못 보는 경우가 있었다.
- 농인 한 분이 너무 고생하셔서 두 명 정도의 강사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깔끔한 내용 전달.

- 도입 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어다보니 전달이 좀 어려웠던 것 같다.
- 뒷자리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ㅠ
- 마이크가 조금 더 잘 들리면 좋겠습니다.
- 마이크를 관객에게 주면 좋겠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 수어통역을 영어로 이중으로 해석하는 게 부족해 보였음.
- 수어->한국어->영어 통역이 많이 번거로워 보였다.
-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습니다.
- 시간이 아쉬웠습니다(여러 번).
- 아무래도 수어, 한국어, 영어를 3명이 동시통역하다보니 통역이 꼬이는 경우도 있었다.
- 앞사람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
- 없음. (46)
- 원활한 통역의 필요성.
- 자주 있었으면...
- 장소.
- 조금 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
- 조금 더 어렵게 했으면 좋겠다(난이도).
-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 좀 더 많은 시간 필요.
- 좀 더 시간이 길어도 좋을 것 같다.
-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 질문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 통역. (2)
- 통역사분께서 강사분의 수어를 자주 못 보셨다.
- 통역사분이 학생들 말고 계속 농인을 보면서 통역해주셨으면 좋겠다.
- 통역이 좀 더 정확하게 되었으면 더 이해하기 쉬었을 것 같습니다.
- 통역자 간 미리 대본, 교육내용을 제공받았다면 신속한 통역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 통역전달이 잘 안되었다.
- 통역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보다 천천히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헤드셋이랑 귀마개가 너무 아팠어요.ㅠㅠ

<표 V-20> 소감이나 기타의견

- good!
- 간단한 수어 노래에 맞춰 1곡 정도 시작이나 끝에 넣으면 좋을듯!

- 감사합니다! (2)
-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 강사님이 멋있으세요!
- 강사분이 너무 재미있으세요.
- 강사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 고마워요!!
- 귀를 막으니깐 약간 졸리다.
- 그동안 해왔던 말들 중에 나도 모르게 차별된 말을 사용해왔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차별된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 김태욱 선생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유익했어요!
- 김태욱씨를 직접 봐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
- 농 문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농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다.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 농인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 농인들에게 더 관심 가지고 미래에 취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교육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인분들과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인에 대한 이해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열혈강의 감사합니다.
- 농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 잊지 않겠습니다.
- 다양한 농 문화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 다음에는 통역하시는 분이 바로 영어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땀 흘리면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몇 십 명의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다는 건 멋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사례가 있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 새로운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수어 부족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아쉽다
- 수어를 배우게 되어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 수어와 농 문화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수어에 대해 농인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인 강의를 통해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 앞으로 이러한 특강이나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꼭 열심히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인을 보게 된다면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즐겁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영화 뿐 아니라 강의도 재미있어서 농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신 것 같습니다.
- 오늘 같은 방식의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유익한 시간이었다. (3)
- 이런 배움의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 이렇게 특별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 재미있었습니다! (5)
- 재미있게 농 문화를 알게 되어 좋습니다.
- 재미있었고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재미있었습니다. Good!
- 재미있었어요!
- 재미있었어요^^
- 정말 감사합니다.
-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좀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좀더 학생들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 좋았다.
- 좋은 경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즐겁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즐겁고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 지금 그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 직접 그룹으로 이야기도 만들어볼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이라 더욱 즐거웠습니다.
- 체험과 강의를 통해 농인에 대해 전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초반에 배경, 문화 등을 들을 때는 살짝 지루했지만 지문자 들으면서는 신기하고 좋았

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전달력도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 최고!

8.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참여자 만족도

○ 참여자의 중간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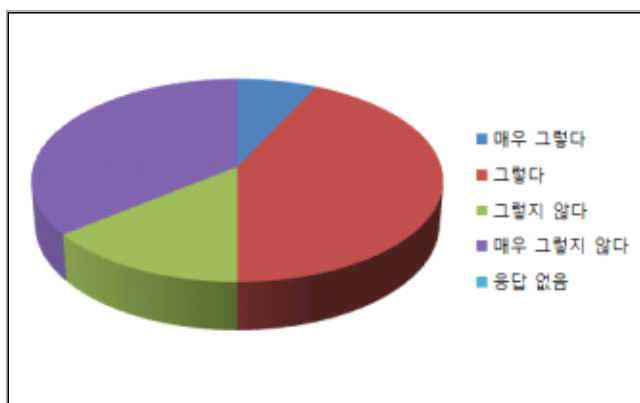
구분	학생 답변	핵심어
수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에 대한 전무한 지식 • 새로운 언어와의 만남 • 지인의 수어 학습으로 간접 경험 •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 • 한겨레신문 다큐 ‘반짝이는 박수소리’ 제작자 이길보라 감독의 칼럼 • TV 뉴스의 수어통역방송 대중화 • 2017년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의 수어통역 목격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에서의 농인의 소리 없는 대화 • 언어 호기심으로 독학 경험 • 지역 종교기관에서의 설교 수어통역 목격 	<p>낮선 언어 미디어를 통한 접촉 경험 대중교통 또는 거리에서 대화하는 농인</p>
강사의 긍정적인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 • 밝은 분위기로 리더 •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진행으로 능동적 참여 • 농인·청인 강사로 진행하는 수업 구성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의 감정 및 표정 표현에 대한 빠른 습득에 도움이 됨 - 틀린 것을 바로 교정해 준 점 •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의 긍정적인 격려의 말 	<p>강사의 이미지 강사(농·청)의 조합 오류 교정 및 격려 한마디</p>
수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수업 • 수업시간 적절 • 무한 반복 학습 • 교육기회가 일반인에게 확대되어 수어의 보편화 • 언어 학습 전 시각화하는 형태 연습을 통해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직관하며 이해함으로써 재미있고 수업에 대한 기대감 고취 • 교육환경 및 교육자료에 대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상이 없어 강사의 동작 관찰의 애로 	<p>무료수업 수업시간 만족 수어 보편화 필요성 언어 특성 직관 동영상 및 교육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자료 업로드 요망 •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자부심과 농인의 조어 능력을 알게 됨 	
수업에 바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노래 배우고 싶다 • 농인과의 간단한 대화 가능한 실생활 위주 학습 • 도서관 어휘는 필요 없는 것 같음 • 색깔, 컨디션 관련 수어 배우고 싶음 	수어노래 실생활 회화 도서관 어휘 불필요 색깔, 컨디션 수어 학습 욕구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워서 봉사하고 싶음 • 수어로 궁걸 해설사를 하고 싶음 	봉사

- 다회기 수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을 통해 농인에 대한 이해와 수어를 언어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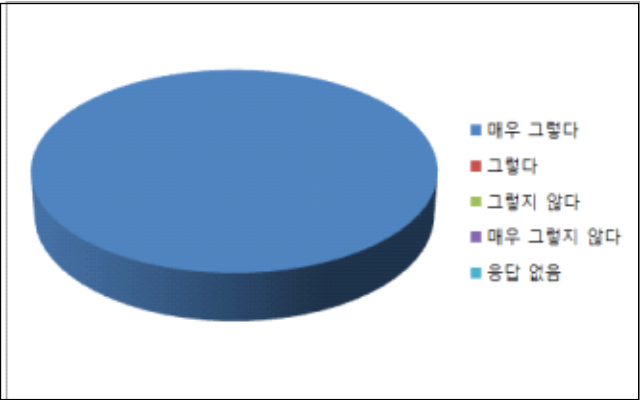
<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 >

문항1) 이 수업을 듣기 이전에도 수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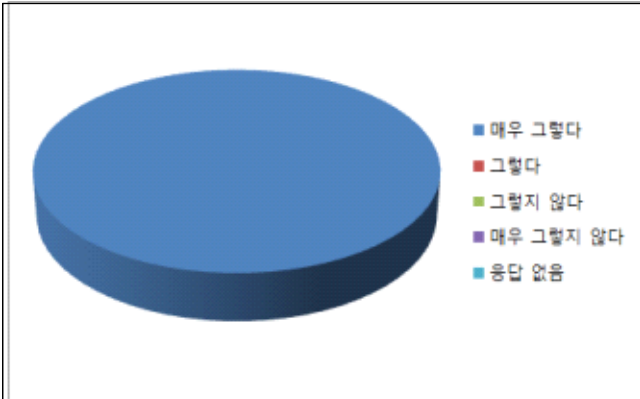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1	7%
그렇다	6	42%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2	14%
매우 그렇지 않다	5	35%

문항2) 이번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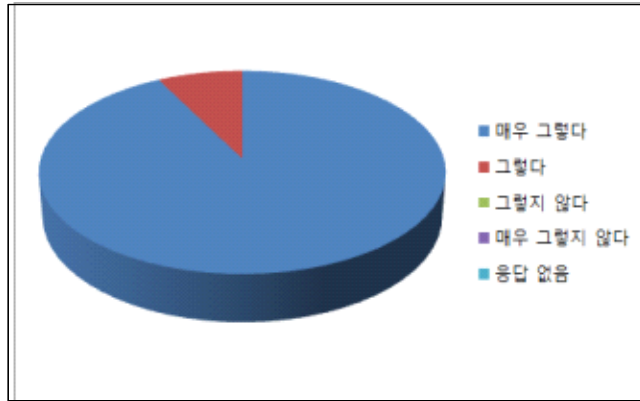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14	100%
그렇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문항3)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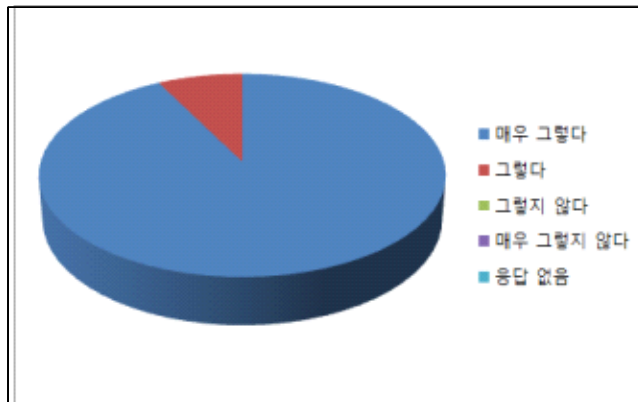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14	100%
그렇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문항4) 농인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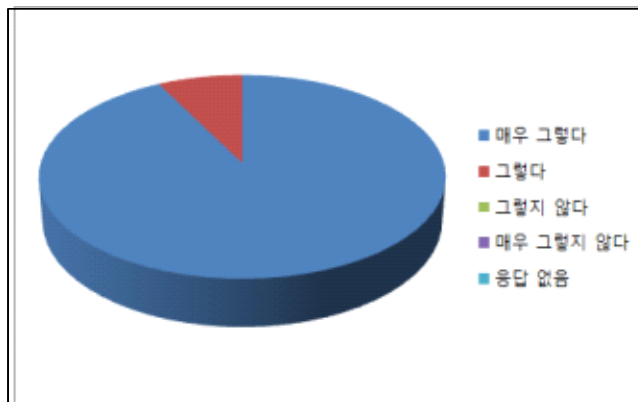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13	93%
그렇다	1	7%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응답 없음	0	0%

문항5) 수어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13	93%
그렇다	1	7%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응답 없음	0	0%

문항6) 수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나요?



매우 그렇다	13	93%
그렇다	1	7%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응답 없음	0	0%

문항7) 그동안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구분	주요 답변
생김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위기가 어둡다. ☞ 농인 강사를 통해 밝은 농인의 면모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리 관련 예술 활동은 못한다. 들리지 않으니 배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청각에 장애가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뒤쳐질 것이다. 농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인은 모두 수어가 가능하다.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므로 다가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피했다. 못 듣는 장애로 불편하겠다.

호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인이라는 호칭은 실례다. • 장애인이다.
긍정적인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유무이다. ☞ 농인 문화 및 농인과 난청인 등에 대한 배움을 통해 수어를 사용할 수 있고 수어가 보편적으로 확대된다면 농인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 농인은 장애가 아니다. ☞ 수어가 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 길에서 우연한 농인과의 만남에서 기초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 다만 듣지 못할 뿐,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을 가질 만큼 농인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 영어를 몰라 답답한 것처럼 그들의 수어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싶다. • ‘내가 장애를 가지면 어찌지?’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문항8) 이번 수업을 듣고 난 소감

구분	주요 답변
수어와 농 문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는 소리 없는 언어이다. •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었다. • 개괄적이고 쉽게 접근하게 해 주었던 수업을 통해 수어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되었다. •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모든 사람들에게 치부는 있다는 인식의 변화와 공감을 느꼈다. • 농 문화 수업은 생활 전반에서 청인과 다르지 않은 농인의 삶에 대해 느끼며 농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업의 질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농 문화를 함께 알게 되어서 좋았다. • 수업방식이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았다. • 두 분의 강사의 준비와 과정이 훌륭했다. • 청인 선생님께서 올바른 수어와 농 문화를 알려주시고, 농인 선생님이 실제 농인이 쓰는 실생활 수어를 더 간략하고 많이 사용하는 수어로 알려주어서 더욱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다. • 강사 특히 농 강사의 지도가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어주어 만족도가 높았다. • 지시적인 방식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모방 형식이 아닌 수어 형성의 유래나 모양을 상황에 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았다. (예) “이 수어는 이런 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유래가 돼서 이런 모양으로 수어가 형성되었고 그 상황에서 따온 수어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낱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 두 분의 강사님 특히 농 선생님과 뜻깊은 만남이 좋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독서능력향상과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접근 용이한 사회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 배우듯 배움의 문턱이 낮아져 누구나 수어 접근이 용이하였으면 좋겠다.
개인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성숙의 첫걸음이 되었다 •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몰랐던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었다

문항9) 건의사항 및 기타

구분	주요 답변
홍보 및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 이번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어를 자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란다. •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수어 시간을 편성하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우고 언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후속교육 및 세분화된 강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 기초, 중급, 고급, 심화 과정 등 지속적이고 세분화된 강좌 개설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 • 실생활과 연계되지 않으면 과정이 끝난 후 잊혀지므로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원 및 타 기관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 예술 분야에서의 협업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이번처럼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해 주기를 바라면, 서울도서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강좌가 생기면 좋겠다.

참고 문헌

- 강주해(2002).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개정증보판)』,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 강주현·옴김(2016). 재레드러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인류의 내일에 대한 중대한 질문. 서울: 김영사.
- 강창욱 외(2012).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 강창욱·원성욱·허일·김혜주(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 계기훈(1999). 한국 농아 역사. 서울: 반석인쇄사.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고은·채기화 역(2008).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아동을 위한 이완놀이. 스그마프레스.
- 교육부(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국립국어원(2011). 국립국어원 20년사.
- 국립장애인도서관(2016). 농인과 도서관이 만나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방안 토론회.
- 국립특수교육원(2008). 특수교육 교원양성 구조와 교육과정 요구 분석 연구.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 「수화기본법안」 「한국수어법안」 「수화언어 및 농 문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권선영 역 (2015). 수화, 소리. 사랑해! 베로니크의 코다(CODA) 다이어리, Véronique Poulain저 (2015). Les mots qu'on ne me. 한울림스페셜.
- 김경진(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23-39.
- 김경진(2007).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49-260.
- 김대행(2002). 국어교육학을 위한 언어 재개념화. 先淸語文, 30, 29-54.
- 김도현(2009). 『장애학 함께읽기』, 서울: 그린비.
- 김명주 옴김(2017).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서울: 김영사.
- 김명희(2002). “청각장애인의 농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각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하(1985). 특수 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김병하(2009). “농 문화와 농(인)학: 그 현상과 과제”. 세계장애인문화학술대회(서울) 발제(미간행).
- 김성태(2011). 선교와 문화. 서울: 이레서원.
- 김성혜 (2012). 농아인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 농아인 부모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례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10). 교사와 부모를 위한 청각장애 아동 교육. 학지사.
- 김승국, 김응범(2010). “한국수화 발전 및 수어 사용 인구 확충 방안”. 한국수화연구 제2집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 김승현 외(2013.).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시험환경 개발. 2013년도 한국방송 공학회 하계 학술대회, 134~137.
- 김인철(2015. 2. 18.). 화면 크기 조정 ‘스마트 수화 방송’ 올해 실험 방송. 《연합뉴스》.
- 김정우·이미옥(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장애의 심리적 극복과의 관계. 한국가족 복지학, 6, 101~127.
- 김정희·정은주·최선희(2012).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정희·조원영·옴김(2017).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서울: 다산북스.
- 김철현(2012). 청각장애인 역사문화관광에서의 제약요인과 선택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칠관·윤병천(2011). 수화통역개론. 파주: 양서원.
- 김혁준 외(2014). 가족관계. 학지사.
- 김혜경 외(2010). 가족 복지론. 공동체
- 김혜경 외(2010). 가족 복지론. 공동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 마루야마 마사키(2017). 데프 보이스. 황금가지. 한국어판 해설 이길보라.
- 문영민·김원영(2015).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99-128.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관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
- 박미정·정재권·박경란(2011). 농중증·중복장애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요구 분석 특 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91-113.
- 박병은 (2001). 학령전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의 양육 욕구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완(2000). 사범대학 교사교육의 패러다임 분석;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연구, 18(2), 275-298.
- 박승희 역(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Groce, N. E., 1985,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서울: 한길사.
- 박정현(2013). 청각장애인관점에서 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분석.
- 박지숙(2015). 청각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은령·이은미·오혜경(2009).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특성 및 출산력 결정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1, 113-149.

- 베로니크 폴폴랭(2015). 수화, 소리, 사랑해!. 한올림스페셜.
-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2017). 은총과 함께 60년사 1957~2017.
- 서울농학교·서울농학교총동문회(2013). 서울농학교 백년사 1913~2013.
- 손주영(2010).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진 윤킴(2016). 클라우드 슈바프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메가스터디.
- 안기순 윤킴(2017).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Utopia for Realists). 서울: 김영사.
- 여성가족부
- 염동문·허명자·이한우(2004).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 자녀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2), 357-380.
- 영락농아인교회(2001). 교회 50년사 1946~1996.
- 오인혜·정은희(2011). 청각장애인 가족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409-435.
- 오혜정 (2017). 청각장애 및 비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비장애자녀를 위한 가족지원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4), 239-263.
- 오혜정(2016). 가족지원-가정중재에 대한 청각장애유아 어머니의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8(4), 151-175.
- 원성옥(2004). “수화교육 운영의 실제와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 수화교육의 효율성 증대와 농아인 참여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원성옥·강윤주(2002). 수화교육개론.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 원성옥·권순우·김지숙 (2014).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국립국어원·(사)한국농아인협회
- 윤석만(2017). 휴마트 씽킹. 서울: 시공미디어.
- 이규식·권순황(2002). 농 문화 관점에서 본 청각장애 지원 프로그램 구안. 난청과 언어 장애, 25(2), 3-18.
- 이길보라(2017).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
- 이노미(2009).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서울: 바이북스.
- 이래경(2017). 다른 백년을 꿈꾸자. 서울: 책담.
- 이만열(2017).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서울: 도서출판레드우드.
- 이미선 (2015).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7(3), 125-150.
- 이미선·김경진(2000).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 발의 보도자료.
- 이원숙(2016). 가족복지론. 학지사.
- 이재홍(2017).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기회. 서울: 메디치미디어.
- 이정우 외(1992).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 이주애(2004a). “한국 수화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애(2004b). “선진국의 수화교육 운영 현황과 수화 인구 저변 확대의 실제 및 국내 활용방안”. 수화 교육의 효율성 증대와 농아인 참여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이준우(2003).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우(2004). 농인과 수화.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준우·김연신(2011). 데프 앤 데프: 농인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 경기도: 나남.
- 이형렬(2011). 장애청소년 근로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와고용, 21(1), 5-34.
- 이형렬(2007).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263-291.
- 이혜숙·이미혜 (2005). 농아인가족의 의사소통 특성과 자녀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1): 57-78.
- 이희선(2005). “한국 기초수화교재 비교분석 연구.”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천성동학교(1995). 인천성동학교 40년사.
- 임지룡(2006). 말하는 몸 감정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 장유리·서홍란 (2015).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부모의 건청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9: 197-218.
- 재단법인 금옥학술문화재단(1982). 표준수화사전. 대지출판사.
- 정승희 (2011). 청각장애유아 가족의 양육경험과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유계숙 (2001). 가족관계. 학지사.
- 정희원(2016). “대한민국 수화언어 정책의 현황과 전망”, 국립국어원 2016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조성연(2009). 가족관계. 양서원.
- 조한진·강민희·정은·조원일·곽정란·전지혜·전희경(2013).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서울: 학지사.
- 조현욱 윤킴(2015).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서울: 김영사.
- 조혜전·정연경(2012).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3(2), 223-244.
- 청음회관(2005). 청음 20년사.
- 최성규(1997). 청각장애아의 출현에 따른 가족과 사회의 영향: 청각장애 문화와 일생에 관한 소고. 난청과 언어장애. 20(1), 151-169.

- 최성규(2005).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농 문화에 대한 종단적 태도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57-76.
- 최승철 외(2012).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크리스티안 라트만(2016). “수화와 사회적 의사소통”, 국립국어원 2016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필릭스 시(2016). “수화언어의 습득과 교육”, 국립국어원 2016 국제학술 자료집.
- 한국농아인협회(2000). 농아인과 사회. 서울: 반석인쇄사.
- 한국농아인협회(2013).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 정리 토론회 자료집.
- 한국농아인협회(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예술의 가치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콜로컬로 큐엄 자료집
- 한국밀알선교단(1992). 제2기 재가장애인선교복지요원 양성훈련교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2012). 청각장애아동교육. 양서원.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1998). 청각장애 부모들의 욕구와 지원방안. 청음연구 98-01.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1998). 청각장애 부모들의 욕구와 지원방안. 청음연구, 98-01.
- 홍기영(2000).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홍기원 외(2007).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홍예리·김세훈(2016).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 자기관리역량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7(2), 143-164.
- 홍종배(2011.). 국내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정책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이행 강회. 국제 콘퍼런스 발제문.
- あべ・やすし(아베 야스시), 2015, 『ことばのバリアフリー——情報保障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障害学』, 東京: 生活書院.
- 長尾絵衣子(나가오 에이코)・古谷和仁(후루야 카가즈히도)・増田恵里子(마스다 에리코)・柳沢圭子(야나기사와 케게이코)訳, 2007, 『ろう文化の歴史と展望——ろうコミュニティの脱植民地化』, Ladd, Paddy, 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 In Search of Deafhood M
- 金澤貴之(카나자와 타카유키), 2006=2012, 「聾教育という空間」, ましこ・ひでのり編著, 『ことば、権力、差別(新装版)——言語権からみた情報弱者の解放』, 東京: 三元社, 217-234.
- クァク・ジョンナン(곽정란), 2017, 『日本手話とろう教育——日本語能力主義をこえて』 日本: 生活書院.

- 木村晴美(키기무라 하루미)・市田泰弘(이치찌다 야스히로), 1995=2000 「ろう文化宣言——言語的少数者としてのろう者」, 現代思想編集部 編, 『ろう文化』, 東京: 青土社, 8-17.
- 木村晴美(키기무라 하루미)・市田泰弘(이치찌다 야스히로), 2000 「ろう文化宣言以後」 石村多門 訳 『聾の経験——18世紀における手話の「発見」』 東京: 東京電機大学出版局, 396-408.
- Baker, C. and Battison, R. Ed(1980). Sign Language and The Deaf community: Essays in Honor of William C. Stokoe.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 Bauman, H-Dirksen L. & Murray, Joseph J(2015). DEAF GAIN. University of Minnesota.
- Burgess, E.W. & H.J. Locke (1953). The Family,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 Byrne, A.(2013). American Sign Language(ASL) literacy and ASL literature: A critical appraisal(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 Cokely & Baker-Shenk(1980).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Curriculum, Methods, and Evaluation. Clerc Books. Gallaudet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 Cokely, D. and Baker-Shenk, C.(1991).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Curriculum, Methods and Evalua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Glickman, N. S.(1993).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Hiebert, Paul G(1995). Cultural Anthrop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Hilery, G.(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 of agreement. Rural Society, Vol. 20.
- Holcomb, T.(2013).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cobowitz, E.Lynn(2005). 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Prepar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Fall 2005;6, 1; Proudfoot Central Basic.76-129
- Johnson, R. E., Liddell, S. K., and Erting, C. J. (1989). Unlocking the Curriculum: Principles for achieving access in deaf education. Gallaudet Research Paper.

- Karen, J., Mitchell, David, Z., Robinson, Barbara, S., Plake, and Kaeli, T., Knowles, Ed.(2001). Testing teacher candidates. National Research Council.
- Kroeber, A. L., & Kluckhohn, C.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Papers.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 Ethnology, Harvard University, 47(1), viii, 223.
- Lane, H., 1993, The medicalization of cultural Deaf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Fisher, R., & Lane, H.,(eds) Looking Back, Hamburg: Signum
- Leigh, Iren W., Jean F. Andrews. & Raychelle L. Harris. (2017). Deaf culture : exploring deaf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PLURAL PUBLISHING.
- Leigh, Iren W., Jean F. Andrews. & Raychelle L. Harris. (2017). Deaf culture : exploring deaf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PLURAL PUBLISHING.
- Levinson, Daniel J.(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 Alfred A. Knopf, Inc.
- Linton, R.(1955). The tree of culture. Vintage Books.
- Liston, D.P. and Zeichner., K. M.(1991). Teacher education and the social conditions of school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61(4),; ProQuest Central Korea. 496.
- Lucas, C.(1989). The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 NY: Academic Press.
- Lucas, C., & Valli, C.(1989). Language contact in the American Deaf community. In C. Lucas (Ed.), The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Lynn, J. E.(2005). 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preparations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Fall, 6(1), 76-129.
- Metzger, M.(2000). Bilingualism & identity in deaf communities.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4). Chasing the mythical ten percent: Parental hearing status of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4(2), 138-163.
- Mohammadjavad M. & Abdolbaghi M. (2012). The Impact of Family and Social Class on Efficiency of Arts Education and Learning.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11 (8): 1068-1077.
- Moore, Matthew S. and L. Levitan. 2003. For Hearing People Only: Answers to Some of the Most Commonly Asked Questions about the Deaf Community, Its Culture, and the "deaf Reality". NY: Deaf Life Press.
- Najarian-Souza, C. (2010). "Deaf Mothers: Communication, Activism, and th

- e Family.”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0(3). <http://dsq-sds.org/article/view/1279>.
-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2015). Legal Right, 6th Ed: The Guide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People. Gallaudet University Press.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Palgrave.
- Olsen, D. H.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 Olsen, D. H.,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 Reagan, T. (1990). Cultural considerations in the education of deaf children, In D. Moores & K. Meadow-Orlans (Eds.),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deafnes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73-84.
- Sacks, O. (2000). Seeing voices. 1st Vintage books.
- Stokoe, W. C.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University of Buffalo.
- Stokoe, W. C. (1972). Sign and culture: a reader for students of American sign language.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Stokoe, W. C. (1992). Simultaneous Communication, ASL, and Other classroom Communication Modes.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Stokoe, W. C. (2001). Language in Hand, Why Sign Came Before Speech.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tokoe, W. C., Casterline, D. C., and Croneberg, C. G. (1976). A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on linguistic principles.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Volume 1. London: John Murray. Wikipedia에서 재인용
- Valli, C. (2005). The Gallaudet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Woodward, James (1982). Beliefs About and Attitudes Toward Deaf People and Sign Language on Providence Ireland, How You Gonna Get To Heaven If You Can't Talk With Jesus, on Depathologizing Deafness, Silver Spring, Md.: T. J. Publishers Inc.

< 인터넷자료 >

건강가정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
 한국수화언어법 <http://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시행규칙>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2013년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현황 <http://cafe.naver.com/0420ulim/612>
2018 DHI 호주 컨퍼런스 <https://dhi2018.com/>
Gallaudet University(2011). <http://libguides.gallaudet.edu/content.php?pid=114804&sid=991940>.
https://www.vice.com/en_us/article/8gdwkp/gifted-dynamic-and-deaf-rising-star-christine-sun-kim-creates-art-that-reinvents-sound-679
<https://www.youtube.com/watch?v=tJeAG8tZyf4>. Through Deaf eyes. the National Endowment of the Humanities.
Standards for Teachers of ASL: <https://asлта.org/2014/07/asлта-standards-for-teachers-of-american-sign-language/>
The Enchanting Music of Sign Language | Christine Sun Kim | TED Talks <https://www.youtube.com/watch?v=2Euof4PnjDk>
The Two Faced Friend(ASL) by John Maucere. <https://www.youtube.com/watch?v=cSiquwxJAa8&list=RDQMFBCb3GwLqqQ>.
World Federation of the Deaf(2017). <https://wfdeaf.org/our-work/human-rights-of-the-deaf/>
가톨릭신문(<http://m.catholictimes.org/>)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부의 수화뮤지컬 갈라쇼 ‘맨 오브 라만차’ https://www.youtube.com/watch?v=_Ffn2abtFOI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국립생태원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우화’ 영상도서. http://www.nie.re.kr/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Q0TLz53BRUn68Fciy8ksO1&menu_nix=bW8pPI7x&subnix=hFqZJU8n
국립장애인도서관 <http://nlid.nl.go.kr/>
국제농역사협회 <https://dhi2018.com/about/deaf-history-international/>
나는 귀머거리다. 대한민국서 청각장애인이 살아가는 이야기 <http://comic.naver.com/bestChallenge/list.nhn?titleId=498587>
노선영블로그: 데프가이 일부 번역본. <http://blog.naver.com/souldeaf/220041930293>
농아인밴드 라온제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333>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기관소개 자료.

- 대한농아인야구협회 <http://www.kdeafbaseball.com/default/>
- 대한농아인체육연맹 <http://www.kdsf.or.kr/>
- 대한변호사협회전국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 대한장애인복지회(1988). 선진 복지 정책. 서울: 대한장애인복지위원회.
- 데프가이 애니메이션 <http://www.thatdeafguy.com/>
- 미국농아인협회 <https://www.nad.org/>
- 부에나비스타 공연(1:35) <https://www.youtube.com/watch?v=DFh32LiDUVw>
- 비마이너(www.beminor.com)
- 사회복지법인 연화원(<http://yeonhwawon.org/>)
- 삼성소리샘복지관(www.sorisaem.net)
-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http://www.scdeaf.or.kr/>)
- 세계농아인연맹 WFD(World Federation of the Deaf) <https://wfdeaf.org/>
- 세계농인스포츠위원회 <https://www.ciss.org/>
- 세계농청소년연맹 WFDYS(World Federation of the Deaf Youth Section) <http://www.wfdys.org/>
- 세계일보(2013. 4. 20). “장애인, 문화생활은 꿈”... ‘높은 차별의 벽’ <http://www.segye.com/newsView/20130419003758>
-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기관소개 자료.
- 손말이음센터(<http://www.relaycall.or.kr/home/main1.asp>).
- 수화발레 꽃밭에서 K수화뮤지컬예술단 <https://www.youtube.com/watch?v=0Enjv7N30t4>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 열린 책장 기관소개 자료.
- 오효석 화백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448>
- 운보 김기창 2014년 전시회 관련 <http://blog.naver.com/souldeaf/220019805394>
- 운보 김기창 화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6955&mobile&cid=46721&categoryId=46795>
- 육감으로 오감을 채우다, 긍정 춤꾼 김홍인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693955.html>
- 이영미 작가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50521132508694862>
- 장애인인권위원회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 장애인영화제 사업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PDFF) <http://www.pdf.or.kr/>
-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관소개 자료.

조계사장애인전법팀 원심회(<http://www.wonsim.net/>)

조선일보 <http://chosun.com>

지식채널 e 듣지못하는데 어떻게 연주하나요?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 에블린 글레니
(청각장애) <https://www.youtube.com/watch?v=WtnUqtnNtAQ>

창작뮤지컬 난파 동영상 기사(2014.12.5.)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96627

청각장애 치어리더팀 '데프걸스' 화제 (2012. 5.7일자) <http://blog.naver.com/chungeum21/100157508666>

청각장애인 스토리 <http://blog.naver.com/ninjacop10/220083866825>

청음 농아 극단 '혼의 소리'외(대한뉴스 1745호 수록) http://ehistory.go.kr/page/pop/movie_pop.jsp?srcgbn=KV&gbn=DK&mediaid=30000271&mediadtl=42161&quality=W

클린 도일 <https://www.Clin-doeil.eu>

타악부문 최우수상 서울농학교 정진우 외 6명 <https://www.youtube.com/watch?v=TVmitc1d7AU>

한국기독교농아총연합회(<http://www.kcdeaffa.or.kr/>)

한국농아방송(DBN) <http://cafe.daum.net/deafon>

한국농아연주단 연주 링크 http://www.ehistory.go.kr/page/pop/movie_pop.jsp?srcgbn=KV&mediaid=377&mediadtl=3215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기관소개 자료.

함께하는재단(<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mkkeorg&logNo=221052568953>)

부 록

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지
2.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지 영상물 제작
3.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교재 목차 : 별책 참조
4.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단원 예시 : 별책 참조
5.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수어 동영상 제작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6.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초점 집단 인터뷰(FGI) 질문지
7. 초점 그룹 인터뷰(FGI) 전사 및 번역 내용
8. 시범프로그램 II 농민속학 _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9. 시범프로그램 III 이야기하기 _ 농유머 세 가지
10.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계획안 예시
11.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강의자료 예시
12.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홍보물
13.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언론 인터뷰
14.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의 서울도서관 갤러리
게시물
15.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평가지

[부록 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지

<p>안녕하십니까?</p> <p>국립국어원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p> <p>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응답 내용은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p> <p>충실한 자료 수집을 위해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7월 일</p>	
문의	<p>Tel) (02)393-3515 fax) (02)363-4520 e-mail) sdeafsign@hanmail.net</p> <p>조사기관: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p> <p>연구책임자: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강창욱 교수</p>

1	인구학적 조사
---	---------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가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① 대도시 ② 중 · 소도시 ③ 군 읍 면
4. 귀하의 최종 학력과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졸 이상 ▶문항4-1로 가시오.
 4-1.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학교 (전공) / 대학원 (전공)

5. 귀하의 청각 상태(자연수어 사용 유무에 따라)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하시오.

- ① 농인 () ② 난청인 () ③ 청인 () ▶ 문항 6으로 가시오.

5-1. 귀하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

- ① 수어 ② 구어 ③ 필담 ④ 몸짓 ⑤ 기타()

5-2. 귀하는 어떤 학교를 다녔습니까? ()

- ① 일반학교에서 농학교로 전학 ② 농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
③ 농학교만 다님 ④ 일반학교만 다님 ⑤ 기타

▶ 수화통역사 직업 관련 문항입니다.

6. 귀하는 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③ 5년 이상 ④ 10년 이상 ⑤ 자격증이 없다

7.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

- ① 중앙회 및 시, 도 협회 ② 각 지역 수화통역센터 ③ 수화통역 콜센터 및 기타 기관
④ 대학 및 공공 기관 ⑤ 프리랜서 ⑥ 기타 ()

8. 귀하의 수어 강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년

9. 귀하의 수어 강의 시간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00시간 이상 ② 200시간 이상 ③ 300시간 이상 ④ 전혀 없음 ⑤ 기타 ()

10. 귀하가 수어 강의 경험이 있는 곳의 번호에 **모두 (√) 해 주세요.**

- ① 대학교에서 강의 () ② 한국농아인협회(시, 도 지부 포함) 주관 강의 ()
③ 한국농아인협회 각 지역 수화통역센터에서 강의 ()
④ 수화전문 교육원에서 강의 () ⑤ 종교 단체에서 강의 () ⑥ 기타 ()

11. 귀하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2. 귀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3. 귀하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입학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관심 없다. ④ 전혀 없다.

2	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	--------------

14. 수어교원양성과정에서의 연수과정은 1년에 몇 회 정도 개설하면 적당하겠습니까?()

최소이수시간이 120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연수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① 1년에 1회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3회 ④ 1년에 4회 ⑤ 수시로

15.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어교원양성과정에서 12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정해놓았습니다. 120시간의 연수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120시간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60시간씩 2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③ 40시간씩 3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④ 30시간씩 4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16. 수업은 주중 낮 시간과 밤 시간, 혹은 주말 중에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① 주중 낮 시간(주간)에 ② 주중 밤 시간(야간)에 ③ 주중 주간과 야간 모두 좋다.
 ④ 주말

17. 직장생활 등 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수업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 적당하겠습니까?()

- ① 1일 2시간 ② 1일 3시간 ③ 1일 4시간 ④ 1일 5시간 ⑤ 기타: ()시간

18. 수강생들이 120시간의 최소이수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수어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설해야 될 추가 시간수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

예) 120시간만 수업을 개설할 경우 사정에 의해 1시간만 결석을 해도 수어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126시간을 개설할 경우 6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 ① 6시간(5%) ② 12시간(10%) ③ 18시간(15%) ④ 24시간(20%) ⑤ 기타: ()시간

19. 1시간 수업은 몇 분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④ 55분 ⑤ 기타: ()분

20.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이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35시간의 필수이수시간 안에서 영역별로 교과목 수가 10개 이상 제시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11과목)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 ①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②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양성기관이 선택해서 몇 과목만 개설한다.
 ③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④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개설한다.

21.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개의 영역별 교과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교과목이 기본이수 교과목입니다.

-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22. 각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으로 어느 교과목이 좋겠습니까? 영역별로 오른 쪽 빈칸에 기본이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3개의 교과목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필수이수 시간	필수 교과목 (1-3개 선택)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25시간	
5	농 문화와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	15시간	

	농사회	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30시간	

23.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졸업이나 수료를 할 때 평가를 합니다. 수어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평가를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

① 필기시험 ② 수업시연 ③ 면접 ④ 기타: ()

24. ‘수료평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번호를 **모두** 적어주세요?()

① 수어수행능력 ② 수어언어학 ③ 수어지도법 ④ 상식 ⑤ 기타: ()

25. ‘수료평가’는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의 시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2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7.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지 영상물 제작



촬영·편집: 황창호 공동연구원, 모델: 장민영 보조연구원의 영상 촬영현장

[부록 3]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교재 목차 : 별책 참조

목 차

1장 장애학 관점의 농인

1. 장애학과 농인

1. 들어가며
2.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3.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참고문헌]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1. 농사회의 개념

- 1) 인간 사회
- 2) 공동체로서의 농사회
- 3) 농인
- 4) 농 정체성

2. 농사회의 특징

- 1) 농 문화의 결정체인 수어
- 2) 문화적 특징

[참고문헌]

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1. 농인 가족의 구성과 문화

- 1) 농인 가족의 구성
 - 2) 농인 가족의 문화
 2.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3. 구성 형태에 따른 농인 가족의 특성
 - 1)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 2)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 3)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 4) 농인·청인 형제 관계와 부모의 역할
 4. 농인 가족 지원
- [참고문헌]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1. 일제 강점기의 농사회
 - 1) 농교육기관의 태동
 - 2) 일본인 중심의 농인 자조단체
2. 광복 이후의 농사회
 - 1) 농교육기관의 설립과 성장
 - 2) 농인 자조단체의 성립
 - 3) 농인 종교기관의 창립과 성장
3. 1980년 이후의 농사회
 - 1) 농교육기관의 새로운 변화
 - 2) 농인 자조단체의 발전과 도약
 - 3) 농인 종교 기관

[참고문헌]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2) 농인 관련 주요 조항
 - 3)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 상황

- 4)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보고서 및 민간보고서
- 5) 국내 장애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

2. 한국수화언어법

- 1) 제정 과정
- 2) 법 제정의 의의
- 3) 한국수화언어법 구성 및 주요 내용

3. 기타 법률

- 1) 사회복지사업법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 장애인복지법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6)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 장애인연금법
-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1. 농인 관련 법인

- 1)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2)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 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2. 농인 복지관

- 1) 청음회관
- 2) 삼성소리샘복지관
- 3)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4) 제주도농아인복지관
- 5)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6) 대전손소리복지관

3. 기타기관

- 1) 107 손말이음센터
- 2)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 3)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 4) 열린 책장
- 5) 사회적 기업 AUD
- 6) 코다 코리아

[참고문헌]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1. 농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

2. 농인의 표현 문화 예술

- 1) 시각·촉각 예술
- 2) 공연 예술
- 3) 문학
- 4) 미디어 예술

3.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활동

- 1) 참여와 향유의 스포츠
- 2) 관련 단체 및 주요 행사

[참고문헌]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1. 국제기구

- 1) 세계농인연맹
- 2) 세계수어통역사협회
- 3)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2. 국제 교류 현황

- 1) 세계농인연맹 활동
- 2) 세계농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활동
- 3) 세계농인연맹청년회 활동

- 4)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활동

[참고문헌]

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2) 4차 산업혁명의 사례

2. 4차 산업혁명과 농인의 삶

- 1)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질
-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농인의 삶

[참고 문헌]

[더 읽을거리]

[부록 4]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단원 예시 : 별책 참조

제1장 장애학과 농인

곽정란

<개요>

본 장은 장애학의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과 장애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과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청각장애라는 장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에 주목하는 반면, 농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보다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엮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이라는 범주는 청각장애인 내부의 다양한 언어적 차이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농인과 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사회적 장벽은 듣지 못한다는 특성을 손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장애와 손상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수어를 사용할 권리, 수어로 배울 권리도 보장될 것이다.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수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농인은 장애인 등록을 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한쪽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 문화와 수어를 강조하며, 또 일각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언뜻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과 주장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학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치료나 극복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래에서는 장애학적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과 장애’

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 본 농

지금까지 농 또는 농인은 의료, 특수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 졌다. 이들 분야에서 농은 특히 청각장애라는 하나의 장애 카테고리(분류·유형) 안에서 존재해 왔다. 청각장애는 다시 난청과 농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난청은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청에 비해 농은 청각장애가 더 심한 중증장애로 간주된다. 이 때 정상 청력은 하나의 기준이 되며, 청각장애는 정상 청력을 잃은 결여의 상태를 말한다. 농은 난청에 비해 정상 청력에서 더 많이 일탈된 상태로 인식된다. 청인(듣는 사람)이 농을 소리가 없는 세계와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 지에 대해 할란 레인(Harlan Lane)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농인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먼저 음이 없는 세계에 자신을 놓는다. 그러면 완전 무서운 세계가 전개된다. 이런 공포는 농인 커뮤니티에 대해 우리들이 투영하는 고정 관념과 극히 잘 합치한다. 고독하며, 혼란스러우며, 누구하고도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 수용력도 없는 것이다(Lane, 1993; 長尾 et al., 訳, 2007: 91에서 재인용).

농인은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농인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나아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며,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농은 불행의 산물이며, 농인은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의 기저에 있는 장애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장애학의 주요 이론인 사회모델을 주창한 마이클 올리버는 장애 모델을 개인모델과 사회모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한 바 있다(Oliver, 1996). 장애의 사회모델이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있다고 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김도현, 2009; 조한진 편저, 2013)

장애 모델

개인모델	사회모델
개인적 비극 이론	사회적 억압 이론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에 대한 처치	사회 행동
의료화	자조
전문가의 지배	개별적 집합적 책임
숙련가	경험

적응	주장
개인적인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편견	차별
태도	행동
보호	권리
통제	선택
정책	정치
개인적인 적응	사회적 변화

출처: oliver, M.(1996: 34)

최근 들어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 영역에서는 더 이상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인 손상으로 보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상 청력이라는 기준에서 얼마큼 이탈되어 있는가를 논한다는 점에서 이미 놓은 ‘부(負)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이 강조된다.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일종의 신생아 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루어지며, 때로는 유전성 난청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은 청각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청각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한 음성언어 습득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각적 자극을 위해 보청기 착용이 시도되며, 보청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공와우 수술이 이루어진다. 청각적 보상과 음성언어 습득이 강조되는 이 구화주의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정상 청력을 지닌 사람에 가깝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특수교육에서 사회적 환경을 어떠한 형태로 논한다 하더라도 이미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다’는 ‘신체의 우열’이 작동한다. 듣기 어려운 것을 듣고 말해야 하는 부담은 개인이 지며, 듣기 어려운 사람은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통제가 강조된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는 이데올로기(이념·인식)가 지배하는 한 농인은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곽정란, 2017: 146).

3.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농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농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와 이치다 야스히로(市田泰弘)가 발표한 ‘농 문화 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농인이란 일본어와 다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에서부터, ‘농인=일본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전환이다(木村·市田, 1995=2000: 8).

여기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이 부정되며, 자신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인 일본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에서 부의 산물로 논해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농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히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도실청자와 달리 선천성 농인에게 있어 ‘농’은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다. ‘농’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자기 자신의 일부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농’은 치료해야만 하는 ‘장애’가 결코 아니다. 유전성 농인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유전성 농을 예방한다’는 사고방식의 근본에는 우생사상이 있고 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가로놓여 있다(木村·市田, 1995=2000: 12).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소리가 없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과 달리 농아동을 낳기를 희망하는 농인 부부가 농사회에는 존재한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농인인 농인 가정(Deaf family)의 경우 가족 내 언어는 수어이다.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데 이들 중 농학교를 다니게 된 농아동은 다른 농아동과 접촉하면서 수어를 습득한다. 따라서 농아동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학교를 졸업한 농인은 농사회의 농인을 만나 농 문화를 익히고 그들의 가치관을 익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어통역이나 자막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억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인은 이러한 사회적 억압이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억압에 고생을 한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으며(예외도 있지만), 유대인은 그리스도교인이, 여성은 남성이 되고 싶다고 하지는 않는다. 각각 단지 억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을 뿐이다. 농인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커뮤니티를 가지는 것이며, 질 높은 집합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長尾 et al., 2007: 92).

즉, 농인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엮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례로 교육부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농학교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일반적인 교명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때 서울농아학교는 서울선희학교로 학교명을 바꾸었다. 그러자 서울농아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학교명 변경에 반대를 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서울농학교 졸업생인 강주해 목사(농인)는 “우리가 새 교명에 실망과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름이 주는 평범함 때문이다. 서울선희학교. 얼핏 들으면 보통 건청인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로 밖에 연상되지 않는다”(강주해, 2002: 79-80)라고 언급한 바 있

다. 이후 서울선희학교는 동문들의 지속적인 교명 복원 노력에 힘입어 2002년 ‘서울 농학교’라는 교명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일례는 농을 둘러싼 청인과 농인의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청각장애인이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친숙한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은 왜 굳이 농과 난청을 구분하는가?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농 역시 청각장애의 일부이지 않은가?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농과 난청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에 대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히로는 ‘농 문화 선언 이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문제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의해 단일하게 하나로 취급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농인은……언어적 소수자이다’라고 보려는 이유는 농인이 언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 견고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에 ‘장애’가 있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청각장애인’이라는 말로 농인과 그 외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 버리는 것은 농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이라는 말에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해버려 폭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木村·市田, 2000: 397-398).

청인이 청각장애인을 떠올릴 때 가지는 단일한 이미지와 달리 청각장애인 내부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청력의 정도, 실청시기,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주위의 언어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구화(음성언어)를 할 수 있는 난청인,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청각장애인이 된 중도 실청인 중에는 한국어를 말하면서 수어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 중에는 구화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필담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농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농학교를 나와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가 하면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더라도 수어를 모르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구화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청각장애인 내부의 언어적 차이를 무시한 채 ‘청각장애인’이라고 통칭해 버리면, 오히려 개개인의 언어적 요구가 보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곽정란, 2017: 27). 다시 말해,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자신의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라는 명칭은 자신의 언어적 요구를 무시하는 명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그렇다면 농인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라는 주장은 혹여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일례로 농인을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으로부터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꾀한 일본의 ‘농 문화 선언’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가나자와 타카유키(金澤貴之)는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분명 농인이 놓여진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면, 농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그 ‘장애’가 생기는 방식이 극히 이질적이며, 언어적·민족적 마이너리티가 농인 상태와 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농인의 ‘장애’는 청인과 관계하는 것에 의해 생긴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면, 농인은 농인끼리 있을 때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농인 집단 사이에 청인이 소수로 끼여 있다면, 역으로 청인이 ‘장애’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金澤 2006=2012: 222-223).

다시 말해,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농인에 비해 청인은 사회적 다수파이며, 이들 다수파는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다. 사회적 다수파에 속한 듣는 사람들은 자신을 청인이라고 부를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농인은 수어를 모르는 사회적으로 우위에 놓인 청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어의 사회적 지위를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 지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청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수많은 정보는 듣는 사람에 맞춰서 제공된다. 이에 비해 수어로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나아가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사람이 음성언어에 기반한 읽기·쓰기를 청인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농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를 요구한다.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진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농인을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게 만든다. 결국, 농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농인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다.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사회적 불리에 의해 장애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문화적 관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못한다는 손상 그 자체는 여전히 병리적 관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노라 엘렌 그로스(Groce, 2003)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전적인 이유로 농인 출현율이 높았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들 두 사람은 다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던가요?”라고 나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예, 가만 생각 좀 해봅시다. 그들이 그런 것 같네요”라고 그 노인은 대답했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군요.”

미국 본토에서는 심각하게 들을 수 없는 것(profound deafness)은 정말로 하나의 장애(a true handicap)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장애는 그것이 출현하는 지역사회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임을 제안한다. 우리가 비니어드의 청각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확실히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양키(영국 이민자의 별명-웁긴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자유롭게 참여했다. …(중략)…

섬의 한 노인은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소”라고 이야기했다.

비니어드에서 청각장애인의 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는 아마도 80대의 한 할머니의 표현으로, 할머니가 소녀였을 때 청각장애로 장애인이었던(handicapped by deafness) 사람들에게 대해서 질문하자 할머니는 “오, 그들은 장애인(handicapped)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deaf)이었지요”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다(박승희 역, 2003, pp. 36-37).

이 섬에서는 농인만이 수어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인 출현율이 높았던 이 섬에서는 청인들 역시 어릴 때부터 농인과 접하면서 수어를 배워 농인과 대화 할 때는 수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농인과 청인 사이에 언어적 장벽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이 섬에서 농은 장애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노라 엘렌 그로스는 이 섬에서 농인은 일상생활을 포함해 교육, 경제적인 측면 등 모든 생활 장면에서 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농인과 청인 사이의 언어적·사회적 장벽이 듣지 못한다는 특성을 손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는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손상 역시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이와 관련해 아베 야스시는 “장애학은 사회적 장벽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신체의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장벽과 손상의 구별에 만족해 ‘손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한다(あべ, 2015: 28). 아베 야스시는 ‘신체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수많은 인간의 복잡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폐증만이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질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감기, 백혈병, 다운증, 자폐증, 심장병 모두 생물로서, 인간으로서 다양한 것이며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단,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질병과 질병이 아닌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며, 그것은 각각의 문맥에 따라 정당성이 있으며 또는 부당한 구별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각각의 관점과 목적에 따른 것이며, 상대적인 논의이다(あべ, 2015 : 2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듣지 못한다는 상태 역시 어떤 상황과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손상이 되기도 하며, 하나의 개성이 되기도 한다. 청인과 농인 사이의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없었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손상은 하나의 개성으로 존재하였다. 반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교육·경제적 측면 등에서 차별을 겪는 사회에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손상이 된다. 아베 야스시는 ‘신체적 손상을 실체화 하지 않는 관점’이 중요하다 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것’을 장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닌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장애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왜 장애로 간주되는가’라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목적’과 ‘문제 의식’이다. 즉,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맥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별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동일성 장애’라고 명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장애’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전환수술이라는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장애는 ‘장애’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그것뿐인 것이지만 그러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될 것이다. 때문에 ‘장애’라는 말에 어떤 의미 또는 뉘앙스를 주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애’의 인식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색맹을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색맹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범위를 한정한다는 대책을 세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색맹이라는 장애를 낳는 것은 사회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보편적 색상 설계(Color Universal Design)을 지향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あべ, 2015 : 31).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다. 장애인으로 인정됨으로써 일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해 주는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가. 구화를 사용하는가를 떠나 청각장애인으로서 공통의 요구를 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1종 운전면허 취득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한목소리로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농인은 한국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소수자이다.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로 바라보고, 농인을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농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부담은 언제까지나 농인의 몫이다. 그렇지만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병원·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로 배울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해 (2002).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개정증보판).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읽기, 서울: 그린비.
- 조한진 편저, 강민희·정은·조원일·곽정란·전지혜·전희경 저 (2013),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서울: 학지사.
- あべ・やすし(아베 야스시) (2015). 『ことばのバリアフリー——情報保障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障害学』, 東京: 生活書院.
- 金澤貴之(카나자와 타카유키) (2006=2012). ‘聾教育という空間’, ましこ・ひでのり編著, 『ことば、権力、差別(新装版)——言語権からみた情報弱者の解放』, 東京: 三元社, 217-234.
- 木村晴美(기무라 하루미)・市田泰弘(이치다 야스히로) (1995=2000). ‘ろう文化宣言——言語的少数者としてのろう者’, 現代思想編集部 編, 『ろう文化』, 東京: 青土社, 8-17.
- 木村晴美(기무라 하루미)・市田泰弘(이치다 야스히로) (2000) ‘ろう文化宣言以後’石村多門 訳 『聾の経験——18世紀における手話の‘発見’』 東京: 東京電機大学出版局, 396-408.
- クァク・ジョンナン(곽정란) (2017). 『日本手話とろう教育——日本語能力主義をこえて』 日本: 生活書院.
- Groce, N. E. (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박승희 역.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서울: 한길사. (원전은 1985년).
- Ladd, Paddy (2007). 『ろう文化の歴史と展望——ろうコミュニティの脱植民地化』, 長尾絵衣子(나가오 에이코)・古谷和仁(후루야 카즈히도)・増田恵里子(마스다 에리코)・柳沢圭子(야나기사와 게이코)訳. *Understanding Deaf Culture : In Search of Deafhood M.* (원전은 2003년).
- Lane, H. (1993). *The medicalization of cultural Deaf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Fisher, R., & Lane, H.,(eds) *Looking Back*, Hamburg: Signum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Palgrave.

[부록 5]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수어 동영상 제작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제1장 장애학과 농인

곽정란

리츠메이칸대학 생존학연구센터 객원연구원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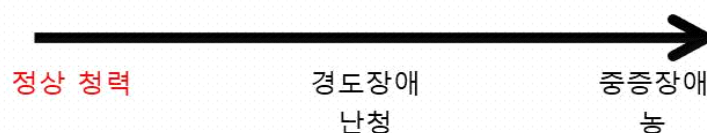
1. 들어가며
2. 청인의 관점에서 본 농
3. 농인의 관점에서 본 농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1. 들어가며

-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 목적: 장애학 관점에서 '농과 장애의 관계'에 대해 고찰
- **장애학**이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보다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에 관심을 둔 학문

2. 청인의 관점에서 본 농

- 농인: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사람
- 청인: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 의료, 특수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바라본 농
: **정상 청력**이 기준



2. 청인의 관점에서 본 농

장애 모델

개인모델	사회모델
개인적 비극 이론	사회적 억압 이론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에 대한 처치	사회행동
의료화	자조
전문가의 지배	개별적 집합적 책임
숙련가	경험
적응	주장
개인적인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편견	차별
태도	행동
보호	권리
통제	선택
정책	정치
개인적인 적응	사회적 변화

* 출처: Oliver. M.(1996: 34)

2. 청인의 관점에서 본 농

- 청인의 관점에서 본 농: 부정적, 불행
- 구화주의
 - 보청기, 인공와우 등을 통해 듣기 훈련과 말하기 연습을 강조
 - 농인을 가능한 한 청인처럼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청능주의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는 이데올로기
 (곽정란, 2017)

3. 농인의 관점에서 본 농

- 농인: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이다'
 예) 일본의 '농문화 선언'

“'농인'이란 일본어와는 다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에 대한 정의이다.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에서부터, '농인=일본수화를 일상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기무라.이치다, 1995=2000:12)

“'농'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자기 자신의 일부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증거'”(기무라이치다, 1995=2000: 12)

3. 농인의 관점에서 본 농

- 농인의 관점: 들리지 않는다는 것보다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농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

예) 서울농학교의 학교명 변경에 대한 반대

“우리가 새 교명에 실망과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름이 주는 평범함 때문이다. 서울선희학교. 얼핏 들으면 보통 건청인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로밖에 연상되지 않는다.” (강주해, 2002: 79-80)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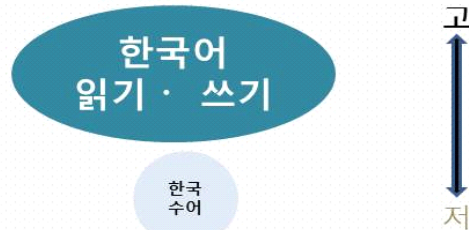
-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보다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긴다.

“우리가 새 교명에 실망과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름이 주는 평범함 때문이다. 서울선희학교. 얼핏 들으면 보통 건청인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로밖에 연상되지 않는다.” (강주해, 2002: 79-80)

- 청인: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다.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 수어는 사회적 지위=농인의 사회적 지위



출처: 코이시(2012: 259)를 수정

- 청인 중심의 사회: 청인에 맞춰 정보 제공,
그러나 수어로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

농인에게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를 요구하는 사회



농인은 일상생활, 진학,
취업에서 **불이익**



농인의 장애인화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 노라 엘렌 그로스(Nora Ellen Groce, 1985)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박승희 역, 2003)

「섬의 한 노인은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소.” 라고 이야기했다. … (중략)… “오, 그들은 장애인(handicapped)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deaf)이었지요.” 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다.」(박승희 역, 2003 : 36-37).

- 농인 출현율이 높았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청인이 농인에게서 수어를 습득
- 농인과 청인 사이에 언어적 장벽이 없는 사회
- 농은 장애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수용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 듣지 못한다 ≠ 손상
- **신체의 다양성**: 「장애를 수많은 인간의 복잡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보는 시선」이 필요(아베, 2015: 28)
-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교육 · 경제적 측면 등에서 차별을 겪는 사회라면 듣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손상이 된다.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어떤 것」을 '장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닌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장애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왜 장애로 간주되는가'라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목적」과 문제의식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맥이다. …(중략)… 「장애」인식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색맹을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색맹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범위를 한정한다는 대책을 세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색맹이라는 장애를 낳는 것은 사회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색의 유니버설 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을 지향할 것이다.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베, 2015: 31)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청각장애인가? 언어적 소수인가?

-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예) 1종 운전면허 취득
-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로 바라보고, 농인을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농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즉, 농인은 청각장애인인 동시에 언어적 소수자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하여

농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를 사회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사회가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 수어로 배울 권리도 보장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주해(2002).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개정증보판)』 서울 : 농아사회정보원
- 박승희 역, 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서울 : 한길사(Groce, N. E., 1985,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 Palgrave)
- あべ・やすし, 2015 『ことばのバリアフリー——情報保障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障害学』 東京: 生活書院(아베 야스시, 2015 『언어의 배리어프리 : 정보보장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애학』 도쿄 : 세이카츠쇼인)
- 金澤貴之, 2006=2012 『聾教育という空間』ましろ・ひでのり編著, 『ことば、権力、差別(新装版)——言語権からみた情報弱者の解放』 東京 : 三元社, 217-234(가나자와 타카유키, 2006=2012 『농교육이라는 공간』, 마시코 히데노리 편저 『언어, 권력, 차별(신장판) : 언어권에서 본 정보약자의 해방』 도쿄 : 산겐샤, 217-234).
- 木村晴美(기무라 하루미)・市田泰弘(이치다 야스히로), 1995=2000 『ろう文化宣言——言語的少数者としてのろう者』現代思想編集部 編, 『ろう文化』東京 : 青土社, 8-17(기무라 하루미・이치다 야스히로, 1995=2000 『농문화선언 :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 현대사상편집부 편, 『농문화』 도쿄 : 세이도샤, 8-17).
- クァク・ジョンナン, 2017 『日本手話とろう教育——日本語能力主義をこえて』 東京 : 生活書院(곽정란, 2017 『일본수화와 농교육 : 일본어능력주의를 넘어서』 도쿄 : 세이카츠쇼인).
- 古石篤子, 2012 『言語教育政策のこれから』佐々木倫子編『ろう者から見た「多文化共生」——もうひとつの言語的マイノリティ』 東京 : ココ出版, 252-285(고이시 아츠코, 2012 『앞으로의 언어교육정책』 사사키 미치코 편, 『농인이 본 「다문화 공생」: 또 하나의 언어적 마이너리티』 도쿄 : 코코출판, 252-285).

[부록 6]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초점 집단 인터뷰(FGI) 질문지

제1차/제6차 FGI 질문지

-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 -

1. 농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2. 일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3. 농 대안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 프로그램 대상과 목표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장단점
- 기본 운영 요소
- 운영방안 제언

4. 농 성인 및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5. 청인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 진행 여부
- 진행되는 현장
- 프로그램 주요내용
- 제한점
- 운영방안 제언

6.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 운영 방향
- 운영 목표
- 기본 프로그램
- 기본 운영요소
- 기타 제언

7.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학력:
- 전공:
- 소속 및 직위:
- 현 기관 근무경력: ()년 ()개월
- 관련분야 총 경력: ()년 ()개월

제2차 FGI 질문지

- 수어교육 강사 -
(청각장애인통역사 & 수어통역사)

1. 지금까지 수어교육 강사로 활동해온 경험은 어떠한가?

- 처음 수어를 교육하게 된 동기
- 활동 기간 및 장소
- 교육 대상
- 교육 주제 및 내용
- 수어교육 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수어교육 참여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수어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2. 전문가로서 수어통역 경험은 어떠한가?

- 활동 기간
- 주요 통역 분야
- 수어통역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 수어통역 이용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3.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진행 여부
- 진행되는 현장
- 프로그램 주요 내용

4.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 운영 방향
- 기본 프로그램
- 기타 제언

5.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학력:
- 전공:
- 소속 및 직위:
- 수어교육 경력: ()년 ()개월
- 수어통역 경력: ()년 ()개월

제3차 FGI 질문지

- 수어교실 이용자 -

1. 지금까지 수어교실을 이용해 온 경험은 어떠한가?

- 처음 수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 처음 농인을 만난 때는 언제이며 느낌은 어떠했는가?
- 그동안 수어를 배운 기관 또는 장소(지역)는?
- 그동안 경험한 수어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강사, 강의내용, 강의장소, 기타)

2. 지금까지 경험한 수어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어떠한가?

- 회화 중심 교육 : 초급 수어, 중급 수어, 고급 수어
- 자격증 대비 교육 : 수어통역, 음성필기통역
- 특별히 희망하는 교육 형태나 내용이 있다면?

3. 수어교육과 농 문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수어를 배우며 수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는가?
- 수어를 배우며 농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는가?

4.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진행 여부
- 진행되는 현장
- 프로그램 주요 내용

5.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 운영 방향
- 기본 프로그램
- 기타 제언

6.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학력:
- 전공:
- 소속 및 직위:
- 수어교육 기간: ()년 ()개월

제4차 FGI 질문지

- 농인 가족(학부모) -

1.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2. 내 자녀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건 언제인가요?
 - 청각장애 판정시기(당시 자녀의 나이)
 - 당시의 느낌과 반응, 배우자의 반응, 형제자매들의 반응
3. 그동안 청각장애나 수화언어 농자녀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정보제공, 교육,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등)를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4.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어떤 경험(치료 서비스 포함)을 해보았나요?
 - 언어로서의 수어에 대한 경험
 - 언어재활치료, 보청기/인공와우 수술 등에 대한 경험
 - 어린이집/유치원/일반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 등에 대한 경험
 - 이외 부모로서 개인적인 노력
5.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자녀와의 소통,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or? and? 농인 가족(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7.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8.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9. 기타 제언하실 점이 있다면?
10.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 학력(전공):
 - 청인/농인: 청인 / 농인(의사소통수단:)
 - 직업:
 - 자녀의 수:
 - 농자녀의 나이:
 - 농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농자녀의 의사소통 수단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단: /

제5차 FGI 질문지

- 농 성인 -

1. 농 문화 / 농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 농 문화 / 농 정체성의 정의
- 농 문화 / 농 정체성의 구체적 사례 및 예시등
- 농 청년(혹은 농인 연령별)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2. 한국의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외국과는 다른 한국의 농 문화, 농 정체성
- 현재 한국의 농 문화, 농 정체성의 특징 및 현황 등

3. 차후 농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고 전승되어야 할까요?

(혹은 농 문화의 전승과 발전이 필요할까요?)

4. 차후 건강한 농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혹은 농 정체성의 확립이 왜 중요할까요?)

5. 20~30대 농 청년과 40~50대 이후의 농 장년이 보이는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또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6. 20~30대 농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7.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8. 기타 제언하실 점이 있다면?

9.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 학력(출신 중·고등학교 포함):
- 전공(혹은 직업):
- 주된 의사소통 수단:

[부록 7] 초점 집단 인터뷰(FGI) 속기 및 번역 내용

제3차 수어교실 이용자 대상 FGI 내용

일시: 2017년 8월 16일 오후 1시 ~ 2시 40분

장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회의실

참석자: 총7명(박OO, 진OO, 최OO, 송OO, 강OO, 노OO, 박OO)

- (사회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수어 관련 연구 사업인데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와 우리 박OO 선생님하고 김OO 과장님 저희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고 나머지 6분은 인터뷰 대상으로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나셨을 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 이름 소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OO)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회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OO입니다.

- (사회자) 박수는 마지막에, 같이.

- (진OO) 안녕하세요? 진OO이라고 합니다.

- (최OO) 안녕하세요? 최OO입니다.

- (송OO) 반갑습니다. 저는 송OO입니다.

- (강OO) 반갑습니다. 저는 강OO입니다.

- (노OO) 안녕하세요? 노OO입니다.

- (박OO) 박OO입니다.

- (사회자)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지대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것이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녹음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정리, 보고서 정리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총 5차에 걸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수화교육원 이용 대상자로서 또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오전에는 강사 분들 대상으로 했어요.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 분들, 강사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마쳤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같이 수어교육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느끼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게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수어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어법에 의해서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이런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에 이용자로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교육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쭙보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각자 좀 돌아가시면서 처음에 어떤 계기로 수어를 배우셨는지 말씀을 돌아가시면서 해주시

면 좋을 것 같아요.

- (박OO) 네, 20대 때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기관에서 조그맣게 수어교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 날 때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해서.

- (사회자) 교회였나요?

- (박OO) 네, 밀알학교.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직장 때문에 계속 쉬다가 한 5, 6년 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돼서.

- (사회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느 과정까지 배우셨어요?

초급과정 정도?

- (박OO) 초, 중, 고급과정 1년간 배우고.

- (사회자) 고급과정 마치셨어요?

- (박OO) 네, 배우고 이제 계속 쭉 쉬다가 한 6, 7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시 한 번 배울 기회가 되어서 다시 공부하고 시험 보고.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진OO) 처음에는 그냥 (말이 이지러짐) 소통하고 싶어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남자들은 왜 그런 건 정년 이후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겹치면서 수어라는 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많은 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수어가 딱 동기가 됐던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 (진OO)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요?

- (사회자) 네.

- (진OO) 어떻게 보다 보니 봉사 정신, 이렇게...

- (사회자) 투철하셔서...

- (진OO) 좀 남은 생활을 좀 보람을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성취를 느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농인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소통을 못할까?

- (사회자) 그러면 어디서 농인을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 (진OO) 아니요, 없습니다.

- (사회자) 따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 (진OO) 관심은 있었는데.

- (사회자) 배울 기회가 없으셨죠.

- (진OO) 찾을 겨를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장사를 하다가 그걸 그만 두면서 이게 눈에 띄면서.

- (사회자) 수화교육원을 그러면 홍보하는 걸 보시고 오셨어요?

- (진OO) 인터넷

- (사회자) 아, 검색하셔서?

- (진OO) 다 검색해서.

- (사회자) 적극적으로 그러면 찾으신 거네?

- (연구원1) 다 검색으로 왔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인터넷 거의.

- (사회자) 어디서 수어를 배울 것인가, 검색해서.

- (연구원1) '수화' 치면 딱 뜬다고 교육원.

- (최OO) 네, 저도 검색해서 여기를 찾았고요.

저는 처음에 수어를 그냥 언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수화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 공부해야 하지 막 찾아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입문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농인도 만나게 되고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자격증 시험공부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통역사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 (사회자) 아직, 퀘스천 마크.

네.

- (송OO) 저는 이게 언어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어 이렇게 영어, 중국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 보니까 언어보다는 무슨 꼭 연기 학원에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와 또 봉사, 나름 기회가 된다면 봉사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재미있어요.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우리 강OO 선생님은.

- (강OO) 저는 처음에 수어를 배운 거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콜센터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대부분 사내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부분에서 커피숍을 하나씩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회사 내에서는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인들로만 이뤄진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팀장은 높은...

저도 수어를 조금만 배우면.

- (사회자) 그 자리가 가고 싶으셨던 게 아니군요?

- (강OO) '저도 그 자리를 꿰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 과장님이랑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수어를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왔는데 제가 서울을 별로 좋아하질 않거든요.

서울은, 일단 도시가 아니라 조금 시골로 가고 싶은데 시골에는 아무래도 직장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전국 어디를 가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거기서 필요한 것만 얘기만 해도 내가 저 자리는 꿰차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도리어 그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찾는 건 인터넷으로.

- (노OO)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때 수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배우게 된 동기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이 사회복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습을 하게 되고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말았던 학생이 자폐아 꼬마였는데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종결이 되면서 그다음 번 연결된 대상이 농아 학생 꼬마가 있다고 했어요. 이라고 꼬마가 있으니까 슈퍼바이저가 이 애를 위해서 먼저 수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해서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수어를 권유해서 그 당시에는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들도 몇 곳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고 수어를 배우면서 '자원 봉사를 해야지.'라기보다는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수어 자체가 재미있어서, 약간 OO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에 빠져서 기초반 배우고 중급반까지만 처음 배웠다가 그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하고 하면서 관련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또 그 이후로 고급반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농인아인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큰 목표 의식이 아니라 처음 배울 때는 단순히 수어에 빠져서 배웠던 것 같아요.

- (사회자)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하세요.

- (박OO)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우리 남편 표현에 의하면 '정말 돈 안 되는 것만 들으러 다니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듣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다가, 이제 서울 생활을 딱 접고 경남 산청의 산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년을 좀 넘게 살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지금 서울에 잠깐 다시 나온 거예요. 집은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 속에 살면서 뭘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하다가 종로, 제가 사는 데가 혜화동인데 종로구청에서 혹시 뭐 배우는 게 뭐가 있나 들어가서 한번 찾아들어가다 보니까 무료 수어 초급반, 이걸 종로구청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걸 들으러 다니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는 평소에도 말할 때 되게 지화를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서울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 수어를 배우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 치매에도 예방이 될 것 같다고 이런 농담을 했더니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런 기관이 있다니까 여기도 한번 가 봐'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그 친구가 여기를, 개는 신문 보고 안 거고.

저는 안 그랬으면 그냥 종로 구청에서 하는 거 초, 중, 고급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다섯 달째고 종로까지 합쳐서, 거기서 한 달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다섯 달째인데,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농인은, 농인은 만나신 건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 (박OO) 처음 만난 거요?

대화하고 이런 거요?

- (사회자) 아니, 그냥 사시면서 농인을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 (박OO) 호떡.

- (사회자) 아, 중국 호떡 하시는 분.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농인을, 처음 언어가 다른 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 (박OO) 저는, 저도 어렸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했었던 거라서 그냥 '조금 불편하시겠다' 이 정도지, 다른 그런 건 없었고 내가 얘기를, 저는 꼭 농인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외국 사람과도 말하고 싶고 외국어를 배우고 싶고, 저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언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 (사회자) 특별한 느낌은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처음 수어를 배우신 건 종로구청에서 배우셨어요?

- (박OO) 종로구청.

- (사회자) 그게 언제쯤, 5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 (박OO) 아니요, 지금이, 아 예 그렇죠.

- (사회자) 5개월째, 종로구청에서 배우셨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 받으시면서 또 종로구청에서도 배우셨고 여기서도 배우시는데 강사라든가 강의 내용, 강의장이라든가 강의장이라든가 이런 것거에 대해서 교육생으로서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 (박OO) 거기를 갔을 때와 여기에 왔을 때랑 좀 많이 다르긴 한 게 여기가 좀 훨씬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교재가 있지만도 있고 거기는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갖고 하시는데.

- (사회자) 농인 강사세요, 청인 강사세요?

- (박OO) 청인 강사.

오전반 오후반 있었는데 저는 오후반으로 들어갔었어요. 청인 강사분이신데 가족 중에 농인이 계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농인협회 종로.

- (사회자) 농아인 협회 종로지회?

- (박OO) 지회에서 구청과 연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게 재미, 그냥 '어? 되게 재미있다' 해서 여기 딱 왔더니 교재도 따로 있고 되게 이렇게 찬찬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신다는 느낌을 여기에서 좀 받은 것 같아요.

- (사회자)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러 반들을 들어보셨으니까.

- (박OO) 제가 배운 기간이 짧아요. 제일 조금이에요.

5개월이면.

- (사회자) 아니, 다 여쭙볼 거예요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냥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교육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셔도 되고, '너무 비좁은 것 같다'

얘기해 주셔도 되고 교재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든지, 그냥 자유스럽게.

- (박OO) 모르면 용감하게 그냥 막 말하는 게.

- (사회자) 맞아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답하면 안 돼요.

- (박OO) 종로는 강당에서 짹 앉아서 했고요.

거기는 저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하시는 것을 찍어도 돼요?’

그랬더니 ‘찍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수어를 정말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것을 받아 적기도 애매하고 해서 동영상 찍어서 집에 와서 이걸 보고 집에 와서 다시 제가 본 거를 다시 다 정리를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왔다갔다 어디 다니면서 동영상을 다시 보고 되게, 그러니까 되게 습득력이 빨리 되는 거예요.

- (사회자) 그러면 거기는 교재가 없었나요?

- (박OO) 아니요, 프린트 된 자료를 주시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다 찍어서 여기에 만약에 ‘웃다’.

- (사회자) 그러면 ‘웃다’ 찍어서 다시 보시고.

- (박OO) 하고 그걸 다 듣고서 ‘웃다’에 파생되는 것까지 막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걸 저는 막 녹음을 해서 가져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는 제일 많은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고.

- (사회자) 습득력이 빠르셨구나.

- (박OO)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 (사회자) 입문반부터.

- (박OO) 절대로, 네, 입문반부터 했는데 찍지 말라고 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받아 적으려니까 받아 적는 동안에 못 보면 놓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스크린 올리면 눈이 너무 부셔서.

그리고 강사의 위치에 따라 잘 수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강사님은 이렇게 자주 주변을 돌리시려고 하시는... 대부분은 그러시는데, 주로 많이 보시는 쪽이 있으면 이쪽에, 첫날 이쪽에 앉으면 계속 거기에 앉게 되면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가 너무 이제 가까운가?’

생각도 들어요, 교육장이.

- (사회자) 그러면 단계별로 있는 것은 어떠세요?

단계별로 배우셨어요?

- (박OO) 여기요?

- (사회자) 네, 그 팀이 어떠세요?

너무 급격하게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 (박OO) 입문반에서 회화 1, 회화 2 이것을 듣고요 이번 달에 회화 1, 2, 트레이닝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1, 2는 복습이고 이거를 했는데 정말 트레이닝반에 가서 여기를 취소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첫날에 수업 듣고.

- (사회자) 어떤 이유 때문에?

- (박OO) 제가 생각할 때는 회화반하고 트레이닝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차이가 너무.

- (사회자) 아, 너무 커서?

- (박OO) 네, 다 웃으시는데 저는 못 듣고.

- (사회자) 농인 강사님이 하시는 거죠?

- (박OO) 네.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아, 수업 내용을?

- (박OO) 너무 집중은 하는데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집중을 하니까 에너지는 되게 많이 쓰이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으니까 너무 막...

- (사회자) 남는 게 별로 없으시니까.

- (박OO) 속상한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녹음이나 녹화라도 할 수 있으면 가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들어요.

제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제 느낌에는 회화에서 트레이닝반이 조금.

- (사회자) 수준 차이가 좀 크다?

- (박OO) 네, 저는 그랬어요.

- (사회자) 그 중간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 (박OO)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 (사회자) 네, 우리 노OO 선생님은 농인을 처음 만나신 게 언제세요?

- (노OO) 농인을 처음 만난 게.

- (사회자)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때, 농인 학생?

- (노OO) 아까 말씀드렸던 농인 학생은 결국은 못 만났어요.

사실은 그 학생은 못 만나고 수어를 배우는 거에 빠져서 수어 중급, 기초, 그러니까 기초, 중급을 배우면서...

- (사회자) 어디서 배우셨어요?

- (노OO) 청음회관에서 89년도에 배웠어요.

- (사회자) 그러면 수료하신 과정은 초급?

- (노OO) 초급, 중급을 연이어서 배웠는데 초급 때에는 청인 선생님한테 받았고, 중급이 농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배울 때에는 정말 그냥 A4 용지에 단어만, 한 단어에 한 30에서 40, 50개의 단어가 있고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저희도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정말 잘 받아 적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해서 제 판에는 저도 '어우, 나 이거 대단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다른 농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이 우리들끼리만 그리고 그때 강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교육원이라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때로 배웠어요.

한 강의가 100명에서 150명이 한 강당에서 오다 보니까 솔직히는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손을 자세히 볼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일찍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분들은 과연 '선생님 손이 보일까?'

보일까,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계셔도 이 150명의 손을 다 교정을 해준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여지책으로 해주신 게 10명 정도씩을 팀을 꾸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끝난 뒤에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게끔 하고 중간에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묻고 교정하면서 발표하고 이리면서 아, 이거 굉장히 재미있고 그랬기 때문에 중급반까지도 이어서 배울 수 있었는데, 딱 단어만 배우다가 그리고 단어 시험만 중간, 기말에 보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농아인을 만났다면 회의도 하고 내 실력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알았을 텐데,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사회자) 그러면 처음 만나신 건 농인을 언제쯤 만났어요?

-(노OO) 중급반 때요, 중급반 수업 배우면서 농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사회자) 아, 감사분이.

-(노OO) 그분이 처음으로 만난 농인이셨어요.

-(사회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농인을 처음 만났을 때.

-(노OO) 솔직히는.

-(사회자) 솔직히 해주셔야 해요.

-(노OO) 수어 정말 잘한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갖는 느낌이면서도 그분의 언어는 수어다,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또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에 메모리 돼서 나는 이 단어에는 이 단어 하나, 이것만 알고 있는데 정말 자유롭게 구름은 여기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 밑에서도 돌고 어디에서 오면 시끄럽다고 어디 가면 안개가 되고 이런 살아있는 수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농인들의 언어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그때는 그 표현이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농인을 만난 거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지하철에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수어를 배우기 전에는 그게 동작인지 수어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지하철이나 이렇게 거리에서 손을 써서 움직이면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기초, 중급을 겪으면서 이 수어 단어가 뭔데, 나, 집, 뭐 어찌고저찌고 하는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손을 움직이면 거기를 보고 그게 보고 싶어서 반대쪽을 봐요.

지하철은 유리 때문에 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 보겠고, 막상 이렇게 거울로 해서 간접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는 단어는 불과 몇 개 안 되고 전부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수어를 중급반까지 배우고 있는데도 이렇게 모르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애 아빠가 한 번은 물어요, '너 그래도 수어 배운답시고, 갑죽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어 저 내용 다 이해해?'

그런데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저 수어 내용에는 그들만이 아는 것도 있고 수어 이름도 들어가 있고 자기네들 지명이니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지면서도 '저 사람들이 대충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농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 (사회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하시면서는 어떠신지?

여기 수화전문교육원을 이용하시면서 아까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거예요.

강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강의장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노OO) 제가 배웠던 그때는 때로 배웠고, 그리고 교재도 그냥 단어만 나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나왔던 책이 <사랑의 수화교실>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진이 삽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기초반을 배우고 중급반 과정 끝난 뒤에 사진, 책을 보니까 짚히는 게 있었어요.

정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사진 때문에 딱 그거 하나로 기억메모리되는 거예요.

- (사회자) 고착돼 버리는 거죠, 오히려.

- (노OO) 고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이걸 사진으로 먼저 이것을 내가 외우는 것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저는 교육원에 와서 그 트레이닝반을 듣고 있어요, 트레이닝반을 듣는데 보면 단어도 어떤 거냐 하면 보니까 가, 나, 다 순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 수형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단어들을 같이 배울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동을 하고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그냥 단어만 예를 들어 선생님들도 그렇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 배웠던 게 인사, 두 번째 가족, 그다음에.

- (사회자) 학교.

- (노OO) 학교.

- (사회자) 병원.

- (노OO) 경제,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물론 필요로 하는 거기서 연관이 되는 단어 중심으로도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그 뒤 배우는 면에서는 좋은데 저는 이 지금 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예전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많이, 그러니까 농인 쪽의 대화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

- (사회자) 실생활적인 거에, 유용한 것들을 많이.

- (노OO)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만약에 이 교실을 입문, 그 뒤에 회화나 고급, 중간에 듣고 트레이닝반에 오시는 분이 이해하기 힘들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 고급반 때 배웠던 수어들이.

-(사회자) 트레이닝반에 있어요?

-(노OO) 트레이닝반에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손동작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사회자) 난이도가 높은 것도 나와 있는 거네요.

-(노OO) 그러면 난이도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보다'서부터 내가 보는 거,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손 동그랗게 해서 앞을 보는 것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보다'에서 찾다 나가고 뭐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가 제 눈 안에 넣는 거라든가, 둘러보고 훑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 중급 때 안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이 수어들을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트레이닝반에서 쓰는 거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데.

- (사회자) 순차적으로 본다면 너무 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죠.

- (노OO) 갭이 좀 커요.

그렇다면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단 어들을 각각의 학생들이 누가 이거를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 (사회자) 편차가 크니까.

- (노OO) 편차도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중간 과정이나 아니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시각이 있었으면 하는 거였고, 강의실에 각 학생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20명 정도면 선생님들이 보실 때 손을 좀 교정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 (사회자) 약간 개인적인 저기는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것만 가능하고.

- (노OO) 예전에는 때로 배우니까 그 10명씩을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시고 둘러보시면서 교정을 해주신다고 해도 교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20명 정도라면 선생님들이 보실 때 눈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 (사회자) 그러니까 수형도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 (노OO) 왜냐하면 수형 교정이 안 되니까 쓸 때 굉장히 멋쩍어 하세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뽀죌해 하세요.

이거를 쓸 때 본인들이 쓸 때 이거를 어눌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씩 해보게 하고 뭐하고 하면 조금 더 편안히 수어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원은 좀 제한을 뒀서 많이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 (사회자) 그러면 수강 인원은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20명 정도?

- (노OO) 저는 20명, 20명 안쪽, 20명 안쪽.

그래야지 그런데 20명이 또 안 되면 빠지고 뭐하다 보면 또 이것도 에너지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시너지가 안 될 것 같아서 20명 안쪽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교실은, 교실은 이거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봤으면 좋겠어요.둥글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 (사회자) 좌석 배치를가?

- (노OO) 그래서 왜냐하면 전부 제 앞에 있는 뒤통수만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수어를 어떻게 보는지 못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 수어도 교정이 될 텐데, 그것

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옆까지도 볼 수 있는 좌석 배치가 앞으로 보는 동사무소 배치와 좀 같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실이 조금 더 넓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봤으면 좋겠고, 방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음이 되고 지금 강의실은 수화 교육원 큰 여러 교실이 나눠져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에거에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음이 돼서 얘기를 해도 되고 왜냐하면 밖에서 누군가가 제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다른 교실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의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수어 여기서 처음 배우셨어요?

- (강OO) 아, 네.

- (사회자) 여기서 처음 배우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농인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 (강OO) 농인은 그때.

회사 와서.

- (사회자) 여기 와서?

- (강OO) 회사에서 처음.

- (사회자) 회사에서 그때 보고 느낌은 어떠셨어요?

- (강OO) 저는 그냥 외국인 같아서.

왜 외국인이랑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 (사회자) 여기 교육 받으러 와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셨어요?

입문반부터 쪽?

전체 다?

- (강OO) 아니요요.

- (사회자) 그러면 지금 하는 데까지 만족도가 어떠신지?

전반적으로?

- (강OO)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전에 배우다가 잠깐 사정이 있어서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많아요.

- (사회자) 비슷한 건 빼고 안 나온 내용으로만.

- (강OO) 그런데 저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회화를 들고있, 입문반을 딱 들었는데.

'어, 나 다음에 회화반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 (사회자) 다음 과정이 어떻게 받는 것이.

- (강OO) 아직, '내가 이걸 아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수어 필기를 재작년에 봤어요, 보고 쉬었는데 그때도 시험 분위기가 '시험을 지금 보는 거야, 지금 봐야 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나는 지금

배운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뭘 보라는 거지?’

- (사회자) 따라서 가야하고.

- (강OO) ‘뭘 배우라는 거지?’

그래서 여쭙봤어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쭙봤더니.

수어랑 상관없이 그건 필기라서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고 결론은, 아 그때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기한이 이미 벌써 다가오고 있고.

- (김OO) 1차는 합격했대요.

- (사회자) 너무 무리하게 이제.

- (강OO) 또 이제 수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필기를 배울 동안 수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 (사회자) 필기는 합격해 버리고.

- (강OO) 필기는 합격했고 당장 수어는 준비해야 하고 이게 너무, 너무 저는 그게 당혹스러웠거든요.

- (사회자) 그랬을 것 같아요.

- (강OO)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준 차이가 극이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저는 크다는 건 못 느꼈어요.

이제 고급반도 해서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몰라서.

일단 그냥 듣다가 지겨우면 다음 거 듣지, 이렇게 계속 같은 걸 들어서 그거는 못 느꼈는데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 (사회자) 교육원에서.

- (강OO) 하다 못해도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선생님이랑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다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시험이라도, 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보통 회화 학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것 처럼.

- (사회자) 어떤 평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정 과정마다.

평가 과정.

- (강OO) 회화 관련 학원은 전부 다 평가 과정이 있고, 테스트를 해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 (사회자) 어디 반으로 보내고.

- (강OO) 그렇게 하니까.

- (사회자) 그러면 여기서 수강생들에게 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인위적으로 교육원에서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딱 정해주는 것은 불만이 없으세요, 그러면?

- (강OO) 그거는 아니고요.

- (사회자) 그냥 테스트만 받아.

- (강OO) 테스트를 해서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 (사회자)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되?

- (강OO) 본인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그걸 좀 이렇게.

- (사회자) 그러니까 내가 적정한 레벨이 어디고 어디쯤이면 받을 수 있다 정도만.

- (강OO) 네, 그냥 본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만 제공했으면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배우고 이렇게 배우기는 배우는데.

- (사회자)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만 있고.

- (강○○) 직접 제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배울 때는 천천히 알려 주시니까 보기가 쉬운 데 배우고 나서 실질적인 속도의 실질적인 농인분의 수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선생님들도 어떨 때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좀.

- (사회자) 그러니까 실제 농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것이 아쉬운 거다.

- (강○○) 기회가 없어서 앉아서 잠깐 수업 중에 지금 수업이 많지만 이제 과정 중에 프리토크만 하는 반이라든가 이런 반이 조금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 (사회자) 그러니까 정해진 교재 없이 회화반을 하되 어떤 주제를 놓고 직접 대화를 본인 이 대화의 생산자로 나오는 수업,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 (강○○) 그런 수업이 있으면 그게 정말 회화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 (사회자) 이해했어요, 어떤 건지.

우리 선생님도 똑같은 질문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주세요.

- (송○○)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인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이 좋아졌다고 할까요?

- (사회자)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 (송○○) 처음에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 같고 다가가지 못하게끔.

- (사회자) 다가가기가 부담스럽고.

- (송○○) 부담스럽고 그 언어를 전혀 모르니까.

- (사회자) 그러면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만나신 건.

- (송○○) 만난 건 아까 호떡 그.

- (사회자) 호떡.

우연히 길거리에서.

- (송○○)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농인들끼리.

- (사회자)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고.

- (송○○) 굉장히 다른 세상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배우면 참 재미있구나.'

'그들만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우호적인 생각이 들어서적인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수어 배우셨어요?

- (송○○) 네,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저는 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영어, 일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배우러 온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발표, 발표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 하지?

예쁘게 얘기하면 (말이 이지러짐) 그런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 가면 나한테 말을 걸까봐 두렵잖아요.

영어로 길을 물어보고 말을 할까봐 그런 것처럼 농인들을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가갈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인드가 생긴 게 굉장히.

- (사회자) 큰 변화네요.

- (송OO) 변화고.

그다음에 수업은 강사님들이 참 50분 동안 굉장히 저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또래의 나이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복습을 할 수가 없어.

동영상이든 뭐든 필기도 할 수 없고.

선생님한테 집중하잖아요, 50분 동안 오롯이.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수업에 집중하는 게.

그래서 일반 외국어는 하다가 공부하다가 보면 (기계음) 왜냐하면 그건 용납이 안 되니까.

- (사회자)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니까.

- (송OO) 없어요.

전혀, 1분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그러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 (사회자) 반복해서 듣는 게.

- (송OO) 반복해서 복습차원에서 그럴 경우에 농인 선생님이 한 번 하시고 청인 선생님?

그런 반이 있으면.

- (사회자) 그러니까 똑같은 반이되 강사가 농인 강사도 한 분 있고, 청인 강사도 한 분 있으면 좋겠다.

- (송OO) 그러면 좋아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직까지는.

- (사회자) 또 우리 최○○(실명 삭제)성이 선생님은.

- (최OO)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아까 프리토킹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농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이런 거.

- (사회자)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거.

- (최OO) 지나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뵈기도 하지만.

- (사회자) 말 걸기가 어렵죠.

맞아요, 저도 어떤 걸 느꼈냐 하면.

그러니까 되게 농인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걸기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두렵죠.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다가 '이분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그냥 어떤 공식적인 반이 되면 자유로스러우니까 훨씬 더, 느껴져요, '아 저분들 되게 농인
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거.

그런 반이 있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인은 여기 와서 처음 만나셨어요?

- (최OO) 네, 저 여기 교육을 하다가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신청을 받아주셨어요. 해주셨어
요.

- (사회자) 자원봉사, 여기서 수어 배우시다가 자원봉사 나가서 처음 농인 만나셨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 (최OO) 그런데 그때가 취업박람회 때여서 조금 부담을 안고 갔어요.

내 수어가 그분한테 중요한 일인데 '그게 될까?'

그런데 정말 그때는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못 알아들으
시더라고요.

제가 수어로 관련 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표현을 못하니까.

또 다른 농인 분이 제 수어를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서 그 분에게 대신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떠서 얘기하고 또 다른 농인분이 이분은 이분이 제 수어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아
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 (사회자) 중계 통역 해주고.

- (최OO) 아, 이제 알고.

정말 그렇게 처음 경험이 그거였어요.

- (사회자) 그러면 여기 우리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어요?

- (최OO) 저는 100점이라면 한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입문반부터 했고 그리고 입문반을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년 됐는데도 또 입
문반을 듣고 있고.

그러면 처음에 들었을 때와 지금과 물론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반은 저는 예전에 들어서 초창기 때 들었으니까 그때는 청인 선생님한테 들
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과 강의는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트레이닝
반 하면서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는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청인 선생님과 농인 선생님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 (사회자) 그럴 수도 있다.

- (김OO) 여태껏 청인 선생님만 계속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농인 선생님 반 하나를 만들어
준 거다 보니까 왜냐하면 농인 선생님도 우리도 그거 가르칠 수 있어 해서 농인 한번 해보
자 했는데 또 의외로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 (사회자) 모험하자니까.

모험하자니까.

- (김OO)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어느 게 좋은지를 알아야 하니까.

9월부터는 월수는 농인 화목은 청인,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

요.

계속 시도는 해보는 거죠.

- (사회자) 우리 진OO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수어교육 여기서 배우신 거죠?

농인은 그러면 여기서 만나셨어요?

아니면.

- (진OO) 농인은.

처음 농인, 청각 장애인을 본 게 제가 장사할 때 손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 (사회자) 농인분들이.

- (진OO) 네.농인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막 수어를 하면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얼마냐?'는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저게 수어구나.', 그러면서 관심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찾게 된 거죠.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 (사회자) 지금 여기서 교육받으신 거것은는 어떠세요?

- (진OO) 교육받는 것은거는 저는 다 만족을 하는데 뭔가 좀 제가 듣고 싶은 수업 과목이 있지만..는데 이게.

- (사회자) 신청을 못해서.

- (진OO) 수강신청에서 제가 밀려난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 몇 달간 계속 수강신청을..그거를.

- (사회자) 못 듣고 계시는구나.

- (진OO) 많이 못 듣거든요.

- (사회자) 클릭 전쟁에서 실패하셔서.

- (진OO) 네, 10분 만에 마감이 돼 버리니까 매번 대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롭고.

그런 부분에서는.

- (사회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어요?

- (진OO)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별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 달 통역반 수업' 같은 경우를 따로 영상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수업 과정으로.

- (사회자) 온라인 수업도 있었으면 좋겠다.

- (진OO) 온라인으로 한다면, 똑같이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수업을 직접 못 듣더라고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또 나름 또 혼자 공부하기도 좋고, 또 복습하기도 좋을 것 같고.

- (사회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거 수업 외에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기 수업 말고?

- (진OO) 그건 없죠.
- (사회자)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최OO) 저는 영상으로 1:1 과외를 해본 적이 있어요.
- (사회자) 어떻게요?
- 농인 선생님께?
- (최OO) 아니요, 청인 선생님한테.
- (사회자) 아, 청인 선생님께, 1:1 강의?
- (최OO)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 저는 정말 1:1 강의를 좋더라고요.
- (사회자) 1:1 강의가?
- (최OO) 물론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
- (사회자) 그러니까 더 작은 규모의 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 네, 우리 선생님은?
- (박OO) 저는 농인을 처음 만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알 선교단에서 농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어색한뽀죤한 거예요.
- (사회자) 아, 맞습니다.
- (박OO) 그냥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 (사회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 (박OO)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진짜 그 적막이 흐르는 그 공간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다거나 눈이 마주쳐서 하면 거기 딱딱거리고 나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지 모르게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 그런데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도.
- 목사님한테 '저 너무 어색해요.'뽀죤해요라고.
- 목사님이 '배워!, 목사님이 그러면 배우면 되겠네!'.
 - (사회자) 그러면 밀알에서 어느 단계까지 배우셨어요?
 - (박OO) 그때, 초·중·고급반을 들었는데 저희는 인천에서 제가 배우고 나서 그 단체가 약간 좀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었지만 이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만뒀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경력단절이 이뤄지니까 다음 재취업을 할 때는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유아교육을 배우게 됐거든요.
 거기 교수님이 어린이집에 오는 친구들 중에 농인 부모님이신 경우가 있다.
 - (사회자) 아, 부모님이 농인.
 아동이 아니라.
 - (박OO) 네, 아동이 아니라.
 - (사회자) 학부모가.
 - (박OO) 그럴 경우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러면 수어를 배우면.
 - (사회자) 훌륭하신 원장님이시네요?

- (박OO)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젊을 때 초·중·고급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배워볼까?' 하면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시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이요?"라고 했더니.

서울 여기 전문교육원에 가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 (사회자) 그러면 자격증 대비 교육도 받으셨어요?

- (박OO) 네.

- (사회자) 수화통역반, 음성, 필기통역반 다?

- (박OO) 네.

- (사회자) 어떠세요?

여기 교육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이런 건 어떠세요?

- (박OO) 교육은 인천이나 지방이나 여기를 따지자면 너무 질적인 차이가 게 커요.

- (사회자) 그러니까 전문교육원과 일반 협회에서 배우는 것과 밀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 (박OO) 밀알하고 인천협회, 이런 데서.

- (사회자) 협회에서도 배우셨는데.

- (박OO) 이게 아주 옛날이기도 했거니와.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시험, 단어가 뻑뻑해서 100개, 200개씩 하는데 그때뿐이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했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게 뭐였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구요..

- (사회자) 아무래도 반복이 많이 필요한 언어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 (박OO) 그러면 그때 배울 때는 진짜 한국어 식으로 배우잖아요.

- (사회자) 그렇죠, 한국어 대응 수어로, 인공적으로.

- (박OO) 그러니까 농인하고 만나면 그걸 한국어 식으로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 (사회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은 자연 수어인 한국수어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교육은?

- (박OO) 많이 가고는 있었지만 좀 답답함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어떤 부분에서?

- (박OO) 제가 이렇게 막 많이 평가할 정도로 많이 실력이...

- (사회자) 평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받기를 원하니까.

- (박OO) 제가 어떤 게, 제가 이제 시험 보려고 왔을 때 제 영상을 찍잖아요.

처음 영상을 찍어놓고 선생님이 제 영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것처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더라고요.

- (사회자) 촬영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 (박OO) 네, 촬영.
 - (사회자) 수어 통역하는 걸 시험 볼 때와 똑같이 촬영하고 평가해주고.
 - (박OO) 네, 평가를 해주시곤 하는데 처음 남,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것조차도 익숙지 않았던 거였는데 제 영상을 제 스스로 보고.
 - (사회자) 내가 나를 보고.
 - (박OO)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창피하고.
 - (사회자) 도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당혹스러우셨네요.
 - (박OO) 네, 그런데 그 수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이 수업은 정말 필요한 수업이구나.
- 그런데 제 거 보는 것은 괜찮은데, 남의 것 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래요, 이 세계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서로 비난하는 것만 아니면.
- (사회자) 그렇죠.
- 같이 공부하면서 자료로 그런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 (박OO) 처음에 제가 수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자살이라는 수어)를 배웠는데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이 없어요.
- 의미를 모르니까.
- 그냥 자살이라고만 아는 거예요..
- (사회자) 배우셨다면서요?
- 아, 너무나 한정적으로 배우셨구나.
- (박OO) 자살이다, 자살이야.
-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그걸 죽는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간 사람이 없지 않고서는 이것 쓸 일이 그러면 평생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 (사회자) 용례를 모르시니까.
 - (박OO) 네, 여기 와서 이게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 (사회자)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 (박OO) 네, 그리고 그 유사한 표현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 느낌을 모르니까 꼭 배웠으면 써먹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이.
 - (사회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됐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 (박OO)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해주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 그래서 물론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남 앞에서 내 수어를 이렇게 보고 지적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요.
- 다른 사람 수어를 보고 그 문장에서 그 표현은.
- (사회자) '그 사람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 (박OO) 그래서 오픈마인드로 펼쳐서 이렇게.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같이 시험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하고는 끝나요.

- (사회자) 그렇죠.

합격한 분들은 배울 곳이 없으니까.

여기도 수화통역사 보수교육은 따로 있지만 제가 수업시간에도 말하지만 수화통역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없죠.

수화통역사의 실력을 거기서 또다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서 아마 교육원에서 배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은 준비하셔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역사들이 배울 곳이 없으니까.

- (박OO) 시험 다 보고 나서 내가 실력이 좋은 나쁜 운이든 뭐든 딱 합격하고 나면 여기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오면 안 될 것 같고.

- (사회자) 아니, 그런데 또 오시는 분들 눈치 보인ده요.

‘너는 합격했는데 네가 옴으로써 우리 한 명이 수업을 못 듣는다.’ 이런 눈치가 있어서 오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별도의 양성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다들 초급, 중급, 고급까지는 다 마치신 건가요?

다 들으신 거죠?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 (박OO) 다는 아니고.

- (사회자)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 (박OO) 회화 1, 2하고 지금 이번 달에 회화 1, 2, 트레이닝, 이거 세 개 하고.

- (사회자) 그러면 지금 자격증 대비반들을 다 들으세요?

우리 노OO 선생님은 안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도 아직 자격증 대비반은 안 들으시죠?

- (박OO) 네, 그럼요.

- (사회자) 자격증 대비반 들으시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선생님은 안 들으시고?

아, 선생님은 합격 하셨어요?

아, 자격증 대비반 두 분?

세 분?

그러면 이제 이거 배우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어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셨고 농인에 대해 이해도도 다 관심이 높아지신 거잖아요, 다들.

그러면 이제 혹시 이 교육 외에, 또 이 교육 안에서 이제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또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이 교육원에서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업을 통해서도 내가 뭐 자원 봉사를 나갔어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현상이었는지.

수어 외에 농인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아직 없으시고.

우리 노OO 선생님은?

- (노OO) 저 같은 경우는 농인의 문화를 경험한 거는 농인과 직접 만났을 때?

토의하러 나갔을 때 또 행사들.

- (사회자) 다양한 행사들.

- (노OO) 협회에서 운영을 했던 행사들을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가지만 그게 그냥 구경하러 갔을 때도 그 문화들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여기 와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아까 앞의 그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제가 기초, 중급, 고급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의 고급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아, 수준이 그때보다는 그때가 좀 더.

- (노OO) 네, 지금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고.

그때는 정말 기초 단어도 그 단어에 대한 설명만, 손동작만 배웠고 회화도 정말 한국어랑 일대일로 대응해서 하는 식으로 한국말을 대치하는 용도로만 수어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농인들을 그 이상의 농인들을 실질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어를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어가 틀린 수어인지 어떤 수어인지도 모르고 중급을 마친 뒤에 고급 과정을 갔을 때 지금 현재 국어원에서, 아니, 문화, 수화교육원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트레이닝반에도 많이 나오는 내지는, 여기는, 여기서 배웠던 건데도 그때는 배우지도 못했던 단어들도 지금 많이 배워요.

그런데 저는 그 수어를 실질적으로 농인들을 만나거나 제가 일을 하면서 배웠던 수어들, 생활에서 썼던 그런 고급수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살'이라는 수어때문에 저도 실수했던 적이 있는데 게 이게 자살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누가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야? '

'자살한 거야?' 물어봤어요. 했는데 그 수어가 '자기 무덤 팠다.'는 '내가 내 무덤을 팠네.'라는 의미를 그때 알면서 이렇게 확장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농인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닝반에서는 이 수어들이 부지불식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순간에도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알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더 많은 용례를 보고 자연스럽게 농인의 그 내용을 제가 거르기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를 모르는 '자살'이라는 거 자체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농인들의 문화에서 이런 언어들을 다양하게 쓰지 못하는, 쓴다는 걸 몰랐을 때는 '정말 언어가 이렇게 작나? 숫자가? 어휘가 적나?'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서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일대일 대응이 안되는 것이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수어를 배우는 이유도 지금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농사회 쪽에서 어떤 그 내용들이 이슈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와서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농 문화는 농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주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농인들을 행사에서 많이 만나셨겠네요? 주로 이

제 그냥 아무래도 근무하시면서 근무한 곳의 행사, 주로 행사를 통해서.

- (노OO) 행사는 그냥 행사일 뿐이죠. 그리고 행사를 통해서도 보면 그냥 이건 행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인들과 사는 모습을 저는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종교 활동이나 봉사활동 하시면서 일대일로 농인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농인들과를 사용하는 수어도 풍부하게 구사하실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언어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아직 그러면 농인들을 많이 현장에서 못 만나셨으니까 아직 어떤 농인의 문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으세요?

어떤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걸 체험하거나 이런 기회도 없으셨겠네요.

실질적으로.

- (박OO)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강OO 선생님은 어떠세요?

농 문화를 이해할 수 프로그램.

- (강OO) 수어캠프를 처음 갔었는데.

작년 거 말고.

- (사회자) 어디서 하는 수어캠프.

- (강OO) 여기서.

재작년에.

- (사회자) 교육원에서 하는 수어캠프가 있어요?

- (강OO)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냥 하루짜리.

농인분들이 중심으로 돼서 게임을 하고 옆에 교육원생들이 껴서 하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본성들이 나오잖아요.

- (사회자) 그렇죠.

- (강OO)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 두고 1년 정도 쉬면서 여기나 아니면 해치.

- (사회자) 자원봉사하거나.

- (강OO) 농과 관련된 모든 자원봉사를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안 오는 날은 다 자원봉사를 갈 정도로.

- (사회자)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들이 실질적으로 농 문화를 이해하고 접하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 (강OO)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왜 도움이 안 됐냐 하면.

일단 자원 봉사자는.

- (사회자) 많은 접촉의 기회가 없죠?

- (강OO) 그냥 옆에 처음.

- (사회자) 농인과 접촉의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 (강OO) 청인 근로자의 이해.

- (사회자) 업무를 돕는 거지.
- (강OO) 업무 알바 정도만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간식을 챙긴다던가.
- (사회자) 그러면 그럴 때 나한테 어떤 자원봉사 역할이 부여됐으면 좋겠다고 느끼셨어요?
- (강OO) 제가 한번 강북구 체육대회를 갔는데 거기 농 아동을 돌보는 일이 맡겨졌어요. 그런데 농아동도 있고 농부모의 청인 아동도 있고 그 회원들의 아동을 다 보는 일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농인들을 조금 더 접하게 됐어요.
- (사회자) 직접적으로 농인들을 대면할 수 있는 거.
- (강OO)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농인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못 보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애가 뭘 못 먹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나마 그나마 조금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에서 그런 것까지는 부여를 안 해주니까.
- (사회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업무를 안 주죠.
- (강OO)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최근에 들어서 농인분하고 친해져서 제가 수화통역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만나는 장소에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 (사회자) 어디로요?
- (강OO) 볼링 치고, 밥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럴 때 이제 옆에서.
- (사회자) 개인적인 만남.
- (강OO) 그런 만남에 참석하게 되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개해주신 분이 '애는 지금 이번에 수화통역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구화 쓰시다가 수어 배우신 분들은 한국어에 가깝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사용하다 한국어식으로 많이 쓰시고 구화도 쓰시고 이러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와중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상담자 같이 모임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지금 최근에 그래서 문화를 조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저는 그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원 보조를 하는 그런 일은 정말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가보면 그냥 오셨다가 말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 (사회자) 아, 자원봉사자들이?
- (강OO) 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도리어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 (사회자) 농인에게.
- (강OO) 네, 아예 안 시켰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하게 아까 프로그램, 교육과 다 연관해서 꼭 있었으면 하는 게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을 보는 요건에 사실 지금 자격이 없잖아요. 시험 보는데 돈만 내면.
- (사회자) 나이만 18세 넘으면.
- (강OO) 시험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기 전에 일정 기간의 실습 기간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실습 기간이 수화통역, 농 센터에서 몇 십 시간 일을 하든, 아니면 통역사를 따라서 몇 회 통역을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습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참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농인과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실기를 보고 필기를 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면 '지금 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갓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상황이.

'나는 지금 뭘 하고, 나는 뭘 하러 왔지?'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본인들도 답답해하시고 저도 답답하고.

- (사회자) 나도 답답하고.

- (강OO) 그리고 저는 좀 무감각해서 그런 건 없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위에서 최소한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공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그게 '최소한의 실습시간이라도 있어야지, 현장 경험이나 실습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협회에 마련하지 못한다면 교육원에서, 하다 못해 협회와 연계해서라도 가실 때 그런 경험을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많죠.

왜냐하면 서울이나 서울수화전문교육원이 있지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 (강OO)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 (사회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실기대비반 나가 보면 서울 중랑구에서 하는데 충남 청양 이런 데도 오고 이러는데 이러면 실습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관도 이런 실습생 받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이거든요.

저희 중앙회도 농인들만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농인들은 실습할 곳이 없는 것을 아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수용하기가 실은 쉽지 않아요, 농 사회에서 수용하기가.

- (강OO) 그리고 아까 수업 신청하는 것도 지금 저도 오늘 아침 10시에 굉장히 고됐는데.

- (사회자) 난리더라고요, 난리예요.

- (강OO) 정말 그런 긴장이 없어요.

1분 만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 총 대비반이.

- (사회자) 모의고사?

- (강OO) 그러니까 10시에 변하는 걸 보고 저는 버튼을 눌렀는데 신청이 끝나는...

- (사회자) 1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다다다다다.

- (진OO) 아니 그런데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에러가.

- (사회자)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나오고 이런 에러가 있죠.

- (강OO) 그런 그때 보시면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안 오잖아요.

수업을 안 와요.

- (사회자) 그런데 신청은 해요.
- (강OO)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 (사회자) 강사들도 안타깝더라고요.
- (강OO) 그런데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 신청을 못해서 흐름이 끊어져서 그만두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 '나 한 달 쉬니까 같이 못하겠어.'라고..
- (사회자) 그렇죠, 리듬이 끊어지니까.
- (강OO) 그래서...
- (사회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 (강OO) 기존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해서 번거롭더라도 일은 정말 많아지겠지만 출석을 체크해서.
- (사회자) 출석률.
- (강OO) 출석률로 해서 15일까지는 기존 학생들 출석률이 도달한 사람만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 남은 자리에 대해서 주면 물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안타깝지만 이왕이면 꾸준히 하던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시스템이 조금...
- (박OO) 너무 강압적으로 여기는 어떤 사설 학원도 아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사회자) 한계가 있죠.
- (박OO) 레벨을 만들거나 이렇게 조금 제약을 둔다거나.. 하지만 각자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강OO) 그런데 저는 그런 제약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설 기관이 많잖아요.
- 교회에서도 있고 지부에서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전문교육원이라는 이름을 한 군데 딱 이걸 어떻게 시범제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그런 신청 시스템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배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다.
- (강OO) 정말 많이 봤어요, 한참 배우시다가 한 6개월 배우시고 나 이제 실습 준비할 거야 막 그러시다가.. 나 이거는...
- (사회자) 전쟁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 (송OO)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너무 수업료가가격이 너무, 너무 저렴해요.낮아요.
- (사회자) 낮아요. 저도 얘기합니다.
- 가격이 너무 낮아서.
- (송OO) 왜 이렇게 싼 거예요?
-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먹고.
- (사회자) 안 오는 거죠, 그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 (송OO) 가격을 조금 더 올려도.
- (사회자) 필요한 것 같아요.
- (박OO)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건의 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분 말씀대로 하면 저는 여기 못 들어...

- (사회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예요,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이 올라오는 풍선과 똑같아요.

- (박OO)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출석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

그러니까.

- (사회자) 체크는 해요, 저희가.

- (박OO)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번에 얼마 이상 수업을 안 들어오는 사람은.

- (사회자) 출석을 못하게.

- (박OO) 다음번에는 그런 제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교육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겠지만, 처음 들어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 먼저, 이거는 좀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한 것 같고요.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 대신에 처음 하든, 계속 하시던 분이든 수강신청을 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 이상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은 다음에 수강신청을 할 때 제재가 있었다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들어왔는데 하다 보면 열흘 정도 되면 한 2주차 정도부터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 (사회자)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비반 다녀 보니까.

- (강OO)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출석률로 다음 수강 신청할 때 제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데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해요. 별도의.

- (강OO) 그게 컴퓨터로 접속해서 보니까, 학습방 밑에 '나의 학습장 노트'인가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출석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어요.

- (송OO) 그런데 그것은 수어 보급이라는 수화전문교육원을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 (사회자)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어떤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많은 제한들을 두게 되면 또 신청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죠. 또 어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불만을 알지만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노OO) 저희 집 근처에서 문화 교실이 열리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제한을 두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하면 신입회원을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신입회원이 다 찬 뒤에 기존의 회원이 오거나, 아니면 출석체크를 해서 5회 이상 두 달 과정이다 그러면 5회 이상 결석이 있다고 하면 이 분은 어느 일정 기간은 쉬게끔 해버려요.

벌을 주는 거죠.

- (사회자) 제재가 좀 있는 거죠.

- (노OO)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여기는 수어 인구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이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대화를 할 수 있거나 그것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청음회관 안에는 수어를 하는 농인들이 있었어요.

요일별로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청림회, 다다회, 보람회, 청모회, 경총회 (명칭은 들리는 대로 표기함)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내지는 그 젊은 친구들 있죠, 대학생서부터 일반 사회인까지 있는 그 모임이 있어서 여기서 기초, 중급을 듣고 나면 다시 기초, 중급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서클 안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예요.

- (사회자) 자체적인 교육과정.

- (노OO) 자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맥이 끊어져서 더 이제 못하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강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재하시고 아신다면 이걸 가지고 복습하고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수어 끊은 거, 아까 선생님 말씀에 동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분명히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에는 자세히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 농인이 쓰는 수어의 속도와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제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깐 제가 쓸 때 어색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여기서 따로 공부를 한다면.

- (사회자) 자체적인 동아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

- (노OO) 이런 건 어떨까 싶고,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누군가 하나가 와서 멘토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 (사회자) 그것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겠죠, 그 안에서.

- (노OO)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전 그 동아리들에서는 먼저 수어를 배웠거나 수어를 잘 아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학습부장.

- (사회자) 누군가 해주시겠죠.

- (노OO) 이런 식으로 한 분이 딱 계셔서 '이번에는 이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준비들 해 오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그 트레이닝반도 내지는 대비반도 수준은 다르겠지만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되고.

사실 농인아인들이 우리 위해서 모여서 우리를 데려가주지는 않거든요.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농 문화 이해하는 프로그램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 (송OO) 저는 이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 (사회자) 아직 그런 경험은 없으시고.

- (송OO)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쨌건 처음에 기존에 배운 사람, 배운 것도 중요한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응해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친근감이 생기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잖아요.

- (사회자) 입문반도 클릭 전쟁이 심한가요?

입문반도?

- (송○○) 빨리...

- (사회자) 그래요?

그런데 입문반은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듣지는 않으시잖아요.

대개 입문반들은 약간 입문반은 새로운 인원들이 들어오는 편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과정을 갈 때 정체돼 있는 거네요.

- (강○○)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싸니까 정보를 듣고 입문반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끼리 경쟁을 하시는 거고.

- (사회자) 다른 반들은 또 이제 계속 누적되는 인원들이 정체되는 거.

- (강○○) 사실 그렇게 아까 제가 드린 것대로 한다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못 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입문반을 계속 하염없이 신청하시는 건 아니니까.

- (사회자) 우리 최○○ 선생님은 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세요?

- (최○○)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저는 농인을 만나든 농 문화가 뭔지 아직 모르겠고요.

- (사회자) 그렇죠, 농 문화 쉽게 알지 못해요

저도 30년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쉽게 농인의 문화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정의도 안 되어 있어요, 실은.

제가 농인 당사자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농 문화를 얘기해봐라 하면 얘기해 주는 게, 우리는 박수 대신 반짝반짝, 소리 대신 경광등.

그런 것은 어느 하나의 생활에서의 측면이고 농 문화라는 게 정말 굉장히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실은 그런데 어떤 적어도 '농 문화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또 내가 직접 체험했을 때 '아, 이런 게 저도 농인들 만나면서 시간 지나니까 '이게 농인의 문화구나'라고 딱딱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나 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와 문화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절대로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수어문화 학교 안에 우리가 수어교육도 필요하지만 농인의 문화도 같이 접목되는 교육이 필요하겠단 싶어서.

우리 진 선생님은?

- (진○○) 저는 농 문화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경험은 없으신 거고.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 (박○○) 저는 그게 농 문화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농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을 해봤으니까 같이 일을 해보면 가끔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수어를 이렇게 한국어와 대응시켜 쓰다 보니까.

- (사회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나의 말을 왜곡하는.

- (박OO) 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제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그 사람 말을 제가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농 문화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농 문화라고, 청인 문화가 충돌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상황이 뭐라고 딱히 정의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애매한데 저만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무튼.

- (사회자) 언어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언어 문화의 차이, 우리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그게 농인들의 사회에서는 어떤 나를 비난한다고 느껴졌다거나 나를 욕했다고 느껴진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농인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 (박OO) 그게 농 문화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전반적인 약간 농 문화에 대한 체험이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거의 없으셨던 거고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저희 수어법에 의해서 한국수어 문화학교가 운영이 될 거예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학교'라고 해서 대상자들을 좀 정해서 수업을 서울시에서도, 유치원,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주제나 과정으로 운영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유치원에서도 해보고 대학교 가서도 해보고 다양한 대상들을 해서 저희가 한 30회 정도 지금 올 사업 안에서 해보면서 우리가 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야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야 할까 또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되면 좋을까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연구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수어 문화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이 수업에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좀 교육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좀 다뤄지고 또 교육생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 (박OO) 제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수어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한 거 보면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농인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화를 우리 문화로 옮겨서 설명해줄 수 있는 청인 선생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수어는 한국어와 일대일 대응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그냥 뭐 정말 자살, 딱 일대일 대응.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농인이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건 느낌인 거지 그걸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일대일 대응이 딱 형성되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청인 강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가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는 교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재도 여러 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재부분에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교재가 책 한 권 딱 하나만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음성 언어로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사회자) 그런데 지금 교육원 교재는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 (박OO) 그러니까 그 한글로 된 것이 한국어 음성 파일과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학생들한테 CD든 USB로 제공되는 보조 교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 (사회자) 그러니까 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글로 된 교재만 말고 영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 (박OO) 네, 한글로 된 교재를 수어로 표현한 수어 영상과, 교재의 문장을 읽어주는 한국어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있어야 해요. 어차피 우리는 통역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표현해 볼 수 있게 음성 파일도 같이 제공된다면 좋겠어요.
- (사회자) 지금 수어통역이나 음성통역 수업과 같은 것은 그렇게 수업되고 있지 않나요?
- (강OO)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 (사회자) 음성을 하고 연습하게끔.
- (강OO) 음성을 따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파일을.
공유폴더에다가 영상이나 음성을 올려주시거나 블로그에 올려주셔서 수업시간에, 수업신청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아이디 알려주셔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 (박OO) 보조적으로 교재들이 좀 단어별로 따라와 주면 좀 더 우리가 공부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주실 수 있다면 스터디 룸 같은 걸 혹시.
- (사회자) 스터디 룸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 (박OO) 네,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뭘 좀 같이 좀 해볼까 하는데 너무 우리 공간 찾으려 가야하고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떤 다른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모임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청인, 농인이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 (사회자) 제가 하나 카페를 차려야겠네요.
- (박OO) 말씀은 스터디를 하라고 했지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 (사회자) 그러면 문화학교에 대한 운영방향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수어 문화학교'라는 제목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전문교육원과 약간 차이가 있죠.
한국수어 문화학교니까 그 대상자는 청인도 되고 농인도 되고 다 돼요.
한국수어 문화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 문화학교도 국가 기본법에 의해서 국립국어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노OO 선생님이 거기 강사로 나가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공무원 그 다음에 국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저희가 그 꼭지에 '수어도 언어다.' 해서 저희가 약 한 시간 30분 정도씩 그분들 수업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수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말 그대로 수어법에 의해서 수어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고, 또 수어가 언어라는 인식개선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인들도 우리는 한국어를 국어로 배우지만 농인들은 자기네 언어를 배우는 과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인들도 스스로 우리의 농 문화가 뭔지 몰라요.

‘농 문화 얘기해 보세요.’ 하면 거꾸로 저한테 ‘네가 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이제 성인 대상도 있고 아이들 대상할 수도 있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농인 대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지.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 진 선생님 먼저.

- (진OO) 저도 생각은 많이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농인과.

- (사회자) 많이 만날 수 있는.

- (진OO)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습법 같은 거 있죠?

- (사회자) 농인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것거.

- (진OO)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김장철이라면 김장 때 같이 김장을 담그고 나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게 또 농인이.

- (사회자) 김장하느라고 수어를 할 수 있을까요?

- (진OO)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일종의 서로간의 어떤 문화를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 (사회자) 뭔지 알 것 같아요, 꼭 어떤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인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 (진OO) 같이 등산을 간다던가.

- (사회자) 우리 어렸을 때는 무언의 등반대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말을 못하게 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무언의 등반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 (연구원1) 예전에는 농들과 체험할 게 많았는데 요즘은 자원봉사, 수어 배우신 분들이 너무 바빠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봉사자를 못 구해요.,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것을 해, 봉사를.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 (사회자) 우리 최OO 선생님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최OO) 그 문화학교 대상이 수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회화반 정도까지만.

- (사회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 (최OO) 정말 재미있게 아무튼 재미있는 체험 이런 거, 그런 거.

간단하게.

그런데 농인들도 보면 청인과 수어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교육원에 오시는 농인들만 그런가?

- (사회자)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 (최OO) 그래서 그런가요?

그분들도.

- (사회자) 통상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저희가 가면 '아유 또 귀찮은 사람 하나 왔네', '재는 또 몇 개월 있다 갈까?' 그래서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기 투명인간 같이 취급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흥미가 만족되면 가는 애, 아 재도 또 왔다가 갈 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 가면 어?

'애는 좀 오래 가네? 좀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재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왔지?'

이런 게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농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막상 만나러 가보면 굉장히 저희한테 어떤 벽을 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장돼야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어도둑'이라고 얘기해요.

청인들이 와서 수어만 도둑질한다. 훔쳐간다.

- (연구원1) 우리 강사 한 분이, 강사 한 분 오늘도 했는데 뭐라 했냐고 하면 두 시간 동안 수어를 가르친 학생이 수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생기면 다른 사람과 음성언어로만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인 강사는 음성언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학생은 수어를 배우니까 강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그러면 수어를 훔쳐가는 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 (사회자) 맞아요.

농인들은 우리 청인들이 수어를 도둑질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 (연구원1) 상처를 받은 거야.

- (사회자) 그러니까 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생기는 거죠.

- (박OO) 그렇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 (연구원1)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수어를 배울 때 두 시간 동안 그 반에 있으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면 수어를 한번 같이 사용하는 거를 습관을 한번 들여 보세요.

그러면 농아인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 (사회자) 우리 지난 주 수업 때 그거였어요.

지난 주 수업 때 그거 했잖아요.

외국의 수화통역사 사례를 보여주고 이렇게 전화 올 때도 농인이 보든 안 보든 한쪽에서는 계속 수어로 얘기 해야한다.

- (연구원1) 그런데 우리 일하면서도 그렇죠

'왜 너네는 수어 안 하냐고, 왜 이거 하냐고.'

하지 말래요.

- (사회자) 정확히 맞췄.
- (연구원1) 이래요, 우리 습관이 아직 안 된 거야.
- (사회자) 이거 하다가도 어느 순간.
특정 수어만 딱.
- (박OO) 습관 때문이 아니고.
- (사회자) 처음부터 안 지켜서 그래요.
- 처음부터 이게 버릇이 됐다면 괜찮아요.
- 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 외국은 일본인 통역사들은 예를 들어 '쏘, 쏘, 쏘', 청인이 세 번 그렇게 말하면 통역도 '쏘
네, 쏘네, 쏘네', 횟수까지 맞춰요.
- 네, 네, 네, 네 우리 한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나라는 그런
것에 엄격하지 않아요.
- 그러니까 농인들이 얘기하잖아요.
- 우리가 청인들 때문에 날마다 참고 산다.
- 우리 농아인의 인 자는 참을 인 자다.
- (박OO)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말을...
- (사회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 그런데 농인들은.
- (박OO)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 (사회자) 그렇죠.
- 100%, 100%.
- (연구원1) 100% 똑같이.
- (사회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는 우리 수어를 늘 보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음성언어로만 하나.
수어를 도둑질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 (연구원1)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서도 또 안 맞는 거죠.
- (박OO) 그러니까 자기네 손해라는 거죠.
- 그렇구나.
- (사회자) 수어만 도둑질해 가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말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럴 거면 뭐 하러 수어 배우냐,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연구원1) 그러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든 통역사와 같이 동시에 만날 하는데 그
게 안 돼요.
- (사회자) 늘 그게 갈등이에요.
- 우리 선생님은 문화학교 방향이 어떻게 되고 어떤.
- (송OO) 저는 뭐 그냥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친해져야 되겠죠.

소통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사회자) 우리 강 선생님은요?

- (강OO) 저는 이게 뭔지 몰라서...

- (사회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수어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어가 이제 언어라는 것들도 인식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수어 사용인구가 많아지는 게 결국 우리 농인들의 가장 큰 복지는 우리 같은 전문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수어통역이 가능해서 늘 동사무소 가도 수어 가능하고 수어로 대화할 수 있는... 농인들이 원하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 (강OO) 그런데 이게 교육원이 아니라 문화학교잖아요.

- (사회자) 네, 문화학교예요, 프로그램이 다르죠.

- (강OO) 대상이 청인이 될 수도 있고.

- (사회자) 농인이 될 수도 있고.

- (강OO) 그러면 흥미도 있어야 하고 뭔가 교육적인 것도 있어야 하니까 농인과 청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 (사회자)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 (강OO) 운동회라든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문화라는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 (사회자) 얼굴이 너무 정중하면.

너무 정중하면 위험해요.

- (강OO) 그런데 왜 농인분들은 그냥 이렇게 먹을 때도 더치페이를 하고 더치페이를 항상 안 하면 나중에.

- (사회자) 돈 안 내는 구두쇠.

- (강OO) 구두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인 문화에서는 왜 상하관계와 남녀관계에 따라서 내가 낼게, 내가 낼게 하면 그게 도리어 예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런 어떤 에티켓.

- (사회자) 어떤 농문화의 사례나, 농인에 대한 에티켓 이런 거.

- (강OO) 그러니까 그거를 딱 농인이라고 한정지으면 농인들은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면.

식사에 대한.

- (사회자) 그분들에게 청인의 문화의 가르쳐야겠죠.

- (강OO) 식사에 대한 에티켓?

- (사회자) 청인들의 문화는 또 이런 게 있다.

- (강OO) 제목을 식사에 대한 에티켓, 아니면 관계에 대한 에티켓 이런 식으로 교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농인은 이렇게, 농인만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청인도 농인을 이해해야 하고요.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OO)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는 문화센터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때그때 뭐 그때 유명한 인기 있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수어를 배우셨던 분들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이 있었으면 해요. 강의하는 식의.. 한국수어 문화학교에서도 이런 형식을 빌려 수어통역사 교육이라든지 교양 수어만 배웠던 분들도 심화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해요.

- (사회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요?

- (노OO) 수어통역사를 위한 심화 과정을 하게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농 문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인과 청인이 함께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구요.

또 '국어문화학교'처럼 실생활에서 쓰이는 공공언어(한국어)들을 필요한 농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요?

- (박OO) 저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요.

문화 안에 교육도 있기는 하겠지만 수화전문교육원은 수어를 배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 말 그대로 배우기 위한 거라면 문화라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 (사회자) 약간 가볍게.

너무 무겁게 가는 것은...

- (박OO) 재미있게 같이 뭘 만들거나 같이 뭘 배우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 (사회자) 저희가 이제 기본 질문은 다 드렸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더 개인적으로 교육 받으시고 이러시면서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진OO)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수업, 수강생들의 출석 일수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수업이 정말 필요로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시간대 같은 수업, 다른 수업과 여러 과목들을 겹치는.

- (연구원1) 많아요.

오전, 오후, 3개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입문 오전, 오후처럼 3개를.

- (진OO) 그러면 그 세 과목에 정작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 (연구원1) 자기는 오전이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나면 오전에 와.

바빠? 오후에 와, 저녁에 와.

- (사회자) 그렇죠, 자기가 융통성 있게 오기 위해서.

- (연구원1) 막을 수는 없어요.

- (진OO) 그러니까 제재를 가한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보완을 해서 동시간대 수업 과정은 한 과목만 신청할 수 있게끔.

- (연구원1) 지금 그거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바뀔 거예요.

서울시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합니다. 우리가 수화교육원을 세운 목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수어 교육을 파급, 보급하기 위한 것이고, 통역사를 키울 목적은 아니

에요.

수어를 되도록 많은 사람이 배우고 해야하죠. 그런데 수업료가 1만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 강좌들은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교육원이 여기가 수어통역사 양성이 목적이 아니고 이 통역사 대비반은 그게 상응하게 수업료를 올리라고 해요.

- (사회자) 별도로 하고.

- (연구원1) 지적당했어요.

- (박OO) 그것도 맞습니다.

- (사회자) 전문 과정으로 분리돼야 하는.

- (연구원1) '분리해서 해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료가 너무 저렴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전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못 배우게 되죠.

그래서 대기자도 만들어 놓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다 잡아 놓고 여기는 오전 됐어, 오후를 대기 했어, 대기자 전화해,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해.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 (강OO)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 (연구원1) 오전 자기가 정말 그 시간을 원하면 그 시간 하나를 해야 하는데.

- (강OO) 이 시간이 제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는 시간이 오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전은 뭔가를 빼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신청 경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 (사회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강OO) 오후 거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데 오후가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전 거라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 (사회자) 그렇죠, 혹시 모르니.

- (강OO)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는 와야 하겠으니까 오전 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는 대기를 해놓는 거예요.

오후에 해놓으면 난 4일을 다 올 수 있으니까 대기를 해 놔는데 오케이 대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 (연구원1) 그런데 그게 한 달에 500명이야.

그 많은 사람이.

- (사회자) 그렇죠, 여기는 한 달에 신청한 사람이 500명이니까.

- (연구원1) 얼마나 그 인원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복잡해지지, 지웠다 해놔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대기 올려놔던 사람들을 넣어주고. 또 부르고.

- (강OO) 그러니까 저도 신청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알고 너무 죄송했고 그렇지만 전화해서 정말 와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서.

- (연구원1) 그런 건데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딱하면 되는데. 들으면 되는데..
- (강00)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 (진00)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과정을 어떤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도 별도의 수업료를 하면 더.
- (연구원1) 수어 교육을, 온라인 강좌를 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전국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온라인 교육을 하면 전국 강의료가 다 같아지게 돼요. 지방에서는 수익 사업으로 수어 강좌를 열 수 있잖아요.
- 그러나 우리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영상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오류를 수정하기도 힘이 들고요.
- (최00) 학생이 녹화 못하는 것도.
- (연구원1) 다 유출돼요.
- (노00) 유출도 되지만 사실은 와서 배워야 하는 건데 이거를 찍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놓쳐요.
- 수업을 봐야 하거든요.
- 촬영된 단편적인 영상만 보게되면 수어를 잘못 배우게 될 수도 있고요.
- 그 시기가 그때는 힘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 수업 보고 그러니까 이게 불필하다는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건 선생님 수업이에요.
- 선생님 수업인데 이게 부차적인 이거 내가 나중에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찍는 거에 정신이 그쪽으로만 집중되면 정작 수업을 못 봐요.
- (연구원1)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1지, 2지, 새로 다 적어서 노트로.
- (진00) 그런데 여기는 영상 찍는 거는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제 영상을 찍는 거는 괜찮잖아요.
- (사회자) 자기 영상을 찍는 거는.
- (진00) 저는 그렇게 찍거든요.
- (연구원1) 하면서 문제는 학생들이 얘기가 와, 왜 영상 촬영하면 안 되는데 왜 찍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 (강00) 오해를 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는 선생님을 찍는 사람들이니까.
- 꼭 있어요.
- (연구원1) 그렇지.
- (강00)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선생님을 찍고 있잖아요.
- 그러면 앞에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저 사람도 찍으니까 자기는 선생님을 찍는 거래요.
- (연구원1) 그래서 그래요.
- 정말 양심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 (노00) 저 같은 성격에서는 사실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는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내려와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진동이든 뭐든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분들한테는 이걸 정말 엄청난 방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들 아무 생각 없이 휴대전화 두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쩌면 수어가 자유롭게 나오지 않는 거는 그만큼 수어가 편하지 않아서예요.

모르는 것도 있고 막혀요, 다 아는 단어만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입문반에 한번 참관을 해봤거든요.

비수지(표정)을 하는 것에 어색함이 없더라고요. 연기같이 재밌었어요.

- (사회자) 재미있으셨다잖아, 연기같이.

- (박OO) 저는 재미없게 했어요.

부담스러운데.

- (사회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너무 억지스럽고.

저도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런 거 시키는 거 너무 싫다고.

- (강OO)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 (사회자) 저는 그런 거를 안 가르치는데 다른 분이 너무 이렇게 시키니까 너무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기하셨어요, 싫었다고.

- (연구원1)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 (강OO)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 있으신 수업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키는 게 많을 것을 같아요.

- (사회자) 그렇지, 내 수업은 상관이 없는데 입문반 때 '화내봐라.'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안 하는데 느닷없이 내용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 (연구원1)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강사반을 운영해서 전국의 수어통역사들도 부르고 교육원에서 입문반부터 배운 사람들도 모였는데 현직 수어통역사들도 좋은 비수지가 나오지 않는데 교육원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비수지가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입문반부터 짝 온 사람들이.

아, 그래서 여기 교육원 출신은 표정이.

- (송OO) 그런데 지금도 지방에서는 책 단어 이렇게 해서 '아빠' 이게 기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입문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기초반 같은 시기를 떼고 같이 만나보면 확실히 다른 것이 보여요.

- (연구원1) 처음에는 힘들지만 극복을 하고 나면 더 많이 비수지가 나와서 훨씬 좋아요.

- (사회자) 어떤 분들은 '입문반까지만 해도 너무 재미있게 배웠는데 그다음 넘어가니까 너무 어렵고 막, 자기가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입문반까지는 굉장히 재미있게 배웠는데 딱 입문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최OO) 그런데 정말로 발표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 (연구원1) 그런 사람은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슬쩍 선생님한테 '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안 해요.

- (강OO) 저는 입문반부터 들어온 학생인데 학생들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정해

주는 것 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한 두명 불만을 지적하게 되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 (사회자) 쉬는 시간 딱 정하세요.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 (연구원1) 화장실은 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강OO) 그런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육원생들이.

- (연구원1) 선생님이 한다고 하면 그냥 네, 하면 되는데.

- (강OO) 얘기가 정말 많고 뭐냐 하면 앞에 앉아서.

- (사회자) 쉬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아요?

- (강OO) 그것도 그렇지만 수업 시간 내내 불평 불만이 많고 텃새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기도 해요. 질문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요.

- (연구원1) 확실히 처음에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 (사회자) 텃새가 있는 거네요, 일종의.

- (송OO) 그런 식으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 (연구원1) 그리고 오래 다니면 이제 강사에 대해서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래 다닌 분들은 졸업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생각해 봤어요. 통역사 자격증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수화통역 자격증까지 따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게 우리가 좋은 건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사회자) 그러면 뭔가 수업을 듣는 것을 몇 회 이상 제한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 (연구원1) 이제 내부 규정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 (사회자) 그러니까 수강 회수를 정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사회자) 말씀하세요.

- (송OO) 제가 맨 처음에 수어법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금 기대했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꿈을 꾴보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국어 한글 시간에 그림 낱말 카드를 보여주면서 정답을 맞추잖아요.

그 자동차 그림 옆에 농아동을 위해 자동차 그림 옆에 수어로 자동차를 써주면 어떨지 생각했어요.

- (사회자) 초등 교과서에는 들어갑시다. 수어가 들어가긴 해요.

- (송OO)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로 달리다 보면 왜 여기는 인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써 있으면 그 밑에 이런 그림이라도 하나 딱 걸어놔야지 수어법이 딱 통과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딱 느끼고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 (사회자) 그런 것들이 행해지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어법의 주무부처가 문체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 부처가 관련 일들을 시행해야죠.

- (송OO) 그래요?

- (사회자) 현재는 교과서에만 조금 들어가는 정도죠.

- (송OO) 초등학교만요?

- (박OO) 아니, 그러면 선택과목이라도 이런 식으로.

- (사회자) 과목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선택과목이 되려고 하면 수어 교원 학과가 있어야 하죠.

우리나라가 수어교원학과가 없잖아요.

수어교원학과가 없는데 누가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는 교과목이 될 수 없어요.

- (박OO) 명분으로...

- (사회자) 그런데 또 교과목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은 절차가 있어요.

엄청난 절차,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 (박OO)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문화교육을 하면서.

- (사회자)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목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목이 그래서 수어교원자격제도를 만드는 게 정식 교과목으로는 못 가도 이런 수업 교원 제도를 해놓으면 이제 학교에서 교장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가야 이게 교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지금은 교과목으로 하려고 해도 수어교원학과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출이 돼야 하잖아요.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과목을 만들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OO) 우리 마무리해야 해요.

- (사회자) 또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 (박OO) 교육원은 과정이 여러 개가 개설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이 있어요.

- (연구원1)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2009년도에 세웠을 때 서울 지역에 이 지역에 지부가 있었던 수어 교실에 수강생이 없어서 입문은 어느 지부가하고 중급은 어느 지부가 하는 식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 (사회자) 지역적인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 (연구원1) 다 해봤어.

다 이거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한 거예요.

- (사회자) 아무튼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좀 더 좋은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방향을 저희가 좀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 (함께) 감사합니다.

[부록 8]

시범프로그램 II 농민속학 -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농민속학

농인 어르신: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 한국수어문화학교 시범사업 중 '농민속학'에서 다뤄진 주제를 이야기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별첨된 수어 영상은 별도의 편집 없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듯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 시범사업 결과,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① 청인들을 위한 농 문화, 농역사 자료 제시: 이야기책 제공
 - ② 농인들을 위한 농민속학(농역사) 강좌: 오프라인 강좌
 - ③ 전 대상을 위한 온라인강좌: 일정한 질문과 주제를 가지고 촬영된 완성본을 제공.

질문:

할아버지! 옛날에는 청음회관과 농아인협회가 한 기관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나뉘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 농인들이 농아인협회장으로 김기창 화백을 추천했어. 협회장이 된 이후에 운영이 힘들어졌지. 그래서 청음회관을 따로 세워서 청음회관 산하에 농아인협회가 들어가게 된 거야. 청음회관이 농아인협회를 도와줄 거라는 말을 우리는 믿었지.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된 거야. 그러니 사실 청음회관의 기반은 엄연히 농아인협회였던 거지. 청음회관의 주인도 농인이고. 하지만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운영상의 관점이 달라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 오히려 압박당하는 기분이었지. 그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났어. 농인들은 마구 몰려들었지만... 난 시원치 않았어.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내가 회장을 하겠다 엄포를 두고 그때 분리가 되었지. 그렇게 농아인협회가 다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란다.

질문: 농아인협회의 회장은 농인만 할 수 있나요? 청인은 못하나요?

그렇지. 농아인협회는 오직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회야. 청인은 안 되지. 시각장애인협회에 농인이 가입할 수 없잖아. 시각장애인이 농아인협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농아인협회의 중심은 농인이야.

질문: 요즘이야 인권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받는 차별이 뭔지 느끼고 대응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은 내가 농인인 것이 잘못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을 거 같아요. 무엇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익숙해져버린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어르신께서는 그 옛날 어떻게 청인과 농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청인들은 다 듣고 이해하고 웃고 그러잖아. 근데 농인들은 도통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수어통역도 자막방송도 없던 시대였지.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어. 농인들 한두 명이 모여서 '이건 이상하다. 농인들에게도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농인'은 누가 만들었니? 하늘이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야. 우리도. 그러니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하니 청인들이 말문이 막힌 거지.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청인들은 싫어했어. 화면을 가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그런데 농인도 국민이잖아. 우리도 세금을 내거든. 그렇다면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렇게 차별을 인지하고 맞서기 시작했어. 요즘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잖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 23, 24살 때였나. 그때부터 농사회 활동에 관심이 생겼지. 40대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건 26살 때인데. '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만 가지고 살아왔어. 26살부터 '난 농아인협회장이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활동을 쪽 했고 결국 회장이 되었지. 아마 52, 53세쯤. 그 이후 방송에 수어통역, 자막을 넣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렇게 농사회를 위해 일한 것 같아.

질문: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8살 때 농학교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부모님이 나를 농학교로 보내셨지. 부모님은 내가 청각장애인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 하지만 내가 갑자기 귀가 들리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셨지. 인공와우 수술을 하거나 하는 시도들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셨어.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곧 들리게 될 거다.' '말을 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 그건 안 믿어. 또 우리 아버지가 박식하신 분이었거든. 나에게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녀라 하셨지. 그리고 내가 농인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열심히 학교를 다녔지.

질문: 일제강점기 이후 협회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때가 1961년이었지? 그 당시에는 장애인단체가 참 많았어. 근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많은 단체가 해산되었지. 맹인이든 농인이든 누가 세웠든 다수의 협회들이 사라졌어. '한국사업복지연합회'가 설립되었었는데, 그 안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분과라는 이름으로 농인은 농인분과로 나누어 운영되었거든. 그런데 농인분과 대표는 농인이 말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청인이 대표를 해야 한다.'는 거지. 다른 단체들도 비슷했고, 그래서 청인을 농인 단체의 대표로 삼고 운영을 했어. 그때 어떤 반박도 통하지 않았지. 농아인협회 60주년 기념 책자에 나와 있으니 자세한 건 그걸 한번 봐. 농아인협회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

질문: 1961년부터 그렇게 협회 활동을 억압당하다가, 다시 농인이 연합하여 힘을 내자고 한 때가... 1981년 쯤 부터였나요? 다시 농아인협회가 세워지고 활동하던 시기가 궁금합니다.

1978년에 한국농아인협회가 설립됐어. 1961년부터 70년대까지는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지. 농인끼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고소하고, 싸우고... 정말 시끄러웠던 상황이었어. 화해는 안 되고 농인끼리 서로 불신하게 되었지. 그러다 얼마 후 1977년 쯤 김기창 화백을 중심으로 협회 설립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지. 당시 김기창 화백은 유명했고 협회 운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도 했어. 1980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한국농아복지회라는 이름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지.

질문: 과거와 현재. 농사회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1950년 전쟁이 있던 시기는 괜찮았어. 그러다 1953년~1954년에 어려웠지. 협회 운영이 힘들어서 농인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는데, 기부금만으로 운영하다보니 협회가 참 가난했어. 월급도 적었고. 결국 다들 기부금을 손수 모아 협회를 운영했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았거든. 기업들이 후원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해선 안 돼. 내가 나이를 들어보니 알겠더라고. 공짜... 너무 공짜만 바라는 건 안 돼. 사실 운영하는데 정부가 많이 도와줬지. 그걸로 충분해.

옛날엔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게 참 힘들었어. 또 수어통역가 통역을 한다고 해서 수입이 있던 시절도 아니야. 그러다보니 농인들이 수고비를 챙겨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 현재는 정부가 통역사들 인건비를 다 주잖아. 그러니 농인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되지. 만약 따로 몰래 돈을 받으면 그건 해고 되는 거지.

수어통역사의 숫자도 많이 늘었어. 요즘 같으면 행복한 거지. 예전엔 내가 통역사를 구할 때마다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준 적이 있어. 고생했었지.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 괜찮아. 은행에 갈 필요가 있으면 수어통역사를 부를 수 있잖아. 참 좋은 세상이야. 옛날과 현재는 정말 달라. 환경이 정말 달라졌지.

예전엔 농인들이 만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잖아. 2시간동안 이동해서 친구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엔 핸드폰이 없잖아. 청인은 전화라도 했지만 농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직접 가는 거야. 가서 벨을 누르고 약속을 잡고. 그렇게 다른 집들도 찾아다니며 다 일일이 벨을 누르고 사람들을 모아서 몇 시간이고 놀면서 대화를 하고 헤어졌어. 요즘은 참 편하지.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금방 모이잖아. 영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도 하고, 정말 시대가 달라졌어. 참 좋아졌지.

질문: 예전에 방문했던 다른 나라에서의 일화가 있을까요?

협회장으로 있을 때, 20년 전이지. 그때 일본에 갔던 일이 기억나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참 심했지. 일본에서는 농 관련 서적이 참 많았어. 그걸 보고 정말 놀랐지. 분위기가 한국과는 다른 것 같더라고. 한국 사람은 권력을 좋아해서 자리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일본은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누구나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가질 수 있더라고... 그러니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아.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싸우면서까지 협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 협회에 가보면 역사적인 자료들이 별로 없어. 관련 서적들을 많이 버렸던 거지. 그런 자료들이 찢기거나 사라진 것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서적들을 아주 소중히 간수하려고 해. 다른 나라를 보면 자료를 참 귀하게 관리하고 정리하더라고. 협회 대표 깃발도 버리지 않고 30년 동안 아껴 쓰고 하는 거지. 이처럼 우리도 잘 전시해두고, 역사적 사건이자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하는데... 내가 초대 협회장이지만 그런 게 기록이 되지 않잖아. 이래저래 참 실망스러웠어. 선거를 한번 치르면 손해가 커. 후유증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선거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 중이야. 계속 싸워가며 제안하고 있어. 나중엔 개선되겠지. 일본을 보면 선거권이 없더라고. 이사들 알지? 이사들이 추천한 30명 중에서 20명을 또 추리고, 이사들이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천하며 논의하고 결정한 후에 차기 회장을 발표를 하더라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 간단하고 싸움이 없어. 혹시 잘못되면 이사들과 논의 후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다른 사람이 회장직을 맡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운영이 잘 되지. 일본을 보면 부러워.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거야.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

질문: 농역사 중 기가 막혔던 사건이나 추억들이 있을까요?

옛날엔 농아인협회의 권위가 상당했어. 행복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즉 농인끼리 다투다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사건을 협회가 접수해서 당사자를 끝까지 찾아내. '왜 약속을 어겼냐'라고 하면서 폭력도 오고갔지. 그러니 농인들이 협회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결국 화해를 하게 돼. 경찰이 농인을 부르면 농인들이 뻔뻔하게 굴 때가 있거든. 그런데 협회 농인이 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정도야.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농인들이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니 해결이 안 되기도 했어. 그러면 협회가 나서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곤 했지. 그런데 내가 농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되찾아야겠다고 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득했어. 덕분에 농인들 간의 폭력이 사라지고 그런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지.

질문: 아직 청년들 사이에는 수어와 구화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나요? 언제쯤 해결될까요?

자. 설명해줄게. 내가 젊을 때 독일 농아인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 수어가 익숙하고 참 빨랐는데, 미술단원인 농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그 농인에게 구화인과 농인의 사이가 어떤지 물어보니 어렵다고 하더라고. 독일도 구화인과 농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야. 독일 농인의 얘기가 다른 나라도 가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래. 한국만이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갈등은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 구화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 나도 가끔은 봐.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노력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아냐. 그들의 방식이야. 그냥 뒤야지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구 화인과 농인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봤지만 더 말할 필요가 없지. 해결이 어려운 문제야.

질문: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부탁이 있어. 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할 수 없다'고 하며 소심해지지 마.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 알겠지? 내가 젊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마. 내가 19살 때 국내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어. 그 일로 신문에도 나왔지. 힘들고 지쳤어. 하지만 극복하고 친구와 돌이서 여행을 마쳤지. 그 덕분에 난 '농인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기반으로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 실망하지 마. 앞으로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봐!

[부록 9]

시범프로그램 III 이야기하기 - 농유머 세 가지

이야기하기 - 수어유머

- 본 내용은 수어 이야기하기 중 유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농 문화 자체를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청인들의 유머가 말장난 즉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이 많듯이, 수어의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정리하였다. 편의상 한국어로 정리하였으나 수어의 표현이 강조된 부분은 『 』기호로 별도 표시하였다.

1. 제목: 수영선수의 비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이야.

한 수영선수가 거의 매일 훈련을 했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매일을 연습했지.

올림픽 당일.

러시아, 일본, 북한 등 여러 나라가 올림픽에 참여했지.

다른 나라 선수들은 키가 엄청 큰 거야. 근데 그 수영선수만 160cm였어. 혼자 키가 작으니 다른 선수에 비해 타격이 크겠지.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떨었어.

‘내 키가 이렇게 작는데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근육도 좋고...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이 많았지만 ‘한 번 해보자’ 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맞섰다. 속으로는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합에 나갔어. 다른 키 큰 선수들을 신경 쓰지 않고 시합 준비에 집중했어.

드디어 심판이 시작을 알리고, 『키 큰 선수들이 열심히 팔을 휘저었어.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여러 차례 팔을 휘둘러서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데 반해, 키 작은 선수는 손만 까닥했는데 확~ 앞으로 나가는 거야. 몇 번 팔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쪽쪽 앞으로 나갔어.』

다른 키 큰 선수들은 키 작은 선수가 쉽게 수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거야. 숨이 차서 헉헉 거리면서 키 작은 선수를 바라봤지.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은 힘이 들었는데 키 작은 선수는 그다지 힘들지 않게 유유히 이겼어 시상식에서 키 작은 선수가 당당히 1등자리에 올라 상을 받았어. 여러 인터뷰에서 키가 작음에도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는 ‘3년 내내 매일 밤낮없이 훈련을 해서 지금처럼 수영을 잘하게 되었다. 아마도 하늘에서 내린 기적이거나 보다.’ 는 이야기만을 남겼고 이 이야기에 키 큰 수영선수들은 24시간 매일 무리하게 훈련했어.

4년 후.

다른 선수들은 4년 전 놀랍게 우승한 키 작은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어. 키 작은 선수는 여유만만 한 표정으로 나왔어. 사람들이 그 선수의 살을 만져보는데 근육도 없이 말랑말랑한 거야.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었어.

『키 큰 선수들은 지난번보다 2배는 빠르게 팔을 내저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역시나 이번에도 키 작은 선수가 손바닥만 까닥하자 쭈욱~ 쭈욱~ 단 두 번 만에 레일 끝에 도착했어. 다른 선수들은 뒤에서 허우적거리며 따라왔지. 키 작은 선수는 이번에도 아주 손쉽게 빠르게 도착하여 금메달을 땀어.』 그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후로 계속 수영시합에서는 그 선수가 계속 메달을 땀고, 어느덧 그 선수도 나이가 들었어. 다른 선수들의 은퇴할 나이를 훨씬 넘긴 50, 60대까지도 그는 수영선수를 계속 했어. 50년 가까이 메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땀지. 죽음에 이르러서 그는 유언을 남겼어. 자신의 수영실력의 비밀을 말িয়া.

『나의 수영실력의 비결은 바로.... 방귀입니다. 공기를 잔뜩 들이마시고 그걸 방귀로 내뿜으면서 그 추진력으로 남들보다 두 배는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죠.』

아... 그의 숨은 비밀은 바로 방귀였어.

2. 제목: 형님은 대단해

형제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아우가 강패들에게 엄청 맞은 거야.

『이도 흔들리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동생은 혼자인데 강패들이 우르르 덤벼오니 얼마나 심하게 다쳤겠어. 동생은 여기저기 멍든 채로 형에게 갔어. 형은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

“너 어디서 이렇게 다친 거냐?”

“강패들 여러 명에게 이렇게 맞았어. 형.”

형이 보니 이도 흔들리고 얼굴이 난리가 아니야. 형은 화가 났어.

“내가 가서 혼 줄을 내주지. 어디야! 앞장서”

“형 그 사람들 수도 많고 얼마나 강한데. 형이 혼자서 이길 수 없어”

동생이 걱정했지만 형은 자신만만했어.

“걱정 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가자! 어디 있냐?”

동생은 형을 데리고 강패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

『형은 씹던 껌을 하늘 위로 휙 내던졌어. 그러더니 1, 2시간쯤 한참을 싸웠어. 형 혼자서 그 많은 강패들을 상대로 싸웠지. 모두를 다 물리치고 나자 하늘에서 껌이 떨어졌어.』 형은 유유히 그 껌을 탁 받아들고는 다시 씹었지. 우와. 형님은 대단해.

3. 제목: 똥 피하기 경연대회

나는 똥을 시원하게 쌀 때마다 짹짹한 게 하나 있었어. 똥을 싸면 그 물이 자꾸 엉덩이에

튀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똥물이 튀는 순간! 점프를 했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자꾸 연습하다보니까 아주 잘 뛰게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전 세계에 똥 피하기 경연대회가 있다는 거야. 난 거기에 출전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을 누려면 사실 좀 부끄럽잖아. 그런데 보니 가림막이 있더라고. 그래서 중요 부위를 잘 가리고, 똥을 누고, 똥물이 튀는 순간! 점프!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당당히 1등을 했지.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아서 난 부자가 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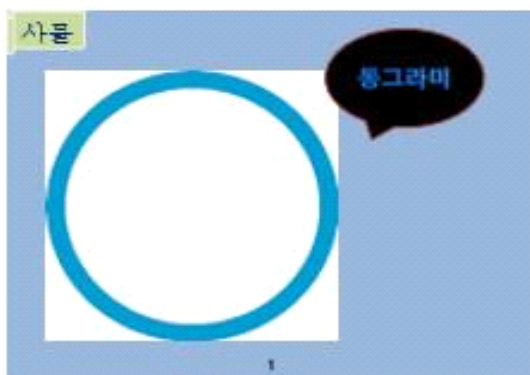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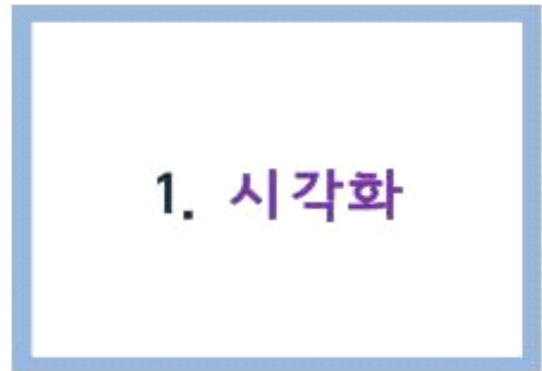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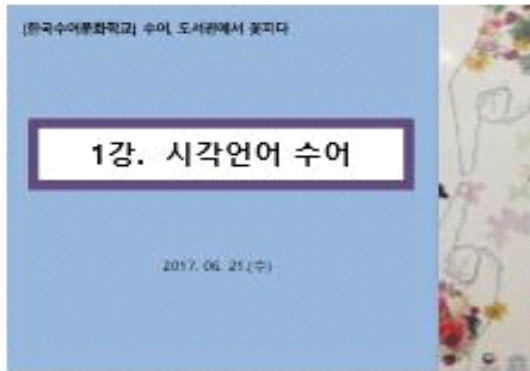
[부록 10]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계획안 예시
 교수 · 학습 계획안

영역	찾아가는 문화학교	단원명	시각언어 수어	강사	손천식 엄미숙	장소	서울도서 관
						차시	1/10차시
본시 지도 목표						▶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손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다. ▶ 수어의 조어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농 문화1. ‘있다’, ‘없다’와 연관된 간단한 표현들을 할 수 있다.	

단계	학습내용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 농인에 대한 생각 ☐ 수어에 대한 생각 ☐ 음성이 아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알아본다. ☐ 수어는 어떻게 조어되어 있는가를 이해한다.		자유롭게 말하기
전개 (70')	활동1 활동2 활동3 활동4 활동5	☐ 사물의 형태의 시각화 - 동그라미, 삼각형, 가는 원통, 굵은 원통, 좁은 방, 넓은 방 등 ☐ 다양한 손의 모양과 움직임 - 전후움직임, 좌우움직임, 지붕모양, 걷는 모양, 피아노 치는 모양, 두드리는 동작 등 ☐ 자연현상의 시각화 - 비, 가랑비, 소나기, 눈, 폭설, 바람, 태풍, 지진, 파도, 낙엽 등 ☐ 사물의 형태와 움직임을의 시각화 - 날다, 나비, 잠자리, 독수리 등 - 소주를 마시다, 와인을 마시다, 차를 마시다 등 ☐ 농 문화1. ‘있다’와 ‘없다’ - 눈에 보이는 ‘있다’ vs 눈에 보이지 않는 ‘없다’로 표현되는 말들 : 비+있다, 비+없다, 소리+있다, 소리+없다 등		PPT 자료
정리 (5')	과제 제시	☐ 주변의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 또는 자연현상을 손으로 시각화 시켜보기		
평가	성취 기준	성취수준		
	• 수어의 특성을 말할 수 있고 간단한 것을 시각화할 수 있다.	상 수어의 특성을 2가지 말할 수 있다. 자연현상 3가지를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중 수어의 특성을 1가지 말할 수 있다. 자연현상 2가지를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하 수어의 특성을 잘 모르고 시각화 시키는 데 서툴다.

[부록 11]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강의자료 예시



비

한국어: 비가 온다
한국수화: 비 + 있다

비

한국어: 비가 오지 않는다
한국수화: 비 + 없다

소리

한국어: 소리가 들린다
한국수화: 소리 + 있다

소리

한국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한국수화: 소리 + 없다

아
수화

괜찮다

아

청인: 고맙습니다 → 별말씀을
농인: 고맙습니다 → 괜찮다

[부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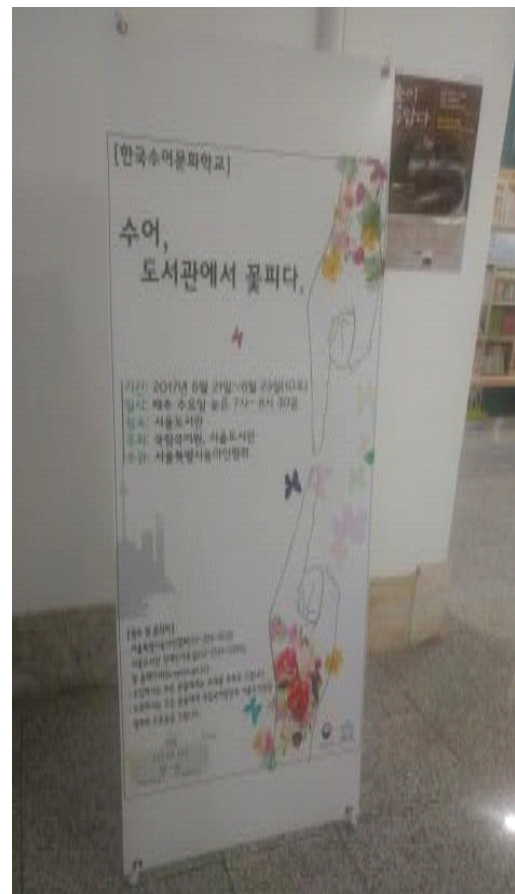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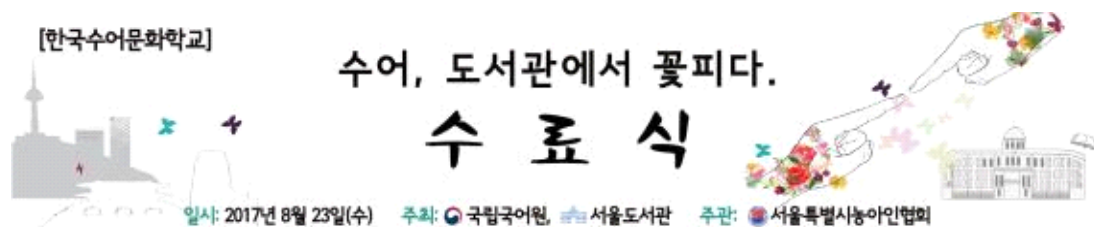
포스터



배포 교재



배너 설치



수료식 현수막

[부록 12]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언론 인터뷰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5027035

“수어는 완벽한 ‘언어’... 외국어 익히듯 공부”

입력 : 2017-08-24 22:32 | 수정 : 2017-08-25 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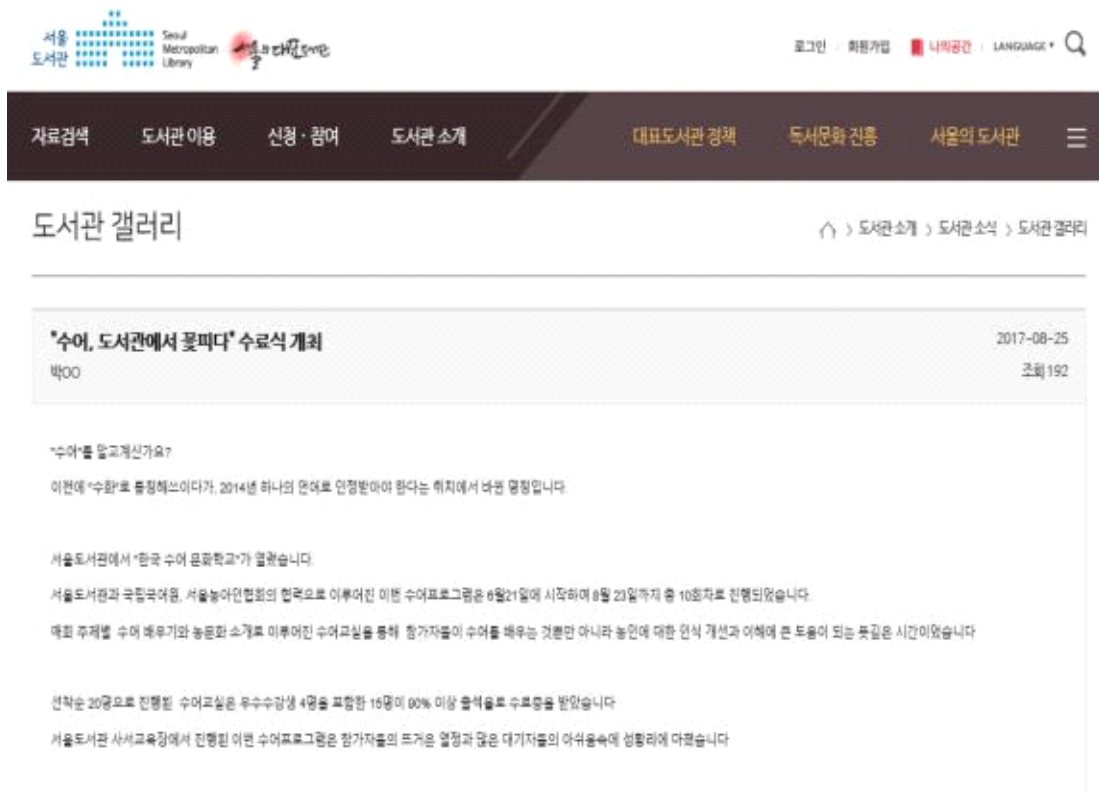
수어문화학교 첫 수료생 배출...이지은씨 등 “대중화 노력 필요”

“수어(手語)를 배우면서 수어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구 경기 때 감독과 선수가 주고받는 수준의 몸짓이 아니라 창조성이 있고 소 멸하기도 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 이지은씨

[부록 14]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의 서울도서관 갤러리 게시물



서울도서관 갤러리 한국수어문화학교 수료 관련 게시물
출처: 서울도서관 누리집 https://lib.seoul.go.kr/bbs/content/16_36515

[부록 15]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평가지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참가자 평가지 1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1)

성별: 남 여 연령: 만 세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2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장소는 쾌적하였습니까?					
3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수준은 적절하였습니까?					
4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운영은 충실하게 진행되었습니까?					
5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강사는 내용 전달을 원활하게 하였습니까?					
6	다른 사람에게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추천하고 싶습니까?					
7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래 8~10번 문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9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은 무엇입니까?					
10	소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참가자 평가지 2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1)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V 표시해 주세요.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오늘 강연을 듣기 이전에도 수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2	오늘 강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3	강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4	농인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나요?					
5	수어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6	수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나요?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유롭게 기입해 주세요.						
7	그동안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8	오늘 강연을 듣고 난 소감					
9	건의사항 및 그 외 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진행자 평가지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2)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V 표시해 주세요.											
질 문		기준 10점 만점									
		<----->									
1	오늘 참여자들의 수강태도와 반응에 점수를 준다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오늘 강연을 준비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연구진의 준비과정과 운영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유롭게 기입해 주세요.											
4	1회기 강연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5	1회기 강연이 갖는 한계나 아쉬움이 있다면?										
6	건의사항 또는 연구를 위한 제언										

별책

1.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2. 다회기 프로그램 I 「교수학습 계획 및 강의안」

부가자료

1. 한국수어교원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1단원 수어 동영상
2. 시범 프로그램 II
 - 농민속학 수어 동영상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책임 연구원 강창욱

공동 연구원 김경진, 황창호, 엄미숙, 이미혜
박종미, 김주희, 송미연, 이현화

연구 보조원 김선희, 장민영

담당 연구원 이현화(특수언어진흥과 주무관)

발행인: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인 쇄: 우리동네출력소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